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보 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1960-70년대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전람회에 관한 연구

2019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오 여 진

1960-70년대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전람회에 관한 연구

이 보 연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오 여 진

# 인 준 서

오여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 ..... 임 성 훈 ..... (인)

심 사 위 원 ..... 이 성 례 ..... (인)

심 사 위 원 ..... 이 보 연 .....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논문개요

수출 진흥을 위한 ‘미술수출’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1966년에 개최된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는 당시 한국의 산업디자인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지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현상과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성과를 밝히고, 나아가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960-70년대는 정부가 수출주도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집중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디자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시기이다.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는 이러한 시기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었고, 이 움직임은 한국에서 기계에 의해 대량생산되는 산업디자인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해당 범위는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1960년대부터 출발하며,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수출주도형정책까지를 범위로 한정 지어 1960-70년대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매년 개최하는 전시의 경향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 1회(1966.8.3-8.22)부터 제 15회(1980.5.19-6.7)를 3개의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1966년부터 1970년까지로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제도의 창설 배경과 개최 양상을 살펴본다.

두 번째 시기는 1971년부터 1975년까지로 주관부서가 한국디자인포장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본격적인 디자인 정책의 진흥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개선되어가는 전시의 변화과정과 센터의 정책 방향에 주목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1976년부터 1980년까지로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의 제도가 정착 발전되는 과정에서 산업디자인 개념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전시회의 성격과 내용이 심화함에 따라 수상 작품의 수준 향상을 가늠해 보고 성장 발전과 한계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는 출품자와 주관 및 주무 부서, 산업계 간의 유기적이고 밀접한 관계에서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디자인 육성 정규 제도를 마련하여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고, 산업 디자인 분야의 정착과 성장을 이루었다. 다음으로 기업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이너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출과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졌다.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초기에는 학생층이 주축을 이루어 신인 디자이너 등용문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이후 현직 디자이너들의 참여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미적, 기능적 시야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반면 정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포장디자인 중심의 산업디자인이 전개되었다.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는 오로지 ‘미술수출’이라는 국가주의 경제개발의 도구로만 기능하였고, ‘산업’ 중심 디자인 개념으로 고착되어간 디자인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3. 선행연구 검토 .....	8
II. 1960-70년대 한국 산업디자인의 동향 .....	12
1. 기업: 디자인 산업의 추진 .....	12
2. 교육계: 디자인 교육계와 산업디자인전 .....	21
3. 정부: 디자인 진흥기관 .....	32
III.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제도의 창설 .....	41
1. 상공미전의 창설 배경과 취지 .....	41
2. 상공미전의 개최 양상 .....	45
IV.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제도의 조정 .....	56
1. 상공미전의 문제점 .....	56
2.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출범과 개혁 .....	63
V.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제도의 정착 발전 .....	71
1. 정규 제도 확립 .....	71
2. 산업디자인의 융성 .....	72
VI. 결론 .....	79

참고문헌 .....	82
ABSTRACT(영문초록) .....	89
도 판 .....	92
부 록	

## 표 목 록

- 표1. 전람회 명칭 변천과정
- 표2. 해방 이후 설치된 디자인 관련 학과의 초기 교수진: 디자인 교육을 받은 일본 유학생 출신
- 표3. 제1회 - 제15회 대통령상 수상자 명단: 서울대학교 출신자 다수 수상
- 표4. 한국 디자인 진흥기관의 변천
- 표5. 공예인 간담회 참석자 명단
- 표6. 산업디자인전 변천과정
- 표7. 제1회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명단

## 도판 목록

- 도판1. 박정희 대통령의 '미술수출' 휘호
- 도판2. 금성 'A-501' 라디오, 1959.
- 도판3. 'A-501' 라디오 신문광고
- 도판4. 국내 최초 흑백 TV 'VD-191' , 1966.
- 도판5. 제 55회 토리노 국제자동차박람회(1974.10.30.개최)에 현대자동차  
'포니' 출품. 옆에는 TV탤런트 양정화.
- 도판6. 국내 최초의 고유 모델인 현대자동차 '포니' , 1974년 10월에 첫선.  
1976년에 양산.
- 도판7. 만보사 신문 광고
- 도판8. 만보사 코카콜라 광고
- 도판9. 한독의약박물관 전경 [사진출처=한독]
- 도판10. 제1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포스터, 염인택, 1966.
- 도판11. 제1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 상공부장관의 서문
- 도판12. 1966년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가운데)
- 도판13. 강찬균, <서울역색채안내실시>, 제1회 대통령상, 1966.
- 도판14. 강찬균, 서울역색채안내실시와 일본올림픽촌 심볼 비교
- 도판15. “외국 것 본뜬 것” , 『경향신문』 , 1966.08.10
- 도판16. 김길홍, <오토라이너>, 1967, 제2회 대통령상.
- 도판17. 권명광, <양송이 재배>, 1968, 제3회 대통령상.
- 도판18. 부수언, <택시미터기 디자인>, 1969, 제4회 대통령상.
- 도판19. 최아영, <수출용 인삼차 포장디자인>, 1969, 제4회 국회의장상.

- 도판20. 유리지, <캔디볼>, 1969, 제4회 국무총리상.
- 도판21. 이정숙, <수출용 한산모시 광고 및 포장>, 1969, 제4회 경제기획원장관상.
- 도판22. 이태영, <모직물 선전 포스터>, 1969, 제4회 상공부장관상.
- 도판23. 최주경, <과기(한쌍)>, 1969, 제4회 상공부장관상.
- 도판24. 이능재, <완구>, 1969, 제4회 상공부장관상.
- 도판25. 김수철, <곡용 계량 용기>, 1969, 제4회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 도판26. 김수철, <기와 디자인>, 1970, 제5회 대통령상.
- 도판27. 최아영, <홍삼 포장디자인>, 1970, 제5회 국회의장상.
- 도판28. 최회권, <식탁용기>, 1970, 제5회 국무총리상.
- 도판29. 홍종일, <한국냉동새우>, 1970, 제5회 경제기획원장관상.
- 도판30. 권인수, <실크포스터>, 1970, 제5회 상공부장관상.
- 도판31. 이종희, <과반 (작품F)>, 1970, 제5회 상공부장관상.
- 도판32. 이병구, <닐 전단기>, 1970, 제5회 상공부장관상.
- 도판33. 김규식, <과기 세트>, 1970, 제5회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 도판34. 신용태, <건전복 수출을 위한 재료별 포장 계획>, 1971, 제6회 대통령상.
- 도판35. 박진홍, <서양장기>, 1971, 제6회 국무총리상.
- 도판36. 이 건, <개폐식 간이식탁>, 1972, 제7회 대통령상.
- 도판37. 안정언, <굴의 알루미늄 포장>, 1972, 제7회 국회의장상.
- 도판38. 서갑주, <촛대>, 1972, 제7회 국무총리상.
- 도판39. 고을한, <휴대용 트랜지스터 라디오>, 1972, 제7회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상.
- 도판40. 제8회 상공미전 및 한국포장대전 개장식의 테이프 커팅식을 하는 박정희 대통령

- 도관41. 제8회 상공미전을 참관하는 박정희 대통령
- 도관42. 박인숙, <장식을 겸한 병따개와 조미료통>, 1973, 제8회 대통령상.
- 도관43. 정경원, <투명시계>, 1973, 제8회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 도관44. 최선순, <촛대 겸 재떨이>, 1973, 제8회 상공부장관상.
- 도관45. 김순성, <전자제품 시리즈의 포장디자인 표준화 제안>, 1975, 제10회 대통령상.
- 도관46. 홍성수, <전자시계 겸용 전자저울>, 1975, 제10회 국무총리상.
- 도관47. 홍성수, <스테레오 카세트 겸용 컴퓨터 캘린더>, 1976, 제11회 대통령상.
- 도관48. 조승래, <크리스탈 포장>, 1976, 제11회 국무총리상.
- 도관49. 민병혜, <포터블 전자 미싱>, 1977, 제12회 대통령상.
- 도관50. 이외주, <병따개 겸 벽장식>, 1977, 제12회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상.
- 도관51. 홍경희, <병따개 겸 벽장식>, 1977, 제12회 한국무역협회회장상.
- 도관52. 박성우, <수출용 책상 용구 세트>, 1978, 제13회 대통령상.
- 도관53. 장병석, <기아혼다포스터>, 1978, 제13회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이사장상.
- 도관54. 신용호, <관광 포스터>, 1978, 제13회 국무총리상.
- 도관55. 임창영, <조명기구>, 1978, 제13회 상공부장관상.
- 도관56. 정국현, <확성 기기>, 1979, 제14회 대통령상.
- 도관57. 장병석, <실내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놀이 기구>, 1979, 제14회 상공부장관상.
- 도관58. 제15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홍보 아치
- 도관59. 이영재, <충전식 자동 살 분무기>, 1980, 제15회 대통령상.
- 도관60. 조종현, <금사랑 포스터>, 1980, 제15회 국무총리상.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66년에 개최한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는 현재까지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의 전신으로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최초의 디자인 관전이다. 이 전시는 정부의 수출 진흥을 위한 ‘미술수출’의 정책 아래 출발되어 미술계와 산업계를 직결시켜 국내산업디자인 발전을 도모해왔다. 전시는 세 개의 전문분야로 분화되어 디자인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함과 동시에 디자인과 관련된 담론들을 보여준다. 이처럼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는 당시 한국 디자인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지표 역할을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 살펴볼 1960년대부터 1970년대는 한국 정부 주도의 디자인 진흥 정책으로 한국 산업디자인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수출 상품 증대로 인한 경제적인 발전은 산업디자인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1962년 1월에 발표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 과제인 ‘수출증대로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침으로 디자인 진흥 정책의 필요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자인 개발 정책에 입각하여 1966년에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를 개최하였고, 이 전시는 창안 기풍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국내에서 유일한 종합적인 산업디자인 전시 제도로서 전시회의 구조 개선을 거듭해 왔다.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는 사회와 디자인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크게는 디자인의 각 분야가 독립적으로 전문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학계 및 실무에서는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배출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로 디자이너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는 ‘미술수출’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에서(도판 1) 알 수 있듯이 디자인을 수출을 위한 경제개발의 도구로 인식하는 정부의 시각 아래 개최되었다.<sup>1)</sup> 그렇기 때문에 당면한 정부 시책에 따라 국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전의 심리를 좌우하는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 반면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가 개최되기까지 공예인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있었고, 특히 그 선두에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으로 약칭)의 공예부 심사위원 출신자가 있었다. 미술계에서도 종합적인 산업디자인 전시의 필요성이 거론되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 측에 건의하였다.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 초기에는 기존 국전에서 활동하던 공예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기 때문에 추천작가 제도나 심사위원 선정 방식 등 국전의 형식과 성격이 유사하게 진행되어 갔다. ‘미술수출’은 정부의 수출지향적인 산업화의 목적을 의미하고, ‘새로운 공예미’는 기존에 순수 미술계 공예인들이 전통의 계승 발전을 위한 목적을 전시회를 통해 실현하려 했다.<sup>2)</sup> 이렇게 정부와 일부 심사위원은 전

1) 최범, 『한국 디자인의 문명과 야만』(과주: 안그라픽스, 2016), p. 63 참조.

2) 한국수출디자인센터의 기관지 『계간 디자인』에 실린 권두언은 일부 공예인들이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를 통해 성취하려는 목적이 드러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한국수출디자인센터는 1966년에 설립된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이며 1969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한국수출디자인센터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작품 발표와 상공미전의 협조’가 명시되어 있다. 상공미전은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의 이전 명칭이다. 국전 같은 전시회를 만들기 위해 상공부 공업 제1국 오원철 국장(이후 청와대 경제수석) 주재하에 공예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순석은 공예인 간담회를 추진할 공예인 대표로 추천되어 참석하였고, 이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가 개최되서는 1회부터 5회까지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계간 디자인』에 실린 권두언은 이순석이 작성한 것으로 당시 한국수출디자인센터의 소장으로 있었다. 따라서 창간호의 권두언에서는 그가 수출상품고급화라는 정부의 당면 과제 해결보다는 일반적인 디자인 진흥 활동에 비중을 두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통의 계승 발전은 공예에서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시대적 요청이다. 특히 세계로 향한 공업 입국화의 새 역사가 창조되는 시점에서 국산품의 디자인을 연구

람회를 통한 가치 실현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내포하며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전람회는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한민국산업 디자인전람회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현상과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성과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가 설립되는 배경과 운영 실태, 수상작 분석 등 전개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가 다루는 대상은 앞서 제목에서 밝혔듯이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전’이다.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는 개최 후 3번에 걸쳐 명칭이 개칭된다. 초기 명칭은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로 개최하였고, 11년이 지나 1977년에는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로 개칭된다. 이후 2007년에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로 개칭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표 1)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시간적 흐름에 따른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논문 제목에 맞추어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산업디자인전’으로 약칭)로 사용한다. 단 명칭이 개칭되는 연도를 서술할 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연도에 맞는 명칭을 사용한다.

---

개발하기 위해 전통미를 오늘의 시대 감각으로 새로이 되살리며 나아가 현대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공예미를 창조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오늘의 한국 디자이너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이순석, 「권두언」, 『계간디자인』 vol.1(1969), p. 9.

명칭	약칭	연도	회수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상공미전	1966 - 1976	제 1 회 - 제 11 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산업디자인전	1977 - 2006	제 12 회 - 제 41 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디자인전	2007 - 현재	제 42 회 - 현재

(표 1) 전람회 명칭 변천과정<sup>3)</sup>

1960-70 년대는 정부가 수출주도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집중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디자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디자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와 산업디자인전은 디자인에 대한 계몽적 태도를 벗어나 공예와 디자인이 확실한 구분이 생기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1960-70 년대는 한국에서 디자인이 현대적 의미에서<sup>4)</sup> 갖는 사유체계

3)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사업연혁 및 변천과정, <http://kde.kidp.or.kr>, (접속일: 2018. 7. 7.)

4) 현대적 의미로서의 디자인 개념은 예술과 기술의 통합을 추구하였던 바우하우스의 이념에 가깝다. 월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는 1919년 4월 바우하우스를 설립하면서 선언문을 통해 모든 예술장르의 통합과 예술가의 수공예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했다. 1923년에는 ‘예술과 기술-새로운 통합’ (Kunst und Technik-eine neue Einheit)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내세웠다. 이러한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통해 예술은 기계중심의 대량생산 방식을 제시했다. 바우하우스의 활동은 교육운동, 조형운동, 그리고 공방활동 등 독창적이고 다면적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면을 통해 미적인 생산을 소수 특권층이 아닌 대중에게로 확장시켰다. 결국 디자인은 일차적으로 인간의 존재를 위한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김철수, 「한국산업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 『조형논업』 Vol.3 No.1(1984), p. 132 참조; 카시와기 히로시, 『20세기의 디자인』, 강현주·최선녀 역(서울: 조형교육, 1999), pp. 85-92.

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으로 박정희 정부가 1962년 시행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 1979년 10.26 사태까지를 1960년대부터 1970년대로 범위를 한정한다. 그리고 전시 횟수는 제 1회(1966.8.3)부터 제 14회(1979.6.8)까지가 해당 범위이지만, 15회(1980.5.19)까지 분석하기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산업디자인전을 고찰하기에 앞서 1960-70년대 한국 산업디자인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II장에서 산업계 확대에 따른 기업, 교육계, 정부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산업디자인전의 경향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 1회부터 제 15회를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산업디자인전의 창설 배경과 개최 양상을 살펴본다. 산업디자인전은 제 1회부터 상공부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여 제 5회까지 수탁사업으로 개최되다가 전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 6회부터는 한국디자인포장센터로 사업을 이관한다. 첫 번째 시기는 이관 전후로 구분하여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제도의 창설(제 1회-5회)’ 배경을 파악하고 이때의 출품 경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제도의 조정(제 6회-10회)’으로 1971년 제 6회부터는 주관부서가 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 :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로 이관됨에 따라 본격적인 디자인 정책 관련 진흥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산업디자인전의 발전을 위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노력으로 개선되어가는 전시의 변화과정과 센터의 정책 방향을 주목하였다.

V장에서는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제도의 정착 발전(제 11회-15회)’으로 그동안 주관부서가 이관됨으로써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정착, 발전

하는 시기이다. 1977년 제 12회 부터는 드디어 산업디자인전에서 ‘디자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1976년 9월 18일에 대통령령 제 8249호에 의거하여 상공미전에서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규정도 일부 개정되며, 출판부문에서도 명칭이 ‘미술’에서 ‘디자인’으로 변경된다.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디자인 용어 확산과 산업디자인이라는 개념은 더욱 발전해나가는 과정으로, 수상 작품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가늠해보고 성장 발전과 한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이 참고 분석한 자료는 사료에 근거한 1차 자료인 도록과 기관지, 신문에 실린 내용을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그 외 선행연구를 통해 보충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 자료는 1960-70년대에 발행한 정기간행물을 중심으로 한다. 한국 최초의 디자인 전문지인 한국수출디자인센터에서 펴낸 『계간 디자인』과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서 펴낸 『디자인·포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당시의 산업디자인전의 상황과 디자인계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이다. 그리고 산업디자인전의 연구 범위는 1966년 제 1회에서 1980년 제 15회까지가 논문에서 연구하는 전시의 해당 범위이다. 국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록은 4회, 10회, 13회, 14회가 전부였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록은 1회, 6회가 전부였다. 열람해 보니 두 기관 모두 도록 일부가 훼손되었다. 그리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서 1회, 4회, 5회, 6회, 7회, 8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도록을 확보했고, 2회, 3회, 9회의 도록은 검토하지 못했다.

	계간 『디자인』	『디자인 · 포장』	『디자인』	『계간미술』
창간일자	1969년 8월	1970년 11월	1976년	1976년
발행사항	한국수출디자인센터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오미출판사	중앙일보사
주기사항	계간	계간, v.1-10(1971-1979) 이후간행빈도: 격월간, v.11(1980)-	월간	계간
비고		『디자인 · 포장』 (후속저록) ↓ 『산업디자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N.67, 1983-	월간 『디자인』 은 1980년대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잠시 폐간되었다가 복간되어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음.	
	한국수출디자인센터-> 한국디자인포장센터(Korea Deign & Packaging Center: KDPC / 현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  <디자인 · 포장 관련 세 기관이 통폐합> ①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 (개칭: 한국수출디자인센터) + ② 한국수출포장센터 + ③ 한국포장기술협회 =1970년 5월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설립 ↓ 1991년,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2001년, 한국디자인진흥원	1) 『디자인』, 오미출판사, 1976.10-1981.2 (후속저록): 2) 월간종합 『디자인』, 월간디자인, 1981. 3- 1988. 2 3) 월간 『디자인』, 디자인하우스, (116호)1988. 3- (152호)1991. 2 월간 『공예』, (1호)1988. 3 - (24호)1991.2 4) 『디자인+공예』, 디자인하우 스, 1991.3-92 *월간 『디자인』 + 월간 『공예』 “통폐합” 5) “분리” 『디자인』 165호 1992. 3- 『미술공예』, 제 1호 1992. 3-		
그외, 1980	- 『시각디자인』, 월간시각디자인, 1987-1988 - 『선미술』, 선미술사, (계간), 1979-1989 -> 선갤러리, (1990:N.44-) - 『예술과비평』, 서울신문사, (계간), 1984- - 『미술세계』, 미술세계, (월간), 1984-/ 『월간미술』, 월간미술, 1989/ 『꾸밈』, 토탈디자인, 1976-1991			

\* 1960-70 년대에 발행된 디자인 관련 정기간행물 정리

### 3. 선행연구 검토

해방 이후 나타나는 디자인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을 제공해준 것은 김종균의 연구였다. 그의 연구는 개화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디자인의 역사를 ‘근대화’와 ‘민족주의’라는 틀을 기준으로 삼아 정리하였고, 디자인진흥정책에 관한 연구를 내놓아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었다.<sup>5)</sup>

해방 이후부터 한국의 디자인사에 관한 글을 써온 정시화는 1976년 열화당 미술 문고로 출간한 『한국의 현대디자인』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초창기 디자인에 관한 연구의 디딤돌을 마련했다.<sup>6)</sup> 정시화의 『한국의 현대디자인』은 한국 최초의 디자인사 연구서로 볼 수 있다.<sup>7)</sup> 이 책은 해방 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공예와 디자인을 중심으로 개관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자료로서의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디자인이 일반화된 시기를 196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와 산업디자인전은 한국에서 디자인 운동의 시작을 의미함을 밝히고 있다.<sup>8)</sup>

---

5) 김종균의 『한국디자인사』는 2008년 미진사에서 발행되었다가 2013년에 『한국의 디자인』으로 제목을 변경하여 안그래픽스에서 출간된다. 김종균은 1973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마쳤다. 그는 디자인역사와 디자인진흥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주요저술로는 『한국디자인사』(서울: 미진사, 2008); 『한국의 디자인』(과주: 안그래픽스, 2013); 『브랜드·디자인경영』(특허청, 2010), 공저;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한국 현대디자인의 문화정체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한국 디자인진흥체제의 발전방향 모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8); 「한국디자인공모전의 태동과 역할」, 『디자인학연구』 Vol.28 No.3(2015) 등이 있다.

6) 정시화는 허버트 리이드(Herbert Read)의 『Art and Industry』를 『디자인론』(1979)으로 한국 최초의 디자인 번역서로 출판했다.

7) 최범은 정시화의 『한국의 현대디자인』에 대해 최초의 디자인사 연구서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이후 오랫동안 한국 디자인사 연구는 공백기를 맞이했고, 마침내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출판된 김종균의 『한국디자인사』는 한국 디자인 통사의 최초라고 보고 있다. 최범, 앞의 책, pp. 69-72.

8) 정시화는 국내 대학에서 처음으로 ‘디자인론’을 강의하기도 한다. 디자인론 수업이 처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산업디자인전의 역사적 연구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그리고 산업디자인전의 연구 또한 꾸준히 이어오지 못했다.<sup>9)</sup>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디자인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산업디자인전 출품 부문에서 특정 디자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1부 상업미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디자인전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난규(1978)는 제 4회-12회를 대상으로 사진 분야와 관련이 있는 상업미술부(이후 시각디자인부)를 중심으로 사진작품의 출품 경향과 제작 기법을 연구하였다. 하용훈(1993)은 산업디자인전의 내용과 경향을

---

음 개설된 곳은 1968년 서라벌예술대학교이다. 당시 서라벌예술대학교 공예과 교수였던 백태원 교수가 디자인론 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강의할 강사를 찾던 중에 서울대 유근준 교수가 그에게 정시화를 소개하게 된다. 정시화는 직접 해외의 디자인 이론서들을 집약하여 교재로 만들어 첫 디자인론 수업을 시작했고, 1973년에 서울대에 디자인론이 개설되어 강의하게 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 글 김상규, “디자인 칼럼, 정시화”, 수정일자 2014.03.27,

<http://www.designdb.com/index.html?menuno=784&bbsno=21119&boardno=586&ztag=rO0ABXQANDxjYWxsIHR5cGU9ImJvYXJkLiBubz0iNTg2liBza2luPSJwaG90b19iYnMiPjwvY2FsbD4%3D&siteno=15&act=view>, (접속일: 2018. 6.10.)

9)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를 주제로 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난규, 「한국광고사진에 나타난 사진기법에 대한 고찰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윤진애,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조승래,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의 연구: 환경디자인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윤지홍,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의 역사적 흐름에 관한 연구 : 제품 및 환경디자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김혜원,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전람회에 나타난 섬유제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이소경,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에 관한 연구 : 목공예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이근근, 「한국현대목공예에 관한 연구 : 공모전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하용훈, 「포장디자인정책과 그 방향에 관한 연구 :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위동명, 「옵티컬 패턴(Optical Pattern)이 적용된 포스터디자인의 조형적 분석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소정, 「문화상품 포장디자인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입상작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정리하면서, 산업디자인전을 통해서 나타난 포장디자인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분석하였다. 그 외, 김소정(2002)은 문화상품으로서 포장디자인을 바라보면서 포장디자인 부문의 특선 이상의 수상작을 분석하였고, 위동명(2003)은 제 28 회-37 회 산업디자인전에 출품된 포스터디자인에서 옵티컬 패턴이 적용된 작품의 조형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2 부 공예미술 분야를 중점으로 산업디자인전을 연구한 이소경(1992)과 이근근(1992)은 공예 분야에서 목공예에 관한 연구를 내놓아 한국 현대 목공예의 변화 과정을 산업디자인전을 통해 분석하였다.

3 부 공업미술 분야를 중점으로 산업디자인전을 연구한 조승래(1980)와 윤지홍(1985)은 공업미술부(이후 제품 및 환경디자인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승래는 제 1 회-15 회까지를 윤지홍은 제 1 회-20 회까지를 연도별로 부문별 작품 경향을 분석하였다. 김혜원(1988)은 섬유제품에 대해 분석하면서 산업디자인전을 시기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시기 구분으로 도입단계(1966 년~1970 년), 정착단계(1971 년~1976 년), 발전단계((1977 년~1987 년) 3 단계로 구분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내용에 있어 논제의 목적 또는 그 방향을 같이 하는 선행연구로서 본 논문과 가장 유사한 형식을 지닌 선행연구들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조승래는 3 부 공업미술부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산업디자인전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각 시기가 갖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는 산업디자인전의 성격 형성기(1966 년~1970 년), 정착기(1971 년~1975 년), 발전기(1976 년~1980 년)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하용훈도 조승래의 시기 구분과 동일하다. 그는 형성기-경제개발계획 2 차년도(1966 년~1970 년), 정착기-경제개발계획 3 차년도(1971 년~1975 년), 발전기-경제개발계획 4 차년도(1976 년~1980 년)로 구분하였다. 시기를 구분한 연구 중에서는 이들의 논문을 통해 산업디자인전에 관한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들을 통해 산업디자인전의 등장과 전개에 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특정 디자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산업디자인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는 산업디자인전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그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 선행연구들과 그 의미를 달리 하는 것은 먼저 시기 구분에 뚜렷한 준거를 제시하여 산업디자인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1960-70년대 한국 산업디자인의 동향

### 1. 기업: 디자인 산업의 추진

1960-70년대 한국의 기업디자인은 정부가 적극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발전과 기업 성장의 성과를 보였으며, 기업은 이에 따른 산업 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디자인 육성을 시작하고 체계화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sup>10)</sup> 산업화와 과학기술개발의 근대화가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고도성장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급격한 사회변동들은 정부가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외지향형 성장전략<sup>11)</sup>의 수립과 이것의 실질적인 시행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 결과 산업 생산지수가 오르면서 기업은 기업 간의 제품의 품질, 가격, 서비스 등의 경쟁 구도 속에서 자사 제품의 차별성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러한 필요성을 전제로 기업은 내부에 디자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디자이너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1960-70년대는 제품에 시각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활발한 시도가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산업계의 확대는 한국 산업디자인의 발전과 디자이너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인했다.<sup>12)</sup>

해방 후 1950-60년대에 걸쳐 미국의 대외 원조가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경공업의 성장과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에 기여하였고, 동시에 한국의 경제

---

10) 1960-61년에는 군사정부가 '부정 축재 처리' 과정에서 당시 부정축재 기업인으로 지목받은 재벌기업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공업화 대열에 오를 수 있게 했다. 이후 정부지배형의 정부 기업밀착관계가 만들어졌다. 정구현, 『한국기업의 성장전략과 경영구도』 (대한상공회의소, 1987), pp. 39-55.

11) 박진근,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9 No.6(2009), pp. 199-203.

12) 김종균, 『한국의 디자인』 (과주: 안그라픽스, 2013), pp. 108-112.

전반을 재편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 한국에 도입된 외국 원조는 미국의 무상원조가 전부였으며 차관이 도입되기 전까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13)</sup> 이처럼 1950 년대에 한국 경제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함에 따라 산업화의 진전은 다소 지연되었고, 1961 년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본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박정희 정권의 등장이 이전 정권과 대조되는 부분은 경제개발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실행했다는 점이다. 정권 장악 후 정치 및 관료기구를 재편하여 1961 년에 설립한 경제기획원은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계획업무를 인수하고, 재무부와 내무부로부터 각각 예산국과 통계국을 흡수했다. 또한 외자도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면서 경제정책 결정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게 된다. 그 결과 민간기업이나 압력단체, 반대 정치세력 등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이 완전히 차단되었다.<sup>14)</sup>

정부는 1962 년 1 월에 발표된 경제기획원의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을 통해서 기업의 신규업종진출 및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체제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기업의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중요 부문은<sup>15)</sup>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sup>16)</sup>

취약한 산업 구조를 극복하는 데는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A-501’<sup>17)</sup>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공업회사인 금성사<sup>18)</sup>가

---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60 년대 한국의 공업화와 경제구조』 (서울: 백산서당, 1999), p. 28.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pp. 41-45.

15) 정부는 국영 기업체를 통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금융시장 지배를 통한 자원배분에 직접 개입, 인허가 및 폐업 규제를 통한 기업 사업 영역의 결정, 가격과 임금 결정에 간여하여 기업 경영상의 규제, 자금 지원과 조세 특혜를 통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하는 등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정구현, 앞의 책, pp. 59-68.

16) 정구현, 앞의 책, pp. 55-59.

17) ‘A-501’의 모델명은 A자는 교류(Alternating Current·AC)의 첫 글자에서 따왔고, 5자는 5구식 진공관 라디오라는 의미이며, 01은 제품 1호를 의미한다. 김해수, 『아버지의 라디오』, 김진주 엮음 (서울: 느린걸음, 2016), p. 144.

1959년에 만든 국내 최초의 라디오로 2013년 8월 27일에 등록문화재<sup>19)</sup> (등록문화재 제 599-1, 2호)로 지정되었다.(도판 2) 제품의 크기는 가로 40cm, 높이 17cm, 폭 17cm이며, 5개의 진공관과 5인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다. 다이얼 조정 방식으로 주파수를 선택했으며, 지역방송과 해외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단파대를 포함한 2밴드 시스템을 만들었다.<sup>20)</sup> 라디오는 수출 목적으로 국제적 양식의 디자인을 취하고 있다.

금성사는 자사의 기술 책임자이며 공장장인 독일인 헨케(H.W.Henke)로부터 디자인 자문을 받았다. 당시 모든 기술적인 사안은 헨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었다. 국산 라디오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독일제 디자인을 모방하려는 헨케와 일제 라디오를 모방하려는 엔지니어 김해수와 갈등이 있었다. 결국 금성사 간부 전원의 투표를 통해 김해수의 견본이 채택되어, 일

---

18) 1958년 10월에 설립된 금성사는 LG 전자의 전신으로 국내의 가전사업을 주도해왔다. 1959년에 국산 라디오 ‘A-501’을 개발하고 이것을 시작으로 1961년에 국내 최초 자동전화기 금성 1호 ‘GS-1’를 이어서 1965년에는 국내 최초 냉장고 ‘GR-120’ 개발을 1966년에는 국내 최초 흑백 TV ‘VD-191’ 생산을 1968년에는 국내 최초 에어컨 ‘GA-111’ 생산을 1969년에는 국내 최초 세탁기 ‘WP-181’ 개발을 1979년에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컬러 TV ‘CNP-804’을 개발했다. LG 전자, “기업소개”, 수정일자 미기재, <https://www.lge.co.kr/lgekor/company/about/history.do#none>, (접속일: 2018. 5. 24.)

19) 등록문화재는 근·현대 시기에 만들어진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대 유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이다. 대상이 되는 문화재 기준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것과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는 역사유적이 해당된다. 그리고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해당된다.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란 무엇인가요”, 수정일자 미기재, [http://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cul/cultureEasySub01\\_08.jsp&pageNo=5\\_5\\_1\\_0](http://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cul/cultureEasySub01_08.jsp&pageNo=5_5_1_0), (접속일: 2018. 9. 22.)

20) 두산백과사전, ‘금성 라디오 A-501’, [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접속일: 2018.8.18.);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 559-2호, 금성 라디오 A-501”, 수정일자 미기재,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2\\_1\\_0&ccbaCpno=4411105590200#](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2_1_0&ccbaCpno=4411105590200#), (접속일: 2018. 5. 22.)

본 히타치사의 제품을 디자인 모델로 삼아 ‘A-501’ 개발이 결정되었다.<sup>21)</sup>

‘A-501’는 한국 산업디자인의 역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내 기업 내에서 디자인 과정을 거친 뒤 대량생산하여 판매한 첫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품을 디자인하는 전문가를 기업에서 채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1958년 박용귀<sup>22)</sup>, 최병태를 한국 최초의 사내 디자이너로 공개 채용했다.<sup>23)</sup> 디자이너로 채용된 박용귀는 금성사 1회 공채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라디오 기술자 김해수가 입사하자마자 그와 함께 라디오 설계를 맡았다. 1959년 8월에 금성 ‘A-501’의 시작품이 완성되었고, 상공부 제 4133호로 상표등록까지 마치면서 11월 15일에 출시했다. 초기 생산량은 87대 정도였고 2만환에 판매되었다.<sup>24)</sup>(도판 3) 당시 부품조차 제대로 생산해내지 못하는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라디오를 생산해 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어려운 과제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금성사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전자제품의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완성시키려는 노력은 최초의 공업디자인 전담 부서 설치로 피할 수 있다.

---

21) 김해수, 앞의 책, pp. 145-146; 박암중, 「한국 근현대디자인사의 전개와 정리: 근현대 디자인박물관을 중심으로」, 『조형아카이브』 Vol.2009 No.1(2009), p. 130.

22) 정시화는 『한국의 현대디자인』에서 박용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다가 디자인 연구로 전향한 뒤 금성사에 입사한 한국 최초의 직업적인 공업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정시화는 박용귀가 일본의 히타치 디자인 연구소에서 공업디자인 연구를 마치고 온 후부터 공업디자인의 모든 문제를 회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당시 한국에서는 가장 체계적으로 공업디자인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조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금성사를 평가했다. 정시화, 『한국의 현대디자인』(열화당, 1976), pp. 49-50.

23) 김종균, 앞의 책, p. 112.

24) 김해수는 ‘A-501’이 2만환에 판매된 것이 그가 금성사에서 받은 첫 월급이 6천환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결코 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당시 시중에서 미제 라디오가 3만 3천환에 거래되었던 것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편이었다고 하였다. 김해수, 앞의 책, p. 146.

금성은 기업 최초로 산업디자이너를 채용하고, 1963년에는 공업디자인 전담 부서인 ‘공업의장실(디자인 전담 부서)’을 신설하여 공산품에 대한 디자인 문제를 연구했다.<sup>25)</sup> 정시화는 ‘공업의장실’을 한국 최초의 공업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공업의장실’설치는 국내 기업에서 디자인 조직이 처음으로 갖춰진 중요한 사건이었다. ‘공업의장실’은 1974년에 ‘디자인연구실’로 개칭된다.<sup>26)</sup> 금성이 공업디자인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각 기업들도 디자인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다.<sup>27)</sup> 이와 같이 금성사 내부에서 일어난 디자인에 대한 변화양상은 국제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었다. 금성은 1960-70년대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자동차(61년), 냉장고(65년), 흑백 TV(66년)(도판 4), 에어컨(68년), 세탁기(69년), 컴퓨터 컬러 TV(79년) 등을 생산하면서 가전산업의 제품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1968년 국내 최초의 상업박람회인 한국무역박람회가 개최되자 전시디자인과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환경디자인에 관한 업무에 디자이너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디자이너들의 활동 무대가 확대된다.<sup>28)</sup> 또한 현대자동차의 ‘포니’와 ‘포니 쿠페’는 이탈리아 북부 공업도시인 토리노에서 1974년 10월 30일에 개최된 제 55회 토리노 국제자동차박람회에 출품되어 예상 밖의 호평을 받았다. 당시 다른 선진국 출품차들을 제쳐 놓고 관람객이 줄

---

25) 정시화, 앞의 책, p. 49.

26) 김종균, 앞의 책, p. 139; 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60년 공업의장과 발족, 1962년 금성사 의장실로 개칭, 1967년 가전사업부 공업의장사로 개편, 1973년 공업의장실 승격 개편, 1974년 디자인연구실로 개칭, 1980년 개발부문 디자인연구실 통합, 1983년 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설립. 왕미, 「디자인으로 21세기에 승부를 건 금성사」, 『월간디자인』 151호(1991,1), p. 33.

27) 김종균, 앞의 책, p. 112.

28) 박암중, 앞의 논문, p. 131.

을 잇는 등 현지 신문, 잡지에 「자동차공업, 극동으로부터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포니’와 ‘포니 쿠페’를 보도했다.<sup>29)</sup>(도판 5)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국제자동차박람회에서 호평을 받음으로써 한국에서 제품디자인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게 되었다.<sup>30)</sup>

현대자동차는 1967년 12월에 설립되어, 1976년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인 ‘포니’를 생산한다.<sup>31)</sup>(도판 6) 설립 이듬해에 1968년부터 포드자동차와 계약을 체결해 코티나의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 생산한다. 코티나 이후 1973년에 포드와의 공동투자계획이 무산되고, 정부는 종합자동차공업육성계획을 발표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1976년까지 자동차 공업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강력 추진하자<sup>32)</sup> 현대자동차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고유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1994년 1월 24일 『한겨레』에서 작성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당시 현대자동차 사장이었던 정세영은 1973년 1월 26일 오후에 예정에 없었던 전체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포드사와 기술협조를 위한 협상이 끝내 결렬되었다. 이제 우리 스스로 국산차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sup>33)</sup> 과감한 도전을 장려했다. 미국 포드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하자 현대자동차는 곧 독자적인 자동차 생산을 위한 프

---

29) “現代(현대) 포니, 國際自動車(국제자동차)박람회 출품”, 『경향신문』, 1974.11.01;  
“토리노 국제자동차 박람회에서 現代自動車株式會社(현대자동차주식회사)가 출품한 포니와 TV텔런트 양정화 양”, 『경향신문』, 1974.12.11

30) 박암중, 앞의 논문, pp. 131-132.

31) 김종균, 앞의 책, pp. 109-112.

32) “중화학 공업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국민경제의 고도화로 급증할 운송수단 수요에 대비하고, 기계공업과 기타 연관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자동차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1976년까지 종합자동차공업육성계획을 마련키로 하였다.” (이상 『매일경제』 기사 발췌), “76년엔 完全國産化(완전국산화) 自動車(자동차)공업육성계획 強力(강력)추진”, 『매일경제』, 1973.10.10.

33) “우리 상표로 뚝다 (2) 세계에 한국차 신화 창조”, 『한겨레』, 1994.1.24.

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탈 디자인<sup>34)</sup>에 ‘포니’ 디자인을 의뢰한다. ‘포니’와 ‘포니 쿠페’는 당대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인 조르제토 주지아로(Giorgetto Giugiaro)가 디자인했다.

‘포니’는 현대자동차를 세계적인 메이커로 부각시키는데 일조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기업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얻어진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기술과 경쟁력이 받쳐줘야 가능한 일이다.

한편 시각디자인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기업에서 생산해낸 제품들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CI(Corporate Identity)·BI((Brand Identity) 디자인, 포스터디자인, 광고, 신문, 잡지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영역의 생산을 동시에 확장함으로써 각 분야의 디자인은 세분화되어가고 전문성을 갖추어가며 디자인계에 영역을 넓혀갔다.

TV가 등장하면서 TV 광고도 활성화되었다. 코카콜라 등과 같은 다국적 제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광고를 대행할 전문 광고대행사가 필요했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는 광고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up>35)</sup> 1967년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오리콤의 전신)이 설립되고, 1969년에 동아일보와 동양맥주(OB 맥주의 전신)의 합작으로 한국 최초의 광고대행사인 만보사<sup>36)</sup>가(도판 7) 설립됨으로써 그 뒤를 이어 종합광고대행사

---

34) 이탈 디자인(Ital Design)은 1968년 조르제토 주지아로(Giorgetto Giugiaro)와 알도 만토바니(Aldo Mantovani)가 함께 설립한 자동차 전문 디자인 회사이다. 두산백과사전, ‘이탈디자인주지아로’, [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접속일: 2018.9.18.)

35) 1973년에 제일기획이 창립, 1974년에는 연합광고 창립, 1979년에는 오리콤이 창립되어 광고회사 3사의 과점기로 한국의 광고산업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제일기획, 연합광고, 오리콤 3사는 전체 광고비의 약 20%를 점유하며 한국의 광고산업은 규모 면에서도 성장을 이루고 전문화되고 현대화되어갔다. 한국광고학회, 『한국의 광고』(서울: 나남, 1996), pp.150-171.

36) 만보사는 1969년 1월 7일 두산그룹의 동양맥주와 동아일보사가 50:50으로 공동출자하여 자본금 2,000만원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오리콤, 『오리콤 30년 광고이야기』(서울: 오리콤, 1997).

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sup>37)</sup> 1968년 코카콜라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 판매되었고, 만보사는 코카콜라 광고(도판 8)를 대행하면서 광고계에 많은 성공 사례를 남기는 등 이후 국내 광고계에서 높은 평을 받았다. 코카콜라 광고로 성장하던 만보사는 1975년에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에 합병되어 1979년에 오리콤으로 발전했다.<sup>38)</sup>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 사회에서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게 해준다. 기업은 현대산업사회의 경쟁구도 속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기업박물관을 설립한다. 기업 박물관의 주 목적은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체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기업 국제화에 따른 기업의 국제성을 부각하는 데 있다. 1964년에 설립된 한독의약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기업박물관으로 한독약품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기념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하게 된다.<sup>39)</sup>

한독의약박물관은 건립한 당시 유일한 의약박물관이었다.(도판 9) 연건평 525평의 지상 2층과 지하 1층으로 지어진 박물관은 5개의 전시실을 통해 소장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약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한국전시실, 동서양 각국의 의약 자료를 전시해 놓은 국제 전시실, 한독약품의 역사를 보여주는 한독역사실, 의료를 포함하여 건강과 삶을 예술작품으로 조명하는 생명갤러리, 한독 창업주 김신권 회장의 기증유물 전시관인 재석홀로 구성되어, 10,000여 점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sup>40)</sup> 전근대 전통 한의

---

37) 김종균, 앞의 책, pp. 112-114.

38) “광고대행사 만보사 합동통신사에 흡수합병”, 『매일경제』, 1975.01.07.

39) 1964년, 한독약사관으로 설립되어, 1974년에 박물관 독립 건물을 준공하고 한독의약박물관으로 명칭을 개칭한다. 김주연, 「기업박물관 전시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 17; 한독의약박물관, “박물관연혁”, 수정일 미기재, <http://www.handokjeseokfoundation.org/museum/introduce.asp> (접속일: 2018. 6. 1.)

40) 1964년에 설립한 한독의약박물관은 고려초기 5층 석탑이나 김은호의 수여적송도, 약사여래상, 십장생수병풍, 신앙에 관련된 유물들까지 폭넓게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다. 또한 보물 제646호인 <청자상감상약국명합>과 허준이 편찬한 <언해태산집요> 보물 제1088

학뿐만 아니라 근대에 수입된 서양의학까지 전시되어 있어 소비자 교육의 장소로서, 전통산업 재인식의 장소로서 역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업 박물관의 전시 내용은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다하며, 기업의 홍보 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기업 박물관에서 전시공간의 디자인 또한 기업 이미지를 능동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수단이 된다. 전시공간은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느낌을 주는 연출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 전시공간 전체에서 기업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sup>41)</sup>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정책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기업들의 성장과 진화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한국 기업의 성장은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 정부가 기업에 행사한 가장 큰 영향력이 금융시장의 지배를 통해서 드러난다. 정부는 외자, 내자를 직접 통제하면서 이들 자원을 기업에 배분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본은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리로 기업에 제공되기도 했으며 대기업은 저렴한 타인자본을 최대 활용한다. 결과적으로 타인자본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기업의 재무구조상의 특성이 생겨났다.<sup>42)</sup>

정부로부터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자사의 인적 자원과 결합했다. 이때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쉽게 도입함으로써 비관련분야로의 업종다각화가 비교적 수월했다.<sup>43)</sup>

---

호, <찬도방론백결집성> 보물 제1111호, <의방유취> 보물 1234호, <향약제생집성방> 보물 제1235호, <구급간이방> 보물 제1236호 등 6점의 보물을 소장하고 있다. 한독의약 박물관 홈페이지 접속<http://www.handokjeseokfoundation.org/>, (접속일: 2018. 6. 1.); 한독의약박물관, “재단사업소개”, <http://www.handokjeseokfoundation.org/business/museum.asp> (접속일: 2018. 12. 13.)

41) 김주연, 앞의 논문, p. 100.

42) 정구현, 앞의 책, pp. 59-76.

물자가 풍부해짐에 따라 기업에서는 제품의 디자인, 스타일의 기능을 중요시하게 된다. 제품을 고급화하고 전문화 하기 위해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디자인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가 하면, 기업박물관을 설립해 소비자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만들어 간다. 더불어 효과적인 전시디자인을 통해 기업 홍보와 소비자로부터 기업 인식과 소비자 교육, 전통산업의 재인식을 이루어 간다.

## 2. 교육계: 디자인 교육계와 산업디자인전

초기 산업디자인을 생산하는 주체는 산업계가 아닌 교육계를 중심으로 등장하여 활동했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각 대학의 디자인과 교수들은 교육자 또는 디자이너로 활동한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디자인을 생산하는 주체가 사회적인 요구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 교육적인 측면에서 먼저 인식되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sup>44)</sup> 또한 이것은 한국 현대디자인의 출발점이 산업계가 아닌 교육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sup>45)</sup> 이는 디자인이 사회적인 요구나 어떠한 인식에 의해서가 아닌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에 도안과가 개설되면서부터 그리고 이화여대, 홍익대에 개설된 도

---

43) 정구현, 앞의 책, pp. 84-89.

44) 오창섭, 「한국에서의 근대적 디자인 생산주체의 출현」, 『디자인학연구』 Vol.25 No.1 (2012), p. 66.

45) 반면 한국의 디자인이 형성된 동인은 사회의 요구와 인식에 의해서가 아닌 교육적 인식에 의해 훨씬 더 강조되고 선행되었지만, 교육에서 디자인에 대한 이해는 본질적인 데까지 접근할 수 없었다는 상반된 시각도 있다. 오히려 순수 아카데미적 예술관에 입각한 공예 미술적인 이해였다고 고찰하였다. 홍영미, 「우리나라 디자인에 있어서 모더니티에 관한 연구 : 1960~70년대 디자인 운동 및 정책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안과 공예과 등에 의한 교육기구를 통해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대학에서 디자인 교육은 공예, 도안, 생활미술, 응용미술 등의 용어로 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먼저 한국에서 ‘디자인’ 용어의 의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현대 디자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공예와 도안의 현대적 디자인 개념 용어로서의 의미 변화를 살펴보았다.

최공호(2003)는 공예 및 기술교육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내놓았다. 그는 근대 공예용어<sup>46)</sup>의 내재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공예용어를 수용하게 된 초기에 시대 상황과 용어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1908년을 기점으로<sup>47)</sup> 공예 의미가 어떻게 분화되어 왔는지 그 과정과 흐름을 분석하였다. 초기 공예용어가 개화의 모델이었던 일본을 통해 들어오면서<sup>48)</sup> 그들의 관점과 인식이<sup>49)</sup> 반영된 공업과 공예, 미술의 개념이 복합된 형태로 적용되었음을 밝

---

46) 최공호는 『한국미술 100년』에 실린 「근대 초기 공예 인식」에서 용어는 사회의 변동에 따라 바뀌지만, 공예는 개명진보의 기술로서 공업의 개념을 포괄하다가 단계적으로 분화하여 문화적 관점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 더욱 주목되어 진다고 하였다. 김윤수 외, 『한국미술 100년』(파주: 한길사, 2006), pp. 74-75.

47) 최공호는 1900년대 초부터 손과 기계적 생산방식을 구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구체적으로 1908년을 기점으로 공예와 혼용되던 공업의 개념이 산업기술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미술공예와 기술공업이 분화되는 기점을 1908년으로 보는 데는, 1907년에 설립된 관립공업전습소는 공업기술 교육기관이었고, 1908년에 설립된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수공예 방식 제작을 견지하였고, 이후 미술공예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계공업과 수공예를 일컫던 앞 시기의 공예 인식과 크게 달라졌음을 고찰하였다. 최공호, 「‘공예’ 용어의 근대적 개념 전개」, 『美術史學』 Vol.17 No.1 (2003), pp. 142-144.

48) 우리나라에 ‘공예’라는 용어가 도입되어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1881년(고종 18년)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개화시기로서 청나라와 일본과의 교류가 시작했다. 개화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신사유람단의 일원인 이현영이 귀국 후 『일사집략 日槎集略』이라는 견문기록을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 나카다 다케오(中田武雄)라는 일본 관리가 우리측에 보낸 서신이 실려 있었다. 그 서신에서 공예라는 용어가 처음 발견되었다. 최공호(2003), 앞의 논문, p. 135.

49) 일본에서 공예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877년에 동경에서 열린 제 1

했다. 또 다른 연구로 한·일 근대 공예도안에 관해 고찰한 것이 있다. 공예도안은 근대공예에서 산업생산의 영역과 수공예 영역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수반된 새로운 장르로서, 이 연구에서는 일본 공예도안 형성과정을 시작으로 공예도안에서 디자인으로 분화되기까지의 과정을 도안집을 통해 주목하였다. 도안 용어는 1873년 빈 만국박람회 시기를 전후해 노우토미 가이지로에 의해 디자인의 역어로 탄생하는데, 도안은 의장, 하도, 하회 등과 혼용되다가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파악하였다. 근대기 공예도안은 식산흥업을 위한 공예품 개량 의지의 적극적 표상이며, 현대적 개념의 디자인 어원연구에서 공예도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50)</sup> 박휘락의 『한국미술교육사』(1998)는 100년 동안의 미술교육 흐름을 회화, 판화, 수공과 그리고 디자인 등 분야별로 교육과정을 검토했다.<sup>51)</sup>

근대기에 있어서 공예 관련 용어를 수용하면서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변화되어 정착하는 과정은 한국 디자인의 인식과 구조화 과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공예 용어 개념의 변화과정은 근대화 초기의 미술과 공예 장르를 구조화하다가 이후 산업기술과 관련된 공업의 개념을 포괄하다가 단계적으로 분화되어 갔다. 그 과정은 관립공업전습소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산업기술과 관련된 분야를 공예와 구분하여 공업으로 쓰였으며 여기서 공업의 의미가 과학기술의 인식에 토대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07년에 설립된 관립공업전습소는 공예에서 공업으로 그리고 산업화의

---

회 내국권업박람회에서 발간한 팜플렛에 실린 ‘관자주의(觀者主意)’라는 제목의 문안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파악한다. 1885년 일본 관보(官報)에 공예의 범위를 직물, 칠기, 마키에(蒔繪) 등에 규정하며 공식적으로 미술과 공예의 개념에 차이를 두어 적용하기 시작한다. 이후 여러 과정을 통해 공예에서 미술의 개념이 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공호(2003), 앞의 논문, pp. 136-137.

50) 신유미, 「한·일 근대 공예도안 연구 : 공예도안집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51) 박휘락, 『한국미술교육사』(서울: 예경, 1998).

밑거름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예 및 디자인 교육이 이루어진 한국 최초의 디자인 교육기관이다. 공업전습소에서 이루어진 교과과정 및 운영방식은 일본의 동경공업학교나 실업학교를 모델로 하였고, 일본에서 쓰던 교재를 대부분 그대로 채용하거나 참고하였다.<sup>52)</sup> 공업전습소를 통해 제공된 기술이나 도구, 디자인 등 양식 결정에 있어서 일본인의 시각에서 가공된 점은 공예기술과 디자인 양식이 일본화를 촉진하는 결과로 초래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전통적인 수공예를 교육하다가 1922년에 관립공업전습소의 명칭이 관립경성공업학교로 바뀌면서<sup>53)</sup> 점차 그 비율을 줄이고, 공장제 기계공업의 산업화단계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교육 체제를 전환한다.<sup>54)</sup>

한국의 디자인 교육은 근대 교육기관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근대 이전 장인의 수공예 방식에서 근대에 이르러 비약적인 산업발전을 통해 공예가, 공업기술자가 등장하고, 이후 새로운 기계적 생산방식으로서의 전환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제로 전환되어 갔다. 광복 이후, 3년간의 미군정 시기를 기점으로 사회구조와 산업 체계, 문화는 물론 디자인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1946년 8월 22일 미군정청 학무국이 군정법령 제 102호 국립서울종합대학안이 발표되면서 서울 소재지인 9개 전문학교<sup>55)</sup>를 통합하여 오늘날의 서울대학교가 출범했다. 이때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이 설치되었고,<sup>56)</sup> 미술학부에는 도안과가 개설되었다. 이것은 디자인이 4년제 대학에

52) 최공호, 「관립공업전습소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Vol.8(2000), p. 165.

53) 교명의 변천은 관립공업전습소(1907-1922) - 관립경성공업학교(1922-1934) - 경성공립공업학교(1938-1945) - 서울공업고등학교의 순으로 바뀌었다. 최공호, 「관립공업전습소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Vol.8(2000), p. 165.

54) 최공호(2000), 앞의 논문, p. 154; pp. 164-165.

55) 서울에 있던 9개 전문학교는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김종균, 앞의 책, p. 67.

56) 김종균은 당시 예술대학을 4년제 종합대학의 한 단과대학으로 설치한 것은 미국의 교육

개설되고, 해방 이후 한국인 교수에게 수업 받는 첫 교육기관으로서 한국 디자인 교육의 시초이며 디자인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sup>57)</sup> 당시 이순석은 국립서울종합대학교 내의 미술대학안 구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1946년 10월부터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도안과 및 응용미술과<sup>58)</sup> 교수를 역임했다.<sup>59)</sup> 같은 해 이화여자대학교의 예림원 내에도 미술학과의 도안 전공이 개설되었지만, 1950년에 졸업생 1명을 배출한 이후 1962년까지 전공 구분 없이 학과를 운영했다. 1957년에는 홍익대학교 공예과가 개설되었지만,<sup>60)</sup> 디자인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대학교는 1960년대로 접어들 때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만 있었다.<sup>61)</sup>

대학에 설치돼 있는 디자인 관련 학과들의 초기 교수진은 대부분 일본에서 디자인 관련 전공으로 교육을 받은 유학생 출신, 혹은 미국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서구디자인 사조를 먼저 받아들였던 일본의 디자인을 국내 강단에서 가르쳤다. 김종균은 일본에서 디자인 관련 전공으로 대학 수준의 정규교육 과정을 받고 귀국 후 국내 강단에 섰던 사람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표 2)

---

제도를 따랐던 것으로 추정한다. 김종균, 앞의 책, pp. 67-69.

57) 홍영미, 앞의 논문, pp. 45-46; 일제강점기에도 미국 선교사들이 운영했던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에서 미술 관련 교육을 실시했지만, 교육 내용은 수공예 제작이었다. 김종균, 앞의 책, p. 67.

58) 1949년 11월, 학과명을 도안과에서 응용미술과로 개칭하였다. 허보운, 「‘미술로서의 디자인 : 이순석의 1946-1959년 응용미술교육」, 『조형아카이브』 제2호 (2010), p. 138.

59) 김종균, 앞의 책, p. 38.

60) 장보람, 「한국 산업디자인의 정체성 모색에 관한 미술사적 고찰 : 1930~1980년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p. 23-24.

61) 김종균, 앞의 책, pp. 67-69.

이름(출생-사망)	일본 유학	귀국 후 활동
임숙재 (1899-1937)	1928년 도쿄미술학교 도안과 선과 졸업	서울 안국동에 도안사를 설립, 동아 일보에 「공예와 도안」 논문을 기고, 신문사의 후원으로 여러 차례의 미술 강습회를 열어 도안 보급에 힘씀
강창규 (1906-1977)	1933년 도쿄미술학교 칠공과 선과 졸업	1946년에 자신의 호를 딴 ‘창원공예 연구소’를 개설, 잠시 청진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 6. 25를 맞아 월남 이화여자대학교와 서라벌예술대학강사
이순석 (1905-1986)	1931년 도쿄미술학교 도안과 졸업(특별학생)	1946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도안과가 설치될 때부터 교수로 재직
이병현 (1911-1950)	1931-1934년 일본미술학교 도안과 <sup>62)</sup>	1946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도안과가 설치될 때부터 교수로 재직
한홍택 (1916-1994)	1935-1937년 도쿄도안전문학교 1939년 도쿄제국미술학교 회화연구과 졸업	1955년 서울대학교 강사 1959년 홍익대학교 조교수 1981년 덕성여자대학교에서 퇴직
김재석 (1916-1987)	1940년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공예도안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도안과, 서라벌예술대 학교(학과장 역임), 성신여자사범대학 교에서 공예를 가르침.
유강열 (1920-1976)	1938-1939년 상지대학 건축과 1940-1944년 일본미술학교 공예도안과 졸업	1951년 통영 나전칠기기술원 강습소 창설 1954년부터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 교 출강, 1959년 홍익대학교 공예학과장 1976년 타계할 때까지 교직에 종사

(표 2) 해방 이후 설치된 디자인 관련 학과의 초기 교수진: 디자인 교육을 받은  
일본유학생 출신<sup>63)</sup>

62) 현 니혼대학 예술학부

63) 김종균, 앞의 책, p. 68; pp. 98-100. 발췌; 노유니아, 「근대 디자인 개념과 양식의 수

이와 같이 1920-40 년대에 일본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은 한국 현대디자인의 초기 단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유학생들은 귀국 후에 한국 근대 디자인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후진을 양성하는 데 힘썼다.

1960 년대 초까지의 디자인 교육은 아직까지는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본질적인 부분까지 접근하지 못했다. 개설된 학과 명칭을 살펴보면 추구하는 교육철학이 무엇인지를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60 년 이화여자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가 미술대학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생활미술과와 자수과가 신설된다. 1961 년에는 서울여자대학교 공예학과 신설 인가, 1962 년에는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 신설 인가, 생활미술과 신설, 동덕여자대학교 초급대학 응용미술과 신설 인가, 효성여자대학교 생활미술과 신설 인가, 숙명여자대학교 문리과대학 생활미술과가 증설되었다. 1963 년에는 덕성여자대학교 병설 초급대학에 생활미술과를 증설하고, 성신여자실업초급대학에 공예미술과가 신설되었다. 1964 년에는 홍익대학교 미술학부가 미술학부와 공예학부로 분리되었고,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과 신설, 홍익대학교 공예학부에 공예과 외에 도안과가 신설되었다.<sup>64)</sup> ‘도안’은 미술 작품을 창조할 때 형태, 색채, 재질 등의 디자인 요소와 원리에 맞추어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도안은 창조행위를 함으로써 생각하고 연구하여 그것을 그림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바로 실용미술 개념인 것이다. 1964 년까지 봤을 때 주로 여자대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디자인 교육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인 요구와 디자인 영역의 확대는 전문적인 디자이너를 양성해야 할

---

용 : 동경미술학교 도안과 유학생 입숙제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64) 김종균, 앞의 책, pp. 115-117.

필요를 느꼈다. 1960년대 이전 대학에서 실행한 디자인 교육은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기보다는 지배적인 이해방식으로 도안과 공예를 미술의 차원에서 전개해나갔다.<sup>65)</sup>

1966년부터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3학년의 과목이 상업미술과 공예미술로 나뉘게 되면서부터 공업디자인 개념이 교육 분야에 도입되기 시작한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디자인 관계 학과에서는 공업디자인에 대한 초보적인 교육이 시작되면서 1962년에서 1970년까지 공예·디자인계 학과의 학생 수는 6배 가까이 증가했다.<sup>66)</sup> 증가의 원인은 1960년대 초 군사정부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내세운 대학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다.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전국 국·공·사립 대학 총·학장회의에서 문희석 문교부장관은 대학을 정비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공표한다. 문교부장관은 회의에서

“더러워진 학원의 부정이 하루속히 민족양심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  
“최근 경남·경북교원노동자들이 주동이 되어 전국에 지하 조직을 만든 후 명년 봄에 정권을 전복하고 공산화 하려던 사실이 밝혀졌다.” ,  
“이러한 사실이 성스러운 학원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은 통분할 일이다.”

라고 지적했다.<sup>67)</sup> 그는 또한 영리목적만을 가진 과거의 학교 교육이 고급

---

65) 오창섭, 위의 논문, p. 66.

66) 김종균, 앞의 책, pp. 115-117.

67) “대학 정비할 단계”, 『경향신문』, 1961.6.8.

실업자를 양성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교부 장관이 고급 실업자라고 한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정비 안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실업계를 존속시킬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 결과 디자인 관련 학과는 실업계로 분류되어 정원 감축을 피할 수 있었다.<sup>68)</sup>

반면 1961년 10월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서울대학교 11개 단과대학 신입생 모집 정원수가 금년도 모집 학과 중 존속하는 학과 가운데 총 815명의 정원수가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낸다. 특히 종래 150명의 정원을 모집했던 상과대학의 경제과는 125명을 줄인 25명, 상과는 50명을 줄인 100명을 모집정원으로 책정했다. 대학정비사업의 내용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모집학생 정원엄수, 학원 분규 근절, 대학기관에 대한 국민여론,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협력,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 보고, 과감한 혁명 과업의 협조를 해야 한다는 혁명 정신에 근거해 단행되었다.<sup>69)</sup>

1966년에 시작된 산업디자인전은 사회와 디자인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크게는 디자인의 각 분야가 독립적으로 전문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학계 및 실무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배출함으로써 등용문 역할을 했다.

한편 1966년에 산업디자인전이 개최되면서 디자인 교육계와 산업디자인전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1966년 제1회 산업디자인전이 개최되었을 당시 각 부의 추천작가들은 대부분 디자인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당시 조사위원명단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이순석, 부위원장은 한홍택과 민철홍이었다. 이들은 산업디자인전의 취지와 목적을 각 대학의 디자인 전공 학생 그리고 졸업생들에게 알리며 응모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그

---

68) 김중균, 앞의 책, pp. 115-117.

69) “부쩍줄어들 서울대 신입생”, 『경향신문』, 1961.10.01.

결과 산업디자인전이 개최되고 초기 응모 작품의 대다수는 학생들 작품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sup>70)</sup> 또한 초기 산업디자인전의 특선 이상 수상자들은 서울대 출신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1 회부터 5 회까지 이순석이 심사위원장으로 역임할 때까지 상위권 수상자는 대부분이 서울대 재학생이나 졸업생이었다.(표 3)

1970 년대 말에는 디자인 교육이 일반화되고 세분화되었다. 교수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은 1 세대 디자이너와 미국 유학을 다녀온 2 세대 디자이너에게 동시에 교육을 받은 3 세대가 등장했다.<sup>71)</sup> 하지만 이때까지도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학과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학과목과 전공 명칭을 보면 생활미술과, 자수과, 공예학과, 응용미술과, 공예미술과, 도안과, 상업미술 등 다양한 명칭들이 등장했지만 완전한 디자인 교육과정 체제는 형성되지 못했다. 대학에서 ‘디자인’ 용어 사용은 1980 년대 들어서 사용된다. 1983 년에 국민대학교가 산업미술학과에서 시각디자인과와 공업디자인과로 분리하면서 명칭도 ‘디자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후 대부분의 대학들도 전공 명칭을 바꾸기 시작하면서<sup>72)</sup> 현대디자인의 개념을 형성해 나갔다.

이와 같이 대학교에서 디자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배출되어 은행, 백화점, 제약회사<sup>73)</sup>, 광고대행사<sup>74)</sup> 등에서 활동하는가 하면 디자인 분야별로

---

70) 제 9 회(1974 년)째부터는 디자인 교육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포장』 통권 제 17 권(1974), p. 13.

71) 김종균, 앞의 책, p. 148.

72) 김종균, 앞의 책, pp. 268-271.

73) 순수미술학과 졸업생들은 대부분 미술교사로 진출한 반면, 응용미술학과 졸업생들은 기업 부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60 년대 초반에는 졸업생 대부분이 제약회사에 취업하였다. 당시 제약회사들이 신문광고를 많이 내보냈기에 코드에 맞는 응용미술학과 졸업생을 필요로 했다.

74) 1960 년대 후반에 ‘내외 PR 센터’, ‘코리아헤드’ 같은 광고 제작만 전담하는 회사가 생겼다. 1969 년에는 한국 최초의 광고대행사인 ‘만보사’가 설립된다. 이후 종합광고대

협회를 조직하고 전시를 개최하여 디자인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구체화 되었다.

연도 / 회수	수상자	분류	출신대학
1966 제 1 회	강찬균	1 부 상업미술	서울대학교
1967 제 2 회	김길홍	3 부 공업미술	서울대학교
1968 제 3 회	권명광	1 부 상업미술	홍익대학교
1969 제 4 회	부수언	3 부 공업미술	서울대학교
1970 제 5 회	김철수	3 부 공업미술	서울대학교
1971 제 6 회	신용태	1 부 상업미술	서울대학교
1972 제 7 회	이 건	3 부 공업미술	홍익대학교
1973 제 8 회	박인숙	2 부 공예미술	중앙대학교
1974 제 9 회	고을한	3 부 공업미술	서울대학교
1975 제 10 회	김순성	1 부 상업미술	경기공업전문학교
1976 제 11 회	홍성수	3 부 공업미술	중앙대학교
1977 제 12 회	민병혜	3 부 공업디자인	서울대학교
1978 제 13 회	박성우	2 부 공예디자인	-
1979 제 14 회	정국현	3 부 제품디자인	한양대학교
1980 제 15 회	이영재	3 부 제품 및 환경	홍익대학교

(표 3) 제 1 회 - 제 15 회 대통령상 수상자 명단: 서울대학교 출신자 다수 수상

---

행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김종균, 앞의 책, p. 114.

### 3. 정부: 디자인 진흥기관

1957년 미 국무부가 한국에 설치한 한국공예시범소(Korea 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 KHDC)는 국내 최초의 산업디자인 진흥기관으로서 한국 산업디자인의 기틀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sup>75)</sup> 권순형에 의하면 한국공예시범소의 설립 배경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국민들이 공예와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그것을 교육하는 장소를 설립할 필요성을 느끼고, 상공부에 지시하여 추진된 것으로 밝힌 바 있다.<sup>76)</sup>

한국공예시범소는 미 국무부 산하의 국제협력국<sup>77)</sup>(이하 'ICA'로 약칭)의 기술원조기금을 바탕으로 미국 대외원조기간(USOM), 주한유엔군사령부, 주한미 8군사령부의 협조와 한국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되었다. 당시 미 국무부에서 미국의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들을 선정하여 인도와 파키스탄, 중남미, 동남아시아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디자인 기술 지원을 위임했다.<sup>78)</sup> 그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오하이오 주 애크런(Akron, Ohio)에 있는 산업디자인 회사인 스미스, 셔 앤 맥더모트 사(Smith, Scherr & McDermott, 이하 'SSM'으로 약칭)와 한국공예진흥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1957년 8월 2일에 체결하게 되었다.<sup>79)</sup> ICA와 SSM사 간에 체결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대학의 산업디자인학과에 한국인을 훈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둘째, 한국 대학 내에 수공예과 설립을 지원한다.

---

75) 김종균, 앞의 책, pp. 72-95.

76) 김종균, 앞의 책, p. 75.

77) ICA(국제협력국):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후진국의 기술 원조를 담당하는 기관

7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부설 조형연구소 편, 앞의 책, pp. 20-21.

79) Scherr & McDermott Inc. Korea Handicrafts: Summary Report of Craft and Small Scale Industry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1957-1961, p. 3: 를 최정원, 「냉전기 미국 디자인외교와 한국공예시범소」(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 69에서 재인용

셋째, 한국공예시범소를 설립하고 운영한다였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총 사업 기간은 28 개월이었다.<sup>80)</sup>

1959 년 ICA 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지원하던 국가 28 개국 중에 ‘공예’ 나 ‘디자인’ 사업에 지원한 내용은 한국과 이스라엘에서만 발견이 됐는데 당시 보고서 프로젝트의 제목이 이스라엘은 ‘Industrial Design’ 이었고, 한국은 ‘Korea Handcrafts’ 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제목만 보더라도 한국에서 진행된 이 사업의 목적은 수공예 진흥이었다. 한국의 산업디자인 분야의 진흥은 교육을 제외하고는 계약 내용에는 없었다.<sup>81)</sup>

계약이 체결된 것은 1957 년 8 월 2 일이지만,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는 1955 년부터 진행되었다.<sup>82)</sup> SSM사의 대표인 사무엘 셔(Samuel Scherr)는 한국 수공예 산업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3 개월 동안 서울, 부산, 통영, 강릉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해 현황을 조사했고, 향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전략적 제안과 예산, 기획 등이 포함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한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보류되었다가 1957 년이 되어서 재개되었다. 1957 년 8 월 2 일 ICA 와 계약을 맺은 SSM 은 프로젝트 멤버를 구성하여 1958 년 1 월에 서울로 왔다. 1958 년 2 월 26 일 SSM 은 한국 정부가 제

---

80) SSM 사가 ICA 를 상대로 벌인 초과비용 청구 약식소송의 판결문에서 1957 년 8 월 23 일에 체결된 한국공예진흥프로젝트 계약 내용이 밝혀져 있다. 계약 내용에 관한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ntract, No. ICA-W-389, dated August 23, 1957,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handicraft industry. Its original term was for 28 months. The services to be performed by plaintiff consisted of the following: establishing a program for the training of Koreans at American schools of industrial design; assisting in the establishment of handicraft courses at Korean colleges; and setting up and operating, in Korea, a 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 ‘SSM사와 미 정부간의 초과비용 청구 약식소송’, <https://openjurist.org/360/f2d/966/scherr-and-mcdermott-inc-v-united-states>

; 김종균, 앞의 책, p.73.

81) 김종균, 앞의 책, p.73.

82) 최정원, 앞의 논문, p. 70.

공한 대한공예협회 공간에 임시 시범소를 설치하여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해 5 월, 한국공예시범소는 서울 태평로에서 정식으로 개소되었다.<sup>83)</sup>

한편 한국공예시범소의 설립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공예계에서는 한국공예시범소 설립을 위해 우리 측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시설에 투자되는 것이 아닌 내한한 기술자들의 인건비와 여비로 사용된다는 점과 우리 전통 공예 기술이 노출되는 것을 염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출공예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수출을 위한 수공예품 개발과 대량생산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개발하며 수출 진흥에 힘썼다.<sup>84)</sup> 대량생산에 대한 이해는 취약한 한국의 산업 환경을 개선할 기회와 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공예시범소의 설립은 단순한 디자인 진흥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산업진흥책의 일환이었다.

한국공예시범소는 디자인을 가르칠 수 있는 ‘디자인 교수요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1958년 3월에 진행했다. ICA는 매년 상공부로부터 2명을 추천 받아 몇 달간의 영어 연수와 미국 내 대학에 특별학생으로 연수 받는 기회를 부여했다. 첫째인 1958년에는 민철홍과 김정숙, 1959년에는 권순형, 배만실, 김영숙, 1960년에는 이정훈, 김익영이 연수의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일본에서 유학한 후 일본의 선진 디자인을 국내에 소개했던 1세대들을 뒤이어 2세대를 형성하면서 1960년대 한국 현대디자인의 성장을 도모하였다.<sup>85)</sup>

한국공예시범소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평가해볼 수 있다. 첫째, 공예제품의 디자인과 생산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디자인과 제품 개발에

---

83) 김종균, 앞의 책, pp. 73-75.

84) 김종균, 앞의 책, pp.75-76.

85) 김민수, 「한국현대디자인과 추상성의 발현, 1930-60년대」, 『造形 FORM』 Vol.18 (1995), p. 64.

대한 교육은 물론 그 외 생산 방법과 품질 관리, 소재 등의 전반적인 조언을 얻었다. 둘째, 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일반 공예가와 업체들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2년 과정의 산업디자인 강의와 실습을 진행했다. 더불어 교수요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미국의 디자인 교육을 한국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sup>86)</sup> 셋째, 해외 전람회 참여를 포함하는 홍보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사실 한국공예시범소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결과로 현대적 개념의 디자인 제품이 아닌 수공예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산업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고, 주로 전통 민속 공예품이나 가구, 유리, 실크 제품 등의 수공예 부문에서만 기여할 수 있었다. 당시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상 산업디자인 활동 보다는 양산 공예의 진흥이 더욱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sup>87)</sup> 또한 당시 다양한 해외 전시와 박람회에 참가하여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한국성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 민속공예품과 같은 1차 산업물을 이용했을 뿐 전통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했다.<sup>8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공예시범소가 추구한 궁극적인 목표인 산업디자인 진흥계획은 시행되었다. 디자인 교수요원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국내 산업디자인 교육이 정착되었고, 순회 전시, 수출 판로 개척 등의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준국가기관으로서 전방위적이고 총괄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한국공예시범소는 한국 정부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1960년 1월에 폐소 되었지만 이후 한국 산업디자인의 전개 방향에도 명맥을 이었다. 대학교육 기능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으로, 공예 및 산업디자인 진흥의 기능은 1966년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1969년 한국

---

86) 최정원, 앞의 논문, pp.69-90; 김종균, 앞의 책, pp. 72-95.

8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부설 조형연구소 편, 앞의 책, p. 23.

88) 김종균, 앞의 책, p. 95.

수출디자인센터로 개편)와 1970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현 한국디자인진흥원)로 이전되어 한국 디자인을 위한 제도 구축에 전기를 이룩했다.<sup>89)</sup>

한국공예시범소가 폐소 되고 곧이어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뒤 디자인 진흥에 관한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으로 전환되면서 정부로부터 디자인 진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1962년에 착수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수출증대를 위한 제품 디자인과 상품포장분야의 개선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디자인 포장 개선사업을 지원할 민간주도의 디자인 진흥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1966), 한국포장기술협회(1966), 한국수출품포장센터(1969)가 출현하게 된다.(표 4) 김종균에 의하면 한국공예기술연구소는 이순석 교수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들이 주도적으로 정부에 디자인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설치되었고, 수출산업의 육성대책으로 계획한 것을 봤을 때 한국공예시범소와 유사한 형태의 역할을 기대했을 것으로 추측했다.<sup>90)</sup> 1966년 7월 26일에 설립된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는 ‘디자인’ 단어가 포함된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정시화는 「한국의 현대디자인」(1976)에서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의 설립은 한국에 있어서 디자인 운동의 시작을 의미하며, 공예가 세대에서 디자이너 세대로 전환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하였다.<sup>91)</sup>

정부는 1965년 9월 13일 수출진흥확대회의를 통해 한국공예기술연구소를 서울대학교 부설 연구기구로 설립하기로 하고, 디자인 전람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들이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사장<sup>92)</sup>, 소장 이하 대부분이 서울대학교

---

89) 최정원, 앞의 논문, pp.88-90.

90) 김종균, 앞의 책, pp. 123-124.

91) 정시화, 앞의 책, pp. 45-46.

92) 초대 이사장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박갑성, 제 2대 이사장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관련 학계 인사로 구성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사업은 수출 상품과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된 사업 내용은 새로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상품 및 포장디자인의 지도계몽, 디자이너 및 기술원양성지도, 각종 디자인에 관한 조사, 디자인 전반에 관한 공보출판, 우량 디자인 전시관 설치, 디자인 상담실 설치 운영, 디자인 관리 및 진단, 디자인정책입안 건의, 연구 작품 발표와 상공미전의 협조에 필요한 사업 등이었다.<sup>93)</sup> 상공부에서는 공예디자인연구소가 상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았고, 약 6,600 만 원의 국고보조로 건물 건축과 운영비를 충당했다는 명목으로 상공부 산하단체라 여겨 운영에 지속적인 간섭이 있었다. 갈등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센터의 명칭 변경과 이사직 임명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에서 1969년 2월 한국디자인센터로 개칭되고, 1969년 3월에는 다시 명칭이 한국수출디자인센터로 바뀌는 과정을 겪고, 정관 개정을 통해 서울대학교 출신의 학계 인사 비중을 줄여나갔다.<sup>94)</sup> 명칭에서부터 기존의 순수한 디자인 연구소로서의 목적이 사라지고 주요 사업이 상품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 수출 상품 위주의 디자인을 연구 개발하는 곳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sup>95)</sup> 한국수출디자인센터로 개칭되면서 1970년대의 수출전쟁을 전망하면서 새로운 자세의 확립으로 활동을 전개하고자 했다.<sup>96)</sup> 8월부터 동 기관의 기관지인 『계간 디자인』을 디자인 전문지로서 국내 최초로 발간한다. 창간호의 첫 장은 ‘미술수출’ 휘호와 국민 교육 현장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디자인이 국가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존재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다.<sup>97)</sup>

---

학장 김종영, 제 3 대 이사장에 서울대학교 총장 최문환, 제 4 대 이사장에 센터 소장 이순석

93) 「KDC 안내」, 『계간디자인』 vol.3(1969), p. 45.

94) 김종균, 앞의 책, pp. 124-126.

95) 김종균, 앞의 책, pp. 124-126.

96) 이순석, 「권두언」, 『계간디자인』 vol.3(1969), p. 3.

NEW IDEA, NEW PLAN, NEW LIFE 를 창립 이념<sup>98)</sup>으로 삼아 한국수출디자인센터로 개칭되면서 본격적인 디자인 활동을 기대했으나 상공부와 서울대학교 간의 갈등과 수출 증대를 위한 몇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상품디자인 연구개발 실적은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본 센터의 존재의의를 인식시키는 데 집중되었고 산업계의 실질적 요청에 부응하는 본격적인 활동이었다고 볼 수 없었다.

1970 년에 이르러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수출디자인센터는 상공부로 대변되는 국가 행정 권력에 의해 강제 해산되어 한국포장기술협회, 한국수출품포장센터와 통합되면서 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로 출범하게 된다.<sup>99)</sup>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1970 년 5 월에 설립 후 다양한 디자인 진흥사업을 진행한다. 같은 해 7 월 29 일에 제 1 차 디자이너 등록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1 월 20 일에는 디자인 · 포장 전문 잡지인 『디자인 · 포장』을 창간하였다. 1971 년 10 월부터는 기존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던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를 주관하기 시작했으며, 11 월에는 디자인 관련 자료를 구비한 자료실을 개관하게 되는데 도서, 잡지, 슬라이드 등 방대한 양이 비치된 종합정보센터의 역할을 했다. 1971 년 국제공예협회(WCC), 1972 년 국제그래픽디자인단체협의회(ICOGRADA), 1973 년 국

---

97) 최호량, 「1960-70 년대 한국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 전개 : 디자인 기관지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p. 43-44.

98) 기관지에 실린 한국디자인센터의 설립 취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의 추진에 따라 공업 입국화예의 새 역사가 창조되는 현시점에서 산업진흥과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 증진을 위한 예술과 기술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긴요한 경제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센터는 상공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하여 산학협동이라는 시대적 명제아래 결속 NEW IDEA NEW PLAN NEW LIFE 라는 3대 이념하에 과학적이고 미적으로 신제품의 디자인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디자인 문화 향상을 위한 총본산의 구실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센터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KDC 안내」, 『계간디자인』 vol.3(1969), p. 45.

99) 최호량, 앞의 논문, p. 52.

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에 가입하여 해외 디자인 동향을 파악하고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을 조사하는 등 디자인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및 정책 자료 수집을 통해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sup>100)</sup> 특히 전시사업을 통해 디자인계의 계몽 활동에 주력했다.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를 매회 개최하고<sup>101)</sup> 그 외 한국우수포장대전(1971-1975, 1980, 1987, 1988),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1971, 1985, 1987), 서울국제포장전(SEOUL PACK, 1989), 우수산업디자인전(1970, 1973, 1974, 1975, 1976), 그리고 국제 교류전은 1970, 1972년 스위스 포스터전, 1973년 우수포장비교전, 1974년 해외포장자료전, 1977년 이탈리아 산업디자인전, 1979년 영국·이탈리아 산업디자인전, 1988년 프랑스 산업디자인전 등 해외의 우수한 디자인과 포장을 국내에 소개해 기업과 디자이너,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고, 정책적으로는 기업의 디자인 활동 지원사업과 디자인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추진, 디자인 교육, 디자인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sup>10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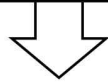
---

100) 김중균, 앞의 책, pp. 178-181.

101) 산업디자인전은 상공부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여 제 1 회부터 제 5 회까지 개최하였다. 이후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설립된 후 제 6 회부터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서 주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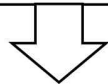
102) 김중균, 앞의 책, pp. 178-181.

한국공예시범(KHDC) (1958.1 - 1960.1)



(사)한국공예디자인연구(66.7) (사)한국디자인센터(69.2) (사)한국수출디자인센터(69.3)	(사)한국포장기술협회 (66.10)	(재)한국수출포장센터 (69.3)
--	------------------------	-----------------------

통 폐 합



(재)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 (70.5 설립)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KIDP) (91.7)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KIDP) (97.1)
한국디자인진흥원 (KDIP) (01.4)

1958 ~ 1960 미국 주도  
1966 ~ 1970 민간 주도  
1970 ~ 정부 주도

(표 4) 한국 디자인 진흥기관의 변천

### Ⅲ.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제도의 창설

#### 1. 상공미전의 창설 배경과 취지

산업디자인전은 전술한 바와 같이 디자인 진흥 정책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의 주도 아래 실현되었다. 1965년 9월 13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수출진흥확대회의를 통해 디자인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공예기술연구소를 서울대학교 부설 연구기구로 설립하기로 하고, 디자인 전람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sup>103)</sup> 산업디자인전이 개최되기까지 미술계에서도 종합적인 산업디자인 전시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 측에 건의했고 이후 1965년 11월에 상공부 제1 공업국장이었던 오원철의 주재하에 24명의 공예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 것을 계기로 개최가 결정되었다. (표 5) 창설 배경을 살펴보면 디자인분야 진흥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한 것은 상공부로 보이며, 산업디자인전이라는 행사의 아이디어는 이순석이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04)</sup> 그러나 디자인분야가 전람회에 새로운 장르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먼저 제시한 사람은 한홍택이다. 그가 대표 간사로 있던 조선산업미술가협회(이하 ‘산업미협’ 약칭)는 국전에 디자인 부문을 신설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문교부장관과 국회문사분위·예술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건의서를 살펴보면, “20세기 후반기의 디자인은 현대생활과 밀

---

10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부설 조형연구소 편, 『디자인의 새로운 지평, 민철홍과 한국 산업 디자인 40년』 (서울: 미진사, 1994), p. 28.

104) 당시 1974년에 발행된 경향신문에 이순석이 쓴 칼럼을 보면 산업디자인전이 열리게 된 것은 그전부터 이러한 미전의 필요성이 미술계에서 거론되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 측에 건의하였다고 서술했다. 1965년 11월 상공부에서 24명의 공예인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연 것을 계기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148>이순석(9), 첫회부터 호조 보인 상공미전”, 『경향신문』, 1974.03.20.

접한 연관성을 맺는 ‘목적미술’로서 크고 뚜렷한 각광을 받고 있다.”며 디자인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미술대학의 도안과 응용미술과 생활미술과 지방 학생들의 수가 매년 타 미술부문에 비해 월등하다는 점은 그만큼 일반인들에게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전에 디자인부가 독립된 하나의 장르로 설치되어 디자인 한국을 과시할 날을 바라며 선처와 용단을 건의한다.”<sup>105)</sup>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와 같이 기관에서도 한국 산업디자인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침내 1966년 8월 3일 경북공미술관에서 제 1회 산업디자인전이 상공부 주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되어 그 활동을 시작하였다.(도판 10)

이름	소속 및 직위 (1965년 현재)	이름	소속 및 직위 (1965년 현재)
이순석	서울대학교 교수	박대순	경기공전 <sup>106)</sup> 교수
권순형	서울대학교 교수	곽원모	경기공전 교수
민철홍	서울대학교 교수	이우성	경기공전 교수
조영제	서울대학교 교수	권길중	서울여대 교수
백태원	서울대학교 교수	남상교	서울여대 교수
김교만	서울대학교 교수	김수석	숙명여대 교수
임응식	서울대학교 교수	조병덕	이화여대 교수
한홍택	서울대학교 교수	염인택	한국조폐공사 미술실장 <sup>107)</sup>
박성삼	공예인	김영호	공예조합연합회회장

(표 5) 공예인 간담회 참석자 명단<sup>108)</sup>

105) “국전에 디자인부를 산업미협건의”, 『경향신문』, 1965.10.11.

106)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7) “신선한 조형”, 『경향신문』, 1964.06.13.

108)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한국디자인포장센터20년사』(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90),

“우리 나라는 지난 5년 동안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증산·수출·건설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5, 6년 전만 해도 고작 3천만 달러선이었던 수출이 연평균 44%라는 급진적인 신장으로 올해 목표 2억 5천만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중략)…우리들은 오랜 염원인 경제 자립의 지름길이 수출을 통한 국제수지역조 개선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당면한 상공 시책의 중점을 ‘국제경쟁력의 강화’에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부는 올해에 제 1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를 개최하였던 것이며 그 결과는 우수한 디자인 창안 기풍을 진작시켜 미술의 경제발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었고 미술계와 산업계를 직결시켜 디자인 개선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109)

제 1 회 산업디자인전 도록에 게재된 박충훈 상공부장관이 쓴 서문의 한 단락을 살펴보면, 이상의 기록과 같이 산업디자인전의 의의와 목적 및 성격이 잘 기록되어있다. 서문에는 산업디자인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출 확대에 이바지해 정부가 지향하는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도판 11) 그리고 미술계와 산업계를 직결시켜 디자인 개선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

p. 208에서 인용.

109)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 1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서울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66), 서문, 인용.

것이라고 하며, 산학협동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전의 발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서문에서는 상공부가 산업디자인전을 오늘날의 ‘굿디자인전’<sup>110)</sup>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품적·감상적·순수미술적인 공예 작품으로서의 대중적인 실용성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정부에서는 디자인이 경제적·사회적 변화 속에서 경제 개발과 생산 증대, 수출 진흥이라는 산업 경쟁력 추진의 촉진적 매개체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상공미전을 실시하게 되었다.”<sup>111)</sup>

이 전시의 목적은 명백히 수출 진흥을 위한 것이었고, 공예인들이 건의한 국전과 같은 성격의 전람회는 아니었다.<sup>112)</sup> 이처럼 수출품 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출발한 산업디자인전람회는 디자인은 수출이라는 식의 인식하에 전개되어 갔다.

본 전람회 개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디자인의 창안 기풍을 조성하여 둘째, 생산제품의 품위를 향상시키고 셋째, 수출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sup>113)</sup>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개최된 산업디자인전의 개최

---

110) 1985년 정부는 ‘GD(Good Design)’ 마크를 제정하고 국내 공산품을 대상으로 우수 상품을 선정하는 한국 굿디자인 제도를 시행한다. 굿디자인 제도는 우수한 디자인 상품 개발을 장려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후 한국의 디자인 경향이 급속히 변화하게 된다. 산업디자인전과 굿디자인전 두 전시 모두 상공부 산하의 한국 디자인포장센터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은 명확히 달랐다.

111) 한국디자인포장센터(1966), 앞의 책, 서문, 인용.

112) 김중균, 앞의 논문, p. 205.

113)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규정 제1조.

취지를 살펴보면, 국전 등 정부가 주관하는 종합전에서 소외되어 발표와 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공미술과 공업미술의 독자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국내 상공업 미술인의 창작 기풍을 조성하여 이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산업디자인전 개최의 첫째 목적이었다.<sup>114)</sup>

## 2. 상공미전의 개최 양상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을 기본으로 한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정부는 수출상품고급화대책으로 산업디자인전을 개최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산업디자인전의 출품분야 구성은 제 1 회에서 제 11 회까지는 제 1 부 상업미술(graphic design<sup>115)</sup>), 제 2 부 공예미술(Craft design), 제 3 부 공업미술(Industrial design) 총 3 부<sup>116)</sup>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하였다. 당시로써는 응용미술, 상업미술로 통하였던 만큼 상업미술, 공예미술, 공업미술 분야로 나누기로 결정한 것이 산업디자인의 분류에 있어서 다소 논란이 있었다.<sup>117)</sup> (표 6)

시상은 제 1 회를 기준으로,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경제기획원장관상, 상공부장관상, 문교부장관사, 공보부장관상, 대한상의회장상, 한국경협회장상, 한국무협회장, 대한무공사장상, 한국생산성본부이사장상, 대한방협외장상, 대한양회회장상, 한국합관공협회장상 특선이 있다.

---

114) 김교만, 「상공미전 10년 · 어제와 오늘」, 『디자인 · 포장』 vol.6 no.2(1975), p. 21.

115) 상업디자인 중에서도 평면적 조형 요소가 큰 것을 뜻한다. 주로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는 인쇄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선전 매개체의 시각적 디자인을 일컫는다.

116) 각 부문에 영문 명칭은 산업디자인전람회가 번역한 것이다.

117) 하용훈, 「포장디자인정책과 그 방향에 관한 연구 : 1980 년대 이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p. 14-17.

심사 방침은 수출공산품의 디자인 개선 및 우량화에 기여할 수 있고 수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품의 기능성과 생산성을 보았고, 특히 양산의 가능성, 수출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았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심사선정 방침의 기준으로써 1.국내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2.모방성이 농후한 작품 3.우리나라 미풍양속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작품 4.기성 상사명이나 기성 제품명을 패입(裨入)한 작품 등은 심사에서 제외하였다.

입선작의 선정은 각 부문별로 심사하되 선정 방법은 각부 심사위원회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심사하였다. 특선작은 입선작 중에 각부 심사위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비밀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였다. 특선작 중에서 입상 순위는 각 부의 특선작중 상기원칙을 감안하여 선정하되 종합심사위원회의 평점으로 결정하고 입선, 수상작품이라도 정확한 정보에 의하여 취소 가능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기중이나 후에 재심하여 취소하도록 방침을 결정하였다.<sup>118)</sup>

제 1 회 산업디자인전에는 총 1,041 점이 출품되었다. 각 부문으로는 상업미술 부문이 725 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제 2 부 공예미술 부문은 165 점, 제 3 부 공업미술 부문은 151 점이 출품되었다. 심사는 3 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첫날에 상업미술 부문 입선작 106 점, 공예미술 부문 입선작 71 점, 공업미술 부문 입선작 58 점으로 총 235 점을 선정하였다. 다음날 입선작 235 점에서 상업미술부 15 점, 공예미술부 10 점, 공업미술부 10 점 총 35 점의 특선작을 선정하였다. 셋째 날에는 종합심사위원회에서 미술계심사위원 평점 70 점 만점, 산업계심사위원 평점 30 점 만점 총 100 점 만점으로 채점 투표한 결과 점수 순위에 따라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경제기획원장관상, 상공부장관상, 문교부장관상, 공보부장관

---

118)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 1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 (서울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66).

상, 대한상의회장상, 한국경협회장상, 한국무협회장상, 대한무공사장상, 한국생산성본부이사장상, 대한방직협회장상, 대한양회회장상, 한국합판공협회장상 등 이상 15 점의 수상작과 특선 20 점을 결정하였다. 총 전시작품은 초대작가작품 및 심사위원작품 19 점을 합하여 총 254 점의 작품을 전시하였다.<sup>119)</sup> (도판 12)

산업디자인전 측은 제 1 회 입상작품 경향에 대해 전체적인 평가를 했다. 제 1 부 상업미술 부분의 작품 경향이 다른 부문에 비해 수준 이상의 작품이 많았으나 국가적으로 요청되는 상품포장분야의 개발이나 디자인작품의 응모가 적었고, 관광포스터가 많았으나 사진을 사용한 작품이나 이미지가 뚜렷한 작품이 없었고, 시리즈도 역작을 낸 응모도 많았으나 계획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통일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했다.<sup>120)</sup> 제 2 부 공예미술 부분의 작품은 국전의 순수공예와의 상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량생산이 불가하거나 예술성을 강조한 작품이 대다수였다. 제 3 부 공업미술 부문은 우리나라 미개척분야로서 실물이나 모형 같은 처리 부분은 우수한 작품이 많았으나 도면처리는 일반적으로 미숙하였다.

제 1 회 대통령상은 1 부 상업미술 부문에서 강찬균의 <서울역색채안내설시>가 수상했다.(도판 13) 강찬균은 서울대 미대 응용미술과 출신으로 당시 28 세로 덕성여대 강사로 재직 중이면서 중앙산업석예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색채안내를 구상하게 된 것은 강찬균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다.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복잡한 지하철 노선 안내판을 보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고충을 생각했고, 문맹인들에게 색을 이용한 길잡이가 되어 보겠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서울역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기

---

119)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 1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 (서울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66).

120)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 1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 (서울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66).

능적이며 합리적인 정리를 위해 기호도가 높고 순간 확인이 쉬운 색을 사용하였고, 지방 특성에 어울리는 색을 고안해 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경부선은 대구 사과를 상징하였고, 초록색 호남선은 평야를 뜻한다. 이 색은 매표구에서부터 개찰구 통로와 타고자 하는 열차의 차체 색깔까지 안내하는 방식이다.<sup>121)</sup> 국회의장상은 공업미술 부문에서 신용학의 <음료냉각기>, 국무총리상은 송광자의 <반침을 겸한 장식>, 경제기획원장관상은 유재우의 <캘린더>, 상공부장관상은 한영희의 <원정용 특수선풍기>, 문교부장관상은 김덕겸의 <화병 2 제>, 공보부장관장은 김영자의 <Package>, 상공회의소회장상 박조향의 <관광포스터>, 무역진흥공사사장상 배간범의 <텔스타·트랜지스터>, 한국생산성본부이사장상 박준자의 <웃·세트>, 한국무역협회회장상 이병오의 <레벨>, 경제인협회회장상 박윤정의 <케이블·램프>, 대한방직협회회장상 차성희 <전기스텐드>, 대한양회회장상 최승천의 <문갑쌍>, 한국합판공업회회장상 박인규의 <전자시계> 등이 수상하였다.<sup>122)</sup>

심사위원장이었던 이순석은 의외로 출품작 수준이 높아 3부분 모두 외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대학마다 응용미술학과가 있어 많은 인재를 길러냈다는 증거라고 평했다.<sup>123)</sup> 하지만 1966년 이전까지 대학에서 응용미술학과 이름으로 설치되었던 학교는 1962년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응용미술과 신설을 위한 인가와 1949년에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도안과가 응용미술과로 학과 명칭이 바뀐 것 외에는 없었다. 1960년대로 접어들 때까지 디자인 관련 학과는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가 유일하다.<sup>124)</sup>

121) “상공미술전 지상 전시”, 『매일경제』, 1966.08.06.

122) “대통령상에 강찬균, 1회 상공미전개막”, 『중앙일보』, 1966.08.04.

123) “상공미술전 대통령수상자 강찬균씨”, 『매일경제』, 1966.08.03; “응용미술 등용문 제1 상공미전”, 『동아일보』, 1966.08.04.

124) 김중균, 앞의 책, p. 67.

제 2 회 산업디자인전은 1967년 9월 1일 덕수궁 종합전시장에서 개막하였다. 제 1 회 때의 과오를 알고 개최 취지의 변질을 우려하여 2 회부터는 우량디자인(굿디자인) 부문을 신설하여 4 부에 걸쳐 출품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처에 대한 심사기준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변화 없는 운영방식과 출품자라는 한계로 출품작은 별로 없었다. 다만 1 회 때 보다 총 출품작 수는 4 백점이 더 늘었다. 총 1,519 점 출품작 중에 입선작 273 점, 28 점이 특선, 19 점이 각각 입상되었다. 이외에도 무역진흥공사를 비롯한 각 수출단체 및 심사위원 추천작가작품 207 점, 총 480 점을 전시하였다.<sup>125)</sup> 대통령상은 3 부 공업미술 부문에서 김길홍<sup>126)</sup>의 <오토라이너>가 수상했다.(도판 16) 당시 27 세로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오토라이너는 목공이나 석공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먹통을 개량한 것으로 단추로 된 자동장치에 의해 분해와 조작이 간편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그 외 국회의장상은 이태영(합동통신광고부)의 <팩스 피아노 포스터>, 국무총리상은 박윤정(서울대 대학원)의 <화기한쌍>, 상공부장관상은 김영자(서울대출)의 <관광을 위한 캘린더>, 김덕겸(숙대 강사)의 <혈함탁(穴含卓)장>, 박영포·유성오(홍익대재)의 <아시아, 무역박람회를 위한 계획> 등이 수상하였다. 심사위원장 이순석은 “제 2 회는 제 1 회 때보다 출품작 수가 증가하였고, 질적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아이디어와 색채의 민감도는 이제 외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그는 다만 제 3 부 공업미

125) 김종균, 앞의 논문, p. 207.

126) 김길홍(1940~2002)은 서울대 미대 학사 동 대학원 환경조경학 석사 졸업하였다.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67년 산업디자인전에서 <오토라이너>로 대통령상을 수상, 1972년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KSID)(창립회장 민철홍) 창립회원, 1971년 이화여대 장식미술과 교수 및 미대학장, 이화여대 색채디자인연구소 소장,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신축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자문위원, 인천국제공항 건설자문위원 등의 경력이 있다. 김달진미술연구소, ‘인명사전’, <http://www.daljin.com/author/3721>, (접속일: 2018. 10.10.)

술에서 풍부한 재료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지만, 수출 시장을 위한 포장 부문은 상업미술로서 다양성이 보여 좋았다고 평했다.<sup>127)</sup>

제 3 회 산업디자인전은 1968년 7월 25일 경북공미술관에서 개막하였다. 7월 10일 상공부는 추천작가의 심사기준을 공고했다. 산업디자인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자와 3회 이상 특선한 자 및 10회 이상 입선한 자에게 추천작가의 자격이 주어졌다.<sup>128)</sup>

3회는 개최 전부터 내부 갈등이 있었다. 집행부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된 데다가 수상자들 또한 서울대 출신들이 많다는 것에 심사의 공정성과 전람회 운영방식에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3회는 홍대 학생들의 출품거부 성명 등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예정대로 개막하였다.<sup>129)</sup> 총 응모 작품 수는 1,063점으로 제 2회에 비해 4백여 점이 줄었다. 제 3회 대통령상은 1부 상업미술 부문에서 권명광의 <양송이 재배>가 수상했다.<sup>130)</sup> 양송이 재배를 장려하는 주제로 포스터 2개와 팸플릿 6개와 패키지디자인으로 구성되어있다. 1부 상업미술 부문에서 유일한 홍대 측 심사위원인 한홍택은 결국 사퇴하고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상 수상자인 권명광은 당시 육군본부 참모총장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역 사병 신분이었고 학력은 홍익대학교 도안과 출신으로 한홍택의 제자였다. <양송이 재배>는 비옥한 땅을 연상시키는 흙색 바탕 위에 강약으로 크기 변화를 준 양송이들이 포진되어 있고, 하단은 1점 투시 표현으로 상단은 곡선을

---

127) 제3부는 공업미술이다. 하지만 참고한 자료에서는 ‘제3부(공예)’로 오자가 적혀있다.

연구자는 제2부 공예가 아닌 제3부 공업으로 추측되어 오자를 수정하여 기입한다. “오 토라이너 김길홍씨에 대통령상”, 『매일경제』, 1967.09.01.

128) “3회 이상 특선자로 상공미전작품 추천”, 『매일경제』, 1968.07.10.

129) “상공미전과 그 뒷이야기”, 『경향신문』, 1968.07.27.

130) 권명광은 1969-1978년 동안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을 맡는다. 이후 국내 최초의 디자이너 출신 총장(2006.09~2009.9 제 15대 홍익대학교 총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며, 부임 당시 홍대 미대 실기고사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시도를 시행하기도 한다.

그리며 수출이 상승하여 위로 증가하는 듯한 느낌은 양송이가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리듬감 있는 시각적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도판 17) 그 외 국회의장상은 공업미술 부문에서 안중문의 <공공건물 자동수표기>, 국무총리상은 공예미술 부문에서 한명철의 <머리탁자>, 상공부장관상은 상업미술 부문에서 양승춘의 <해태수출개체포장>, 공예미술 부문에서 황영숙의 <사라다세트>, 공업미술 부문에서 최대석의 <알루미늄 저울>, 상공회의소장상은 상업미술 부문에서 홍종일의 <캘린터>, 공예미술 부문에서 이명달의 <촛대한쌍>, 공업미술 부문에서 이능재의 <탁상시계>가 수상하였다.

제 4 회 산업디자인전은 1969년 6월 10일 한국디자인센터에서 개최하여 약 1만 6천명이 관람했다. 상공부는 전시 한 달 전에 국내 기업에서 직접 활용하거나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을 출품해 줄 것을 바란다고 신문 기사로 요청하였다.<sup>131)</sup> 전시는 총 441점이 출품되었고, 각 부문별로 공예미술 부문이 212점으로 제일 많았으며, 상업미술 부문 186점, 공업미술 부문 41점, 우량디자인 부문 1점이었다. 그 중 입선된 226점이 전시되었다.<sup>132)</sup> 제 4 회 대통령상은 3부 공업미술 부문에서 부수언의 <택시미터기 디자인>(도판 18)이 수상했다. 택시미터기는 현대모형기술을 동원해 비교적 실물에 가까운 정도의 작품을 만들었다. 형태에서 오는 시각적 피로감과 형태의 무기능에서 생기는 불편을 보다 인간에게 편리하고 유용하며 쾌적한 형태로 디자인되었다고 평가받았다.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최아영(서울대 미대)의 <수출용 인삼차 포장디자인>(도판 19)은 한국의 인삼이라는 표현이 함축되도록 실용적이고 편리하며 인삼뿌리를 적당히 배열하여 한국의 인삼이라는 표현을 함축시켜 한국의 특산물을 더욱더 품위있게 돋보이게 했

131) “상공미전 출품요망”, 『매일경제』, 1969.05.10.

132)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 4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69).

다.<sup>133)</sup> 그 외 국무총리상은 유리지(서울미대대학원)의 <캔디볼>(도판 20), 경제기획원장관상은 이정숙(서울대 미대)의 <수출용 한산모시 광고 및 포장>(도판 21), 상공부장관상은 이태영의 <모직물 선전 포스터>(도판 22), 최주경의 <과기(한 쌍)>(도판 23), 이능재의 <완구>(도판 24),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은 김철수의 <곡용 계량 용기>(도판 25) 등이 수상하였다.<sup>134)</sup>

제 5 회 산업디자인전은 1970년 6월 1일 국립공보관에서 개최해 640점이 출품된 가운데 공예미술 부문은 181점, 상업미술 부문은 105점, 공업미술 부문은 33점, 총 319점이 전시되었다.<sup>135)</sup> 17일 우수작품 시상식에서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현재 수출은 연평균 40%씩 늘어나고 있지만, 상품의 디자인과 포장만 선진 외국 것에 뒤지지 않는다면 훨씬 더 수출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산업계와 미술계가 더욱 긴밀한 협조로 디자인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sup>136)</sup>

제 5 회 대통령상은 3부 공업미술 분야의 <기와 디자인>(도판 26)을 출품한 서울대 미대 응용미술과에 재학중인 김철수가 수상하였다. 그는 제 4 회 산업디자인전에서 <곡용 계량 용기>(도판 25)로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심사위원장 이순석은 <기와 디자인>은 출품작가들이 쉽게 생각하기 어렵고 소외된 것을 테마로 설정한 부분과 기능성과 규격의 통일성, 경제성, 전통성을 고려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피력했다. 재료 검토와 강도의 세기 문제, 시장성 문제만 해결되면 원형대로 양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회의장상은 최아영의 <홍삼 포장디자인>(도판 27), 국무총리상은 최희

---

133) “인삼차포장 디자인 국회의장상 최아영양”, 『매일경제』, 1969.06.28.

134)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 4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69).

135) “제 5 회 상공미전 개막”, 『매일경제』, 1970.06.01.

136) “상공미전 시상식”, 『매일경제』, 1970.06.17

권의 <식탁용기> (도판 28), 경제기획원장관상은 홍종일의 <한국냉동새우>(도판 29), 상공부장관상은 권인수의 <실크 포스터>(도판 30), 이종회의 <과반 (작품 F)>(도판 31), 이병구의 <닐 전단기>(도판 32), 대한상공회의회 회장상은 김규식의 <과기 세트>(도판 33) 등이 수상하였다. 1부 상업미술 부문에 있어서는 제 4 회때에 비하여 출품수가 48 점 증가하고 재료 선택의 다양화와 상품 특성에 따르는 시장성을 고려한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의 작품이 많아졌다. 국회의장상을 받은 최아영도 김철수와 마찬가지로 제 4 회에서 입상을 하였다. <수출용 인삼차 포장디자인>으로 국회의장상을 받았다. 포장의 시각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을 최대한 살리고 한국적인 감각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조화롭게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이순석은 제 5 회 산업디자인전의 심사 총평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

“디자인이 현대의 인간적인 사회환경과 공간에 기여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이라면 일상생활에 편리하고 유용하며 아름다워야 하겠으며 인간생활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면 아니될 것은 물론이려니와 상공미전 전체의 작품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작가들이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의 적응과 수출에 직접 기여하기 위하여 작품 제작상의 이념을 오직 조국근대화에 공헌하겠다는 정신의 발로이자 그 결정이라 하겠다.”<sup>137)</sup>

이처럼 산업디자인전이 5 회에 접어들면서 전시회의 성격을 구현하기 위해 수출상품 고급화만이 경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출품자들은 이러한 사

---

137)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 5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69).

명으로 만든 작품이어야 한다고 출판작의 경향성을 유도하였다.

산업디자인전은 초기 몇 해 동안은 응용미술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으로 디자인 관계의 교수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창작발표전의 성격이 강했다.<sup>138)</sup> 그러나 당시만 해도 디자인 분야 전공자들은 극히 적었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참여만으로 출판작 확보를 고려해봤을 때 전시가 진행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흥공업국 진입 문턱에서 절실했던 한국은 국내 경제의 안정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모든 산업에 있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상황이 매우 절실했다. 그에 따른 디자인 수출은 많은 해결책 중의 하나였다. 정부는 수출 진흥과 산업의 근대화도 디자인의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고 1969년에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서 ‘한국디자인의 개선문제’라는 특집좌담을 열기도 했다.<sup>139)</sup> 1969년 각각 활동하던 3개의 관련기관인 한국수출디자인센터, 한국포장기술협회, 한국수출품포장센터가 통합되어 1970년 5월 19일에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센터에서 직접적인 디자인 개발 중심의 진흥활동이 시작된다.

---

138) 하용훈, 앞의 논문, pp. 14-17.

139) 「(특집좌담) 한국디자인의 개선문제」, 『계간디자인』 vol.1(1969), pp. 10-29.

연도	1966 1 회	1967 2 회	1968 3 회	1969 4 회	1970 5 회	1971 6 회	1972 - 1976 7 회 - 11 회	1977 12 회	1978 13 회	1979 14 회	1980 15 회
전람회 명칭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출품 부문별 명칭	1 부: 상업미술 2 부: 공예미술 3 부: 공업미술						1 부: 시각디자인 2 부: 공예디자인 3 부: 공업디자인		1 부: 시각디자인 2 부: 공예 3 부: 제품 및 환경디자인		
주최 및 주최기관	주최: 상공부 주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공부 주관: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장소	경북공 미술관	대구공 중합전시관	경북공 미술관	한국디 자인센터	국립공 보관	국립현 대미술관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표 6) 산업디자인전 변천과정<sup>140)</sup>

140)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한국디자인포장센터 20 년사』 (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90), p. 209 에서 인용.

## IV.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제도의 조정

### 1. 상공미전의 문제점

산업디자인전은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첫 회부터 수상작 모방 논란에 휩싸였다. 1966년 8월 10일 경향신문은 “외국 것 본뜬 것”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sup>141)</sup> 일본의 아트디렉터스클럽(Art Directors Club)이 편집한 1965년도 『연감광고미술』에 실린 동경 올림픽촌 심볼마크와 강찬균의 <서울역색채안내실시>에서 식당, 전화, 다실, 변소, 소화물취급 등의 심볼마크를 비교하며 어떤 것은 베꼈고 어떤 것은 완전히 모방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도판 14)

“수출산업의 미적 효용성을 중시하여 상공부가 주최하고 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제 1 회 상공미전의 대통령상 작품이 수출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래픽디자인이고 그것도 창조적인 디자인아이디어가 없으며 더구나 부분적으로 외국 것의 모방이라는 소리가 디자인계 일부에서 일었다. 특히 모방 문제는 “국가적인 위신을 손상시킨 창피스러운일”이라고 일부 디자이너들은 흥분하고 있다. 몇몇 디자인계 실력자의 후진적인 권한을 두려워하는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밝히려 들지 않는다.”  
(도판 15)

당시 모방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몇몇 심사위원들은 다수결 투표에 묵인되었다. 그중 최고상 수여를 반대했던 홍익대 한홍택 교수는 “보잘것없는

---

<sup>141)</sup> 김중균, 앞의 책, pp. 121-123.

작품이며 더구나 대통령 수상은 언어도단” 이라고 발언했다. 반면 외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던 이순석은 “모방이란 처음 듣는 소리” 라며 일축했다. 상임집행위원이며 작품심사위원이었던 염인택은 완전 도용이 아니고 일본 것도 따지고 보면 서양에서 빌어온 것들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덧붙여 “사실 나도 외국에서 보고 경험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현실적인 여건을 참작했다. 그런 작품이 나옴으로써 한국도 외국처럼 개선되지 않겠는가?” 라고 인터뷰했고, 결국 디자인 심사의 초점이 탄 데로 간다는 심사 공정성까지 비판받았다.<sup>142)</sup>

또한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디자인전이 개최되기까지는 공예인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서술했다. 특히 그 선두에는 국전 공예부 심사위원 출신자인 이순석이 있었다. 초기 1 회부터 5 회까지 이순석 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서울대 중심의 심사위원들로 구성되면서 대학전시전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개최 당시 추천 작가와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디자인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대학교육에서 진보적인 디자인 교육을 맡아 왔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sup>143)</sup>(표 7) 이들은 각 대학의 디자인 전공 학생들에게 응모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sup>144)</sup> 그 결과 서울대 출신들이 대거 수상하면서(표 3) 심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전람회 운영방식에 대해 디자인계를 비롯하여 언론에 질타를 받게 된다. 산업디자이너 김창근은 디자인 개선을 위해 산업디자인전 및 공예디자인연구소 설치의 마침내 한국에서도 산업미술운동이 본격화되는가 싶어 반가운 소식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고 지적한다. 산업디자인전의 개최 의도는 수출 진흥을 목표로 국내 산업시설 및 기술진과 협력하

---

142) “외국 것 본뜬 것”, 『경향신문』, 1966.8.10.

143) 정시화, 앞의 책, pp. 61-62.

144) 초기에는 일반인들도 참여했지만 이후에는 디자인 전공자가 주로 출품하였다. 김중균, 앞의 책, pp. 183-185.

여 상품 혹은 포장을 더욱 아름답게 디자인으로 개량하는 것인데 이곳에 석공예가, 목공예가, 도예가의 순수한 예술작품이 참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국전 공예부를 움직이는 공예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잘못이라 지적했다. 시장성을 무시한 디자인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까 모르나 산업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많은 자극과 연구의 길을 터 주는 장이 되어야 하므로 기술자나 디자이너가 기업과 더불어 개선 시킨 미와 기능의 디자인이 출품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미술대학의 학생을 동원한 학생작품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sup>145)</sup>

이사장	부이사장		심사위원장	부심사위원장
이낙선	한홍택, 민철홍		이순석	한홍택
미술계심사위원			산업계심사위원	
제 1 부 상업미술	제 2 부 공예미술	제 3 부 공업미술	권기성, 김희곤, 심선환, 유형근, 이병언, 이창주, 홍건모, 김입삼, 신오식, 오원철, 육평수, 이은복	
김교만, 염인택 조영제, 조병덕	권순형 백태원 백태호	박대순 한도룡		

(표 7) 제 1 회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명단<sup>146)</sup>

145) “한국의 산업미술운동”, 『경향신문』, 1968.08.21.

146)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 1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 (서울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66).

반면 제 2 회전에서도 또 한 번의 모방 논쟁이 불거졌다. 염인택이 디자인한 산업디자인전 행사 포스터가 일본인 가메쿠라 유사쿠(龜倉雄策)의 포스터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는 칼럼이 경향신문에 실려 논란을 빚었다.<sup>147)</sup>

“<상공미전에 일언 한다. 나라 망신… 이번엔 외국인 작품 도용의 포스터를 사용> 작년 제 1 회 상공미술전에서 대통령상 입상작이 외국 것의 모방이라고 해서 크게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다. 그런데 또 이번 제 2 회 상공미전의 개막 포스터를 1966 년도 일본 광고미술년감에 수록된 일본인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 사용했다. 참으로 창피하고 개탄할 일이다. 그런 포스터로 모방이 아닌 창조적 디자인을 공모한다는 이 정부 행사는 그 밖에 여러 가지 부당한 모순점을 갖고 있다. (생략)”

칼럼에서 지적하는 부당한 점은 심사위원 구성에 관한 것이다. 국전 공예부 심사위원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면서, 상공업계의 실무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타락처럼 여기는 시대착오의 감각을 탈피하지 못했던 자들이 국전 공예부 심사위원 가운데 많았는데 그들이 산업디자인전의 공예미술부 심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지적하였다. 덧붙여 스승과 제자 간의 무리를 이루어 사회 공익과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국가건설 및 산업발전에 미치는 중요한 정부 행사인 만큼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48)</sup>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초기 산업디자인전의 특선 이상 수상자들은 서울대 출신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1 회부터 5 회까지 이순석이 심사위원장으로 역임할 때까지 상위권 수상자는 대부분이 서울대 재학생이나 졸

---

147) 김중균, 앞의 논문, p. 207.

148) “상공미전에 일언한다”, 『경향신문』, 1967. 08.26.

업생이었다.

초반기 산업디자인전의 심사기준은 방향성을 잃었다.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산업디자인전은 산학 일체의 표본으로 수출 상품 및 국내 디자인 개량을 목표로 설립하였고, 제품의 품질 향상으로 수출 증진을 기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지만 제 1 회부터 대통령상에는 수출과 관련이 없는 공업디자인이 아닌 그래픽디자인인 <서울역색채계획>이 뽑혔다. 양산의 가능성과 수출 가능성에 중점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산업디자인전의 심사방식인데 컨셉에 중점을 뒤서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매년 논쟁이 있었다.<sup>149)</sup>

매회 나름대로 적지 않은 논쟁과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 요청이 제기되었다. 그 논쟁은 산업디자인전 성격에 관련된 것으로 산업디자인전이 창작품 전시회의 성격인가 아니면, 실용화가 가능한 작품의 전시회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였다.

하지만 산업디자인전은 그 횡수가 거듭됨에 따라 디자이너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프로세스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디자인과 비즈니스의 협동적 분위기 조성 및 산학간의 유대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산업디자인전의 의의와 위치는 한국 디자인 역사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되었다. 1960-70년대 산업디자인전은 한국디자인의 발전사이며 산업입국과 수출 증대를 국책으로 추진하여 온 한국의 산업,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성장의 지표였다.

6 회에 접어들면서 산업디자인전은 전반적으로 산업디자인전의 목적에 합당하고 질적으로도 괄목할 만큼 향상되어갔다. 수출과 직결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창출되었고 제작 방향도 생산과 직결될 수 있게 현대화된 작품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공예미술부는 스스로 미술적 경지를 벗어나 실용 과학

---

149) 김종균, 앞의 논문, pp. 212-213; “외국 것 본뜬 것”, 『경향신문』, 1966.8.10.

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모호해진 정체성에 여전히 흔들려 있는 듯하였다. 제 6 회 산업디자인전 공예미술부 심사 위원회 위원장 백태원이 공예미술 부문 출품작을 평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공예미술부는 출품 작품 실용화와 전통예술에 대한 양극의 문제가 있었다. 그는 제 5 회 산업디자인전만 하여도 방향 설정을 모색하던 형상이 없었는데, 제 6 회 부터는 작가들이 현 시점에서 국가적 견지에서 산업계의 공예가로서 무엇을 어떻게 상품으로 제시를 해야 하며,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대처하는 것이 느껴지지만 작가로서 창안 의지 전달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작품’ 으로 정초를 굳혀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의 창작 의욕을 어떻게 집약하여 산업화하고 수출계로 연결하여 신장시켜 갈 것인지 과제로 남는다고 평가했다.<sup>150)</sup>

과연 이 문제의 원인은 산업계 공예가들(출품자)에게 있는 것인지 심도있게 파악해 보아야 한다. 당시 한국의 공예디자인과 공업디자인계를 주도하는 인사들이 대부분 국전에서 활동하던 공예인들이라는 것은 앞 장에서 언급했다. 이들에 의해 산업계 공예가들은 학교에서 교육 받고 전람회에서 심사받는 것은 사실이다. 국전 공예의 성격과 산업디자인전의 방향이 다름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공예 하면 ‘전통’, ‘전통미’ 를 잊지 않고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예술가가 창작하는 전통공예품 또는 미술공예품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님 실용성을 장착한 제품화 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현대적 디자인의 개념이 머리에 인식된 당시 진보적 성향이라 표현할 수 있는 공예가들에게는 혼동되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된다.<sup>151)</sup> 당시 한국

150) 「제 6 회 상공미술전람회 심사평」, 『디자인·포장』 vol.2 no.3(1971), pp. 1-3.

151) 1969년 8월 한국수출디자인센터 기관지인 『계간디자인』에 당시 센터장이었던 이순석은 권두언에 다음과 같이 썼다. “이는 온 세계에 자랑할 민족의 숨씨이며 빛나는 전통이다.(석굴암 다보탑, 고려 청자, 이조 백자, 가구, 목기를 앞서 언급하며)”, “전통의 계승 발전은 공예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시

공예는 전통적인 귀족공예의 전통미를 바탕으로 현대화되고 있었지만, 전통적 개념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디자인의 개념과 구별하려는 시류였다.<sup>152)</sup> 그 결과 공예미술 부문에서는 1 회부터 7 회까지 대통령상을 수상하지 못했다. 이 연구의 해당 범위인 제 1 회에서 15 회까지 공예미술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회차는 8 회와 13 회가 전부이다.

---

대적 요청이다.”, “디자인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전통미를 오늘의 시대 감각으로 새로이 되살리며 나아가 현대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공예미를 창조(생략)” 이순석, 「권두언」, 『계간디자인』 vol.1(1969), p. 9.

<sup>152)</sup> 정시화, 「디자인의 당면과제」, 『계간디자인』 vol.3(1969), pp. 29-30.

## 2.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출범과 개혁

제 6 회부터는 주관 기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디자인센터의 중점 사업으로 이관되었다. 새로운 부처가 산업디자인을 주관함에 따라 그동안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가 조금씩 부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한다. 1971년 6월 5일 국립공보관에서 제 6 회를 맞이하며 응모요강에 출품작품의 규격을 지정하고 엄격히 제한했다. 그리고 1부 상업미술 부문을 디자인 매체별로 평면과 입체로 분리하였다. 포장 부문에서는 수출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용 포장디자인에 주도적으로 활력을 제공하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디자인센터를 방문하여 관심을 나타낸바 있다. 이것을 계기로 포장디자인 부문이 더욱 강화되었고 그 결과 1971년도부터는 한국포장대전을 시행하여, 아카데미한 풍조의 산업디자인전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포장디자인 개선에 나섰다. 한국포장대전의 목적은 “유통상품의 포장개선을 유도하고 포장개발의 의욕을 조성하며, 우수포장 및 개선대상 포장을 비교 전시함으로써 포장기술의 개선 향상과 물적 유통의 혁신”으로 본 전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제관례에 준한 행사로 시행시키기 위해 ‘콘테스트’와 ‘전시회’로 구분하여 실시했다.<sup>153)</sup> 한국포장대전은 관람자가 포장이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며, 포장개선의 중요성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전시를 구상했다. 관람객이 몰려 전시가 연장되는 대성황을 이룬 반면, 우수한 작품은 많지 않았다.<sup>154)</sup>

산업디자인전은 지방순회전시를 시작했다. 비록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공미전 수상작을 기업체와 연관하여 양산품으로 생산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제 6 회부터는 수출과 직결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창출되었고, 다양

---

153) 「71' 한국포장대전」, 『디자인·포장』 vol.2 no.5(1971), p. 18.

154) 「71' 한국포장대전」, 『디자인·포장』 vol.2 no.5(1971), pp. 19-20.

한 재료 선택과 수요자 기호와 용도의 다목적 기능은 작품의 수준 향상을 뒷받침해 주고 있었다.<sup>155)</sup> 특히 제 6 회 대통령상 수상작인 신용태의 <건전복 수출을 위한 재료별 포장 계획>(도판 34)은 일본, 동남아 등 수출 지역별 기호에 알맞은 포장 재료에 한국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받았다. 상대국 기호에 알맞은 자연재료와 인공재료를 이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자연재료로 나무와 대나무를 사용하여 토산물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려 했고, 인공재료로 종이와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대량생산과 기계생산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sup>156)</sup> 국무총리상 수상작인 박진홍의 <서양 장기>(도판 35)는 기하학적 형태로 디자인된 고가 상품으로 그 성격에서부터 수출을 목적으로 한 작품이다. 그는 서양인들의 생활에 맞추어 호화롭고 고상한 고급품을 만들었다고 평가받았다.<sup>157)</sup> <건전복 수출을 위한 재료별 포장 계획>과 <서양 장기>는 ‘국제성’을 위해 서구적인 양식을 모방한 형태로 세계시장에서 국내 산업디자인의 역량 있는 제품으로 산업발전을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지만 그 형태적 요소는 민족주의와 국제적 양식에 치중한 이분법적 한계점을 드러낸다는 평가도 있다.<sup>158)</sup>

제 7 회 산업디자인전은 1972년 4월 17일 경복궁 안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한국포장대전도 처음으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하며 수출 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주관하는 측은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개발이 해외시장개척과 수출상품의 치열한 판매 경쟁에 있어서 침병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수출 진흥에 직접적인 발전을 위해 행사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sup>159)</sup> 총 응모 작품 수는 작년의 약 2 배가

---

155) “높아진 수출 창의력·재료 선택 수준향상 된 상공미전”, 『경향신문』, 1971.06.07  
 156)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6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69).  
 157)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6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69).  
 158) 장보람, 앞의 논문, pp. 50-51.

되는 2,383 점이 출품되었다. 각 부문으로는 공예미술 부문이 1,222 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제 1 부 상업미술 부문은 832 점, 제 3 부 공업미술 부문은 329 점이 출품되었다. 그중 956 점이 전시되었다. 이번 산업디자인전의 특징은 재학생의 출품이 전체 출품 수의 9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7 회에는 재학생과 기업체 디자이너의 작품이 거의 같은 비율로 출품되었고, 일반인도 다수 출품했다. 특히 기업체 디자이너의 참여도가 높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만 출품되던 것이 전국에서 출품되는 등 참여도가 광범위해졌다.<sup>160)</sup> 작품 내용에서는 부문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탁월한 기법의 구사로 실용화에 직결될 수 있는 작품이 많았다. 특히 지난 회까지 극히 부진했던 공업미술부문에서 출품 수 329 점에서 121 점이 출품되었고, 내용도 다양한 작품이 많이 출품되었다. 작품 채점에서 창의성, 시장성, 양산성에 중점을 두어 생산업계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들의 입상이 많아졌다. 반면 상업미술부문은 다양하게 설정한 매체분류에도 불구하고 거의 포장과 포스터에 집약된 경향이었다.<sup>161)</sup> 전시측은 비로소 산업디자인전이 갖춰야 할 본래의 성격을 여실히 부각해 준 큰 수확이었다고 평가했다.<sup>162)</sup>

제 7 회 대통령상은 3 부 공업미술 부문에서 이건(28 세, 덕성화학공업주식회사)의 <개폐식 간이식탁>(도판 36)이 수상했다. 기능적인 생활 용구로 합성수지를 재료로 써서 저렴한 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용 용기로 사용할 수도 있어 시장성이 높은 작품으로 평가했다. 이건은 항상 무언가에 열중한다는 것은 반복되는 생활 속에 차분히 자기를 형성해가는 작업이라 생각하고, 반복되는 생활 속에 변화를 찾으려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 속에서 인간의 창

159)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포장』 vol.3 no.3(1972), p. 24.

160)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포장』 vol.3 no.3(1972), p. 24.

161)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포장』 vol.3 no.2(1972), p. 18.

162)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포장』 vol.3 no.3(1972), p. 24.

조적인 자세를 기대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sup>163)</sup>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안정언(스튜디오에이스社)의 <굴의 알루미늄 포장>(도판 37)은 당시 한국에서 사용 빈도가 낮고 개발의 여지가 많은 알루미늄을 재료로 써서 굴을 수출하기 위한 포장 용기를 디자인 했다. 안정언은 내용물의 성질에 맞게 효과적으로 구사했는데, 굴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그 자체에 관심을 두었고 재료 선택 또한 탁월했다.<sup>164)</sup> 또한 패키지에 그려진 ‘굴’ 타이포그래피는 붓글씨 느낌으로 한국적인 요소를 디자인에 녹아 넣었다. 국무총리상 수상 작품인 서갑주(서라벌예대 3년)의 <춧대>(도판 38)는 목재를 소재로 칠 가공에 금속을 사용하였고, 나선형 계단을 연상시키는 조직적 배열로 입체감과 운율감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색조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했다. 경제기획원장관상은 박상우의 <완구를 겸한 용접세트>, 상공부장관상은 고춘혜의 <수출용 야구공포스터>, 김재영의 <펜접시 한 쌍과 종이 칼>, 박영춘의 <커피 세트 디자인>, 문교부장관상은 김진평의 <카메라 포스터>,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상은 고을한의 <휴대용 트랜지스터 라디오>(도판 39) 총 9 개가 입상했다.<sup>165)</sup>

제 7 회는 4 월 30 일에 서울에서 전시회를 끝내고 5, 6 월에 걸쳐 대전, 전주, 부산, 대구 등 4 개 도시를 이동하며 지방순회전시를 열었다.<sup>166)</sup> 디자인과 포장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계몽하기 위해 디자인과 포장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sup>167)</sup>하는 등 지방전시도 좋은 평가를 받고 흥행도 또한 높았다.<sup>168)</sup> 또한 산업디자인전은 지난 6 회 때까지는 전혀 없었던 우수작품들의 실용화 추진을 활발히 추진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34 개의 우수작품에

163)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포장』 vol.3 no.3(1972), p. 23.

164) 장보람, 앞의 논문, p. 52.

165)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포장』 vol.3 no.2(1972), pp. 18-19.

166) 전시장소 관계로 한국포장대전은 전시하지 않았다.

167)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포장』 vol.3 no.3(1972), p. 25.

168) “관람객 14 만명 상공미전에 인기”, 『매일경제』, 1972.05.09.

대한 업계의 활용 요청이 밀려들어 출품자와 신청자 간에 실용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 교섭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그중 요청이 가장 많은 작품은 <촛대>로 태인상사가 요청하고, <굴의 알루미늄 포장>은 수협과 삼원식품의 요청이 겹쳤고, 한국정밀기기센터에서는 <휴대용 트랜지스터 라디오>, <수출을 위한 소형 TV 디자인>의 개발을 요청하고, <커피 세트 디자인>은 중앙도자기가 요청했다. 7회는 이전 전시보다 기업체의 디자이너 참가가 활발했고 질적인 면에서 수준들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수출 상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커졌다.<sup>169)</sup>

제 8회 산업디자인전은 1973년 6월 1일 경북궁 안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하였다.(도판 40) 총 698종 2,134점이 출품되었으며 289종 1,091점을 전시하였다.<sup>170)</sup> 박대통령은 개최식에 참석하여 이낙선 상공부장관과 장성환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에게 디자인과 포장 개발에 더욱 힘써서 국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전했다.<sup>171)</sup>(도판 41) 디자인포장센터는 실용화할 수 있는 작품을 우선 선정하기로 하고 3개월 이내에 실용화에 착수하는 심사 규정으로 변경하였다. 심사위원도 산업계와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sup>172)</sup>

제 8회 대통령상은 2부 공예미술 부문에서 박인숙의 <장식을 겸한 병따개와 조미료통>(도판 42) 수상했다. 산업디자인전이 개최된 후 처음으로 공예미술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작품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다양해지고, 가공의 색조는 여러 환경에 적응하도록 디자인했다. 또한 선택한 자재 기술은 종합적으로 처리되었고 무엇보다 제작하는 과정이 쉽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므로 수출 가능성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169) “7회 상공미술전 출품작중 34개 우수품 실용화 추진”, 『매일경제』, 1972.5.30.

170) “제 8회 상공미전 지상전”, 『매일경제』, 1973.06.04.

171) “박대통령, 상공미전서 당부 ‘포장 개발 힘써 경쟁 승리’”, 『경향신문』, 1973.06.01.

172) “실용화작품 우선 선정 상공미전 심사기준 마련”, 『매일경제』, 1973.05.24.

국무총리상은 고을한의 <전자라이터 디자인연구>, 경제기획원장관상(부총리상)은 김인철의 <대한항공 포스터>, 상공부장관상은 최선순의 <촛대 겸 재떨이>, 김순성의 <밤의 수출상품화에 따르는 포장계획>, 정주훈의 <부엌이 저금통>, 문교부장관상은 윤학중의 <AB 벨튼건축 포스터>,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이사장상 박상우의 <냅킨 홀더세트와 조미료세트 8 조>,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정경원의 <투명시계>, 한국무역협회회장상 이병구의 <잠자리 온도계> 등이 수상하였다. 아이디어 넘치는 작품들이 많았다. <투명시계> (도판 43)는 전통적인 가시성을 유지하면서 구조적인 기능을 시계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색다른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내부에 조명을 장치하여 회전판의 바늘 눈금에 투영시켜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작품이다.<sup>173)</sup> 상공부장관상을 수상한 최선순의 <촛대 겸 재떨이>(도판 44)는 촛대와 재떨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강조한 제품으로 흡연자들을 위한 재떨이의 기능과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재떨이를 만들었다.

제 8 회 출품작은 해를 거듭할수록 출품작들의 질적 향상이 나타났으나, 내용에 따라 부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소재를 택하는 경향이 단순했다. 그러기에 새로운 각도에서 합리적이고 조형적으로 완숙한 작품이 많이 출품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sup>174)</sup>

제 9 회 산업디자인전은 1974년 6월 15일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막하여 총 3,003 점이 출품되었고, 그중 입상 135 점, 특선 272 점, 입선 772 점 등 모두 1,709 점이 전시되었다. 응모작품수가 8 회에 비해 30% 이상 늘어났으나 디자인상의 매체 선정 문제와 재료와 기능 문제 및 과학적인 요인 문제 등에 여전히 결함이 있으며 소재의 편중된 공모 경향도 지적되었

---

173) “투명시계 상의회장상 정경원작”, 『매일경제』, 1973.06.04;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 8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3).

174)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 8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3).

다.<sup>175)</sup> 전시기간 중 관람자는 일반인, 학생, 외국인 등을 합쳐 모두 75,459 명이 다녀가 산업디자인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통령상은 고을한의 <가정용 패널 히트 디자인 연구>를 비롯하여 국무총리상 수상작품 <시계를 겸한 전자계산기> 등 10 여 종에 대하여 업체에서 실용화할 것을 확정 또는 추천협의 중에 있는 산업디자인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176)</sup>

대통령상을 수상한 3부 공업미술 부문 <가정용 패널 히트 디자인 연구>는 에너지 파동 이후에 난방기구 문제를 적절히 시대감각에 맞게 선택한 주제였다. 재질에 있어서도 유리판의 투명성을 살려 실내의 장식효과를 감안하였으며, 보통 열도선이 아닌 특수열소자를 이용한 열효율이 높은 난방기로 자동조절이 가능하게 제작되었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홍성주의 <시계를 겸한 전자계산기>는 숫자판에 30°의 경사를 주어 시각적으로 판독하기 쉽게 설계된 탁상용 계산기지만 시계로도 겸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뛰어난 작품이다.<sup>177)</sup> 그리고 이번 전람회에서는 추천작가 부문에 시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제 10 회 산업디자인전은 추천작가 시상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산업디자인전의 성격 정착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동안 산업계의 관심을 모으지 못했던 우량디자인상품 부문을 폐지하고 한국포장대전을 유치하여 공모 작품과 비교 전시해 산업계와 디자인계를 연결시키려 했다. 전시는 1975년 6월 5일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상업미술 부문 342 점, 공예미술 부문 399 점, 공업미술 부문 157 점 총 241 종에 898 점이 전시되고 추천작가 작품 78 점과 우수디자인 창조출품작 144 점, 심사위원작품 10 점

---

175) “대통령상 가정용 패널히터디자인 연구”, 『매일경제』, 1974.06.15.

176) 「제 9 회 상공미전 행사현황」, 『디자인·포장』 vol.5 no.2(1974), pp. 24-25.

177) 「제 9 회 상공미전 행사현황」, 『디자인·포장』 vol.5 no.2(1974), pp. 22-23.

도 전시되었다.<sup>178)</sup>

제 10 회 대통령상은 1 부 상업미술 부문에서 김순성(28 세, 디자인포장센터연구원)의 <전자제품 시리즈의 포장디자인 표준화 제안>(도판 45)이 수상했다. 기업이미지를 잘 살려 패턴을 전자기억장치의 테이프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했고, 형태, 색채 등도 경쟁 상품과 선명히 구별되도록 하여 구매욕을 자극한다. 국무총리상은 홍성수(28 세, 삼성전자디자이너)의 <전자시계겸용 전자저울>(도판 46)가 수상했다. 이 작품은 귀금속이나 소품을 판매하는 점포 또는 주방에서 금붙이나 식품 등의 중량을 간단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저울과 시계겸용품이다. 전자제품디자인의 주요착안점인 생활면과 경제면을 고려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시장성이 있다.<sup>179)</sup> 그 외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상은 윤근(학생)의 <탁상용구>, 상공부장관상은 고배홍(연합광고연구원)의 <한국 봉밀 수출포장계획>, 홍경희(홍대응용미술과)의 <토기를 이용한 장신구>, 박중서(대한전선 상품개발과사원)의 <포터블디지털 TV>, 문교부장관상은 신영옥(홍대대학원생)의 <수직 모포>,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이사장상은 황용식(홍대생)의 <수출용 코피세트디자인>, 한국무역협회장상은 정기영(중앙대생)의 <조립식썰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은 현용순(학생)의 <총화단결포스터> 등이 수상했다.

---

178) “대통령상에 -포장디자인 표준화- 제 10 회 상공미전 개막”, 『동아일보』, 1975.06.03.

179)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 10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3); “상공미전 지상 소개”, 『매일경제』, 1975.06.05.

## V.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제도의 정착 발전

### 1. 정규 제도 확립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급속한 산업 구조의 변화와 공업 입국으로의 수출 증대라는 국가 정책에서 산업디자인전의 성격이 뚜렷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산업디자인전 초기에는 학생층의 출품이 주로 많았지만, 시대적 사조에 따라 일류 디자이너의 참여도와 관심도가 높아졌다. 제 6 회부터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주관함에 따라 그동안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가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 그 중 제 1 부 상업미술부문을 평면과 입체로 분리 시행하여 그 결과 포장부문에서 디자이너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sup>180)</sup>

이후 1976 년 9 월 18 일에 대통령령 제 8249 호로 ‘대한민국 상공 미술 전람회 규정중 개정령’ 이 발표되면서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가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으로 명칭이 바뀐다. 미술과 과학의 가교적 역할로서 광범위한 종합 과학적인 면모를 갖추게 된다.<sup>181)</sup> 전람회의 개칭과 더불어 3 개 부문은 1 부 시각디자인, 2 부 공예디자인, 3 부 공업디자인으로 용어가 개칭되었으며, 그 이후 15 회부터는 산업디자인에는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으로 대분류한다는 원칙하에 시각디자인, 공예, 제품 및 환경디자인의 3 부로 다시 개칭된다.<sup>182)</sup> 일부 규정도 개정된다. 1970 년대 후반부터는 심사위원 선정 방식은 비밀투표제에서 임명제로 바뀌고, 추천작가와 비전문가들도 심사에 참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sup>183)</sup>

---

180) 하용훈, 앞의 논문, pp. 19-22.

181) 「한국디자인의 좌표」, 『디자인·포장』 vol.8 no.2(1977), pp. 32-33.

182)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포장10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80), p.115 참조.

183) 김종균, 앞의 책, p. 185.

## 2. 산업디자인의 융성

제 11 회 산업디자인전은 1976년 6월 4일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된 3,706 점 중 입상 67 점, 특선 159 점, 입선 738 점 등 모두 964 점의 일반작품과 추천작가작품·심사위원작품·우수디자인작품 등을 포함한 총 1,281 점이 전시되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 김희덕은 수출상품고급화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해온 산업디자인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작품의 실용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sup>184)</sup> 그동안 출품작을 직접 실용화하는 것에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실용화에 보다 중점을 둔 전시로 변화해 갔다.

제 11 회 대통령상은 공업미술 부문에서 홍성수(삼성전자)의 <스테레오 카세트 겸용 컴퓨터 캘린더 시계>(도판 47)가 수상했다. 이 작품은 운반하기 간편하고 복합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사용할 때 분리와 조합이 가능하며 복잡한 생활환경 속에서의 여러가지 목적을 단일화 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수출 유망 품목으로서 현대 감각을 살린 작품이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조승래(두산산업)의 <크리스탈포장>(도판 48)은 종이 포장으로서 특수 상품의 고급화를 시도한 점과 규격화를 시도한 점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작품이었다. 표면의 사진기법을 이용한 효과는 적절했다. 그 외 경제기획원장관상은 이병학(금성사)의 <금전등록기>, 상공부장관상은 신영옥(동덕여대강사)의 <식탁용세트와 냅킨세트>, 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상은 민병혜(디자인포장센터)의 <야외용 세트>, 상공회의소장상은 김준형의 <사랑방 세트>, 무협회장상은 홍경희의 <종이를 이용한 장신구>, 전경련회장상은 이천일의 <가스미터기>, 중소기업회장상은 정영중의 <해외용캘린더디자인>, 대회장상은 김교만의 <카세트레코드> 등이 수상하였다.<sup>185)</sup>

---

184) “출품작 실용화에 중점 상공미전 운용개선안마련”, 『매일경제』, 1976.07.16.

제 12 회 산업디자인전부터는 명칭이 바뀌었다. 산업디자인전 규정이 대통령령 제 8249 호에 의거하여 1976 년 9 월 18 일에 개정 고시함으로써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에서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sup>186)</sup> 출품 부문 명칭도 변경되었는데 1 부 상업미술은 시각디자인으로 2 부 공예미술은 공예디자인으로 3 부 공업미술은 제품디자인으로 변화했다. 디자인이 미술의 한 속성으로만 생각되기 일췌였던 기존의 관념을 깨고 한국의 디자인계가 본연의 영역과 임무를 재인식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sup>187)</sup>

총 응모 작품 수는 1,573 점으로 미술 대학 학생층의 출품에서 양적으로 줄었으나 기성 디자이너로 압축되어 우수작들이 더욱 많아졌다. 심사 과정에서도 예년과 달리 엄격한 선정을 거쳐 수준작을 넘어선 우수작을 입선작으로 선정했다. 제 12 회 대통령상은 공업디자인 부문에서 민병혜의 <포터블 전자 미싱>(도판 49)이 수상했다. 약 4 개월간의 연구 작업 끝에 완성된 미싱기는 혼수용 불박이식의 가구개념에서 탈피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생활면과 경제면 등에 착안점을 두어 다각도의 기능을 종합하였고, 재봉틀로서의 기능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디자인했다. 단조로운 형태미에 무리 없이 모델화한 작품이다.<sup>188)</sup> 반면 2 부 공예미술 부문은 출품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총 173 종이 출품되었는데, 입선 79 종과 특선 15 종 중 수상작은 3 종 뿐이었다. 심사위원 측은 출품수가 줄어든 반면 재료와 기교의 향상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

185)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 11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 (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6).

186) 「상공미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로 개칭, -대통령령 제 8,249 호로 개정공고-」, 『디자인·포장』 vol.7 no.5(1976), p. 141.

187)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 12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 (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7).

188) “12 회 산업디자인전 개막 2 백 32 종 9 백점 전시”, 『매일경제』, 1977.10.04.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상은 이외주의 <병따개 겸 벽장식>(도판 50)이 수상했다. 소품의 나열이지만 병따개로서 정교한 처리와 금속과 나무 재료의 구사가 좋았고, 오프너의 손잡이를 볼륨 있게 제작하여 낙화문양을 그려 넣어 병따개의 용도보다 장식용으로서의 멋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다. 한국무역협회회장상은 홍경희의 <단추 세트>(도판 51)로 흙 재료에서 오는 소박함을 단추에 그대로 옮겼으며 단순한 형태와 색상이 풍기는 품위는 수출용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sup>189)</sup>

제 13 회 산업디자인전은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대전시관에서 열렸다. 산업디자인전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두 번째 열린 13 회의 총출품수는 646 종, 1,748 점으로 작년에 비해 제 1 부 시각디자인이부나 제 2 부 공예디자인부에서는 많은 증가를 보였으나, 제 3 부 공업디자인부에서는 학생들의 작품이 많이 줄어든 대신에 현역 디자이너들의 출품이 대부분인 것은 공업디자이너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sup>190)</sup> 입상작품의 70%가 산업계 출품작이라는 것이 제 12 회의 특징으로 평가되었다.<sup>191)</sup>

제 13 회 대통령상은 2 부 공예디자인 부문에서 박성우의 <수출용책상용구>(도판 52)가 수상했다. 이 작품은 한국의 전통공예인 목칠을 바탕으로 현대 감각에 맞는 기하학적인 단순한 형태로 정리하였다. 주재료인 목재 본연의 재질감과 칠의 특성을 살려 하나의 포장으로 수납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작품의 기능적 특징은 책꽂이, 메모꽂이, 명함꽂이, 담배함, 재떨이, 문진, 펜 그릇, 펜 접시, 스탬프, 인주통 등의 독립성을 가진 다양한 용기가 배열되어있다. 박성우는 제작비는 4 만원이 들었는데 앞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경우 소비자 가격은 1 만원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sup>192)</sup> 그 외

189)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 12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7); 「종합심사평」, 『디자인·포장』 vol.8 no.5(1977), p. 21.

190) 「산업계의 참여 두드러져」, 『디자인·포장』 vol.9 no.3(1978), p. 26.

191) “산업디자인전 대통령상 수출용 책상용구 세트”, 『매일경제』, 1978.05.30.

국무총리상은 신용호(한양대학원)의 <관광포스터>,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상은 지해천(조선대강사)의 <비디오카세트카메라>, 상공부장관상은 임창영(서울대미대)의 <조명기구>,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이사장상은 장병석의 <기아혼다포스터>,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이영재(국제전광사디자이너)의 <다각용 가스레인지>, 한국무역협회회장상은 장미연(이대미대장식미술과)의 <테이블메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상은 백명진(서울대미대)의 <호루겔캘린더>, 중소기업중앙회회장상은 서길용(광주조대조교수)의 <다기 쌍>, 대회장상은 이건(인덕전문교교수)의 <디지털카운터> 등이 수상하였다.<sup>193)</sup>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이사장상을 받은 <기아혼다포스터>(도판 53)는 화면의 구도나 계층 변화의 색채 변화와 거기에서 풍기는 속도감이 느껴지는 작품이다.<sup>194)</sup> 국무총리상을 받은 신용호(한양대학원)의 <관광포스터>(도판 54)는 한국관광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복주머니를 이용해 표현했다. 작품 속의 복주머니는 한국의 미와 멋을 가득 채운 듯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제 3 부 공업 디자인부는 산업 디자인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에 비해 출품수가 줄어 82 종이 출품되었고 이 중에서 45 종이 입선되어, 특선 12 종과 입상은 3 종이 수상했다. 수상 작을 보면 상공부장관상인 <조명기구>(도판 55)는 소재를 종이로 하여 접을 수 있게 한 기능적 구조나 작은 공간으로 포장 수납할 수 있는 구조 등은 종이가 보여 주는 구상적·미적 형태와 저렴한 가격이 가능한 재료의 선택으로 평가 받았다.

192) 「입상자와의 대화 - 대통령상 수상자 박성우 인터뷰」, 『디자인·포장』 vol.9 no.3(1978), pp. 29-30.

193)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 13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 (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8).

194) 『디자인·포장』 vol.9 no.5(1978),에서는 집중기획으로 「한국의 자동차 공업 디자인」을 보도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자동차 산업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인 디자인 개발 역시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 자동차의 형태 연구나 스타일의 현대화 및 수출 승용차의 시장성 등을 보도하였다. 「집중 기획- 한국의 자동차 공업 디자인」, 『디자인·포장』 vol.9 no.5(1978), pp. 9-50.

제 14 회 산업디자인전은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에서 개최하여 317 점의 입선작품이 전시되었다. 10 개의 입상작품과 일반작품은 시각디자인부 94 점 공예디자인부 85 점 제품디자인부 75 점 총 254 점, 50 점의 추천작가작품, 13 점의 초대작가작품이 전시되었다.<sup>195)</sup>

대통령상은 3 부 제품디자인 부문에서 정국현(삼성전자)의 <확성기기>(도판 56)가 수상했다. 작품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공간의 넓고 좁음에 구애 없이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으며, 한 형태 안에 스피커와 앰프를 설치하여 작동하기에 간편하게 설계되었다. 스피커 부문의 조립 여하로서 음의 방향과 확산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과 미적 요소의 겸비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1976 년 제 11 회 산업디자인전에서 삼성전자는 <스테레오 카세트 겸용 컴퓨터 캘린더>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sup>196)</sup> 상공부장관상을 수상한 김판수의 <실내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놀이 기구>(도판 57)는 좁은 공간에서도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간편한 기구로서 두셋을 연결시켜 운동 범위를 다양하게 변화시킨 점은 현대 주택 공간에 잘 적응되는 작품이다. 재료나 제작비에 구애 없이 실용화에 가능한 작품이라고 평할 수 있다. 시각디자인 부문에서 포장디자인 부류에서는 전자제품의 활성화로 인하여 부산물로 해석되는 건전지의 포장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다.<sup>197)</sup>

제 15 회 산업디자인전은 시각디자인부문 80 점, 공예디자인부문 80 점, 제품·환경디자인부문 73 점과 초대작가 작품 8 점, 추천작가작품 43 점 등 모두 285 점이 전시되었다. 출품 수는 14 회에 비해 평균 20%의 증가했다. 제 1 부 시각디자인 부문에서는 작년에 비해 출품 수는 증가했지만 새로운 창작 의도는 다소 결여된 작품이 많았다. 새로운 가능성의 추구하고 표현보다

---

195) “총 317 점 입선 14 회 산업디자인전”, 『매일경제』, 1979.06.08.

196) “산업디자인전 대통령상에 삼성전자”, 『매일경제』, 1979.06.08.

197)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 14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9).

도 기교에만 의존한 듯 한 작품이 많았다. 제 2 부 공예 부문에서는 출품률이 상승하였고, 감상물로서의 미술 공예 성향에서 생활용구로서의 기능과 효율을 지닌 작품들이 많아졌다. 제 3 부 제품 및 환경 디자인 부문에서는 출품 수에 있어서 산업 디자인 인구와 제작의 어려움 등으로 늘 하위권에 있었지만 15 회에서는 출품 수도 상승하고 작품의 질도 높아졌다.(도판 58)

제 15 회 대통령상은 3 부 제품 및 환경 부문에서 이영재(천안공업전문대학 도안강사, 홍대졸)의 <충전식 자동 살 분무기>(도판 59)가 수상했다. 농촌에서의 당면 문제인 농약 살포기를 보다 기동적이고 효율적이며 사용자의 위생적 측면 등 세심한 곳까지 고려했다.<sup>198)</sup> 국무총리상은 조종현의 <금사랑 포스터>(도판 60)가 수상했다. 흰 여백을 살린 레이아웃과 세련된 색채 구현해낸 작품으로 포스터의 새로운 가능성을 수작으로 평가했다.

시대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디자인전의 효율적인 운영방침이 수시로 수정이 되어야만 현대 사회 안에 존재할 수 있듯 디자인의 이념과 범위도 현대사회에서 항시 변해 가고 있었다. 초기 1960 년대의 산업디자인전의 출품작품들은 작품의 실용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비실용적인 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960 년대 산업디자인전은 순수미술의 맥락인 ‘새로운 공예미’에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심사위원들과 ‘미술수출’이라는 구호로 오로지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 한 정부와의 입장은 대립하였다. 하지만 전람회에 관한 성격상의 문제, 제도상의 문제, 실용화의 문제는 매회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산업계와 디자인계가 함께 해결할 숙제로 미뤄져 왔다. 이후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수출 중대라는 국가 정책에서 산업디자인전의 성격은 뚜렷해지기 시작한다.

1970 년대 산업디자인전은 상공미전에서 산업디자인전으로, 제 1 부 상업

---

198)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15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80).

미술부를 시각디자인부로, 제 2 부 공예미술부를 공예디자인부로, 제 3 부 공업미술을 공업디자인부로 개칭함으로써 디자인 이념을 새로이 구축했다. 1970년대 후반은 제 13 회부터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출품되었고, 작품의 디자인 수준이나 경제적 안정이 정착기에 들어섰다.

## VI. 결론

본 논문은 한국 최초의 디자인 관전인 ‘산업디자인전’을 조명하여,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산업디자인전 제도의 영향과 그 역할을 확인하고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는 디자인의 현대적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국 산업디자인의 역사상 가장 주목해야 하는 시기이다. 한국에서 기계에 의해 대량생산되는 산업디자인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역사적 기조는 정부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의 시행에서 동원된 산업디자인전의 디자인 육성 정규 제도 안에 배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 주제인 산업디자인전의 개최는 디자인을 경제발전의 도구로 해석한 정부의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이었다. 수출과 경제발전을 강조하던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 산업디자인은 경제 개발의 도구로서 기능했다. 산업디자인전은 디자인의 제반 활동들이 초창기에 겪는 제도적인 문제들로 인해 성장과정 측면에서 지체되기도 했지만 정부, 학계,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디자이너가 본인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기회를 가지고 사회진출을 공인받을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나갔다. 또한 한국에서 공예와 디자인이 확실한 구분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6년에 산업디자인전이 개최될 당시만 하더라도 디자인의 용어는 해석조차도 미비한 상태로서 출품자에게 출품의 혼선을 가져왔다. 이후 1976년 대통령령 제 8249호로 ‘대한민국 상공 미술 전람회 규정중 개정령’이 발표되면서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가 대한민국산업디자인으로 명칭이 개칭되고, 3개의 출품부분에서도 ‘미술’이 ‘디자인’으로 변경되면서 디자인 용어 확산과 산업디자인 개념이 국내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산업디자인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산업디자인전은 산업 디자인 분야의 정착과 성장을 이룩하였다. 출판사와 주관 및 주무 부서, 산업계간의 유기적이고 밀접한 관계에서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디자인 육성 정규 제도를 마련하여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산업디자인전이 처음부터 세 개의 전문분야로 구분되었던 점은 현대적인디자인 개념으로 변화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이너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출과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졌다. 산업디자인전 초기에는 학생층이 주축을 이루어 신인 디자이너 등용문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이후 현직 디자이너들의 참여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미적, 기능적 시야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반면 정부 수출주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포장디자인 중심의 산업디자인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평면적이고 제한적인 디자인 개념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전은 오로지 ‘미술수출’이라는 국가주의 경제개발의 도구로만 기능하였고, ‘산업’ 중심 디자인 개념으로 고착되어간 디자인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였다.

이상 지난 15년간 산업디자인전을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현상과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여, 산업디자인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은 본 논문의 작은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공예와 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해 미술사의 흐름을 반영하는 또 다른 지표로서 디자인 국전을 검토하는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 논문이 산업디자인전을 파악하는 데 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미술사의 연구영역 확대는 디자인사와는 또 다른 궤적을 그릴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본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교육계 디자이너들의 활동이 후속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산업디자인은 창조적인 사회 활동이며 예술의 또 다른 사회성이다. 후속 연구는 디자인 단체와 디자이너의 활동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함의들을 확인하는 일일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윤수 외, 『한국미술 100 년』, 파주: 한길사, 2006.
- 김종균, 『한국의 디자인』, 파주: 안그라픽스, 2013.
- 김해수, 『아버지의 라디오』, 김진주 엮음, 서울: 느린걸음, 2016.
- 김홍련, 『産業디자인 30 年』, 삼성문화인쇄, 1995.
- 박암중, 『한국디자인진흥원 30 年사』, 한국디자인진흥원, 2001.
- 박희락, 『한국미술교육사』, (서울: 예경), 1998.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부설 조형연구소 편, 『디자인의 새로운 지평, 민철홍과 한국 산업디자인 40 年』, 서울: 미진사, 1994.
- 안상수, 『해방 후 우리나라 포스터의 자취』, 한국이미지전 카타로그, 1979.
- 오리콤, 『오리콤 30 年 광고이야기』, 서울: 오리콤, 1997.
- 정구현, 『한국기업의 성장전략과 경영구도』, 대한상공회의소, 1987.
- 정시화, 『한국의 현대디자인』, 열화당, 1976.
- \_\_\_\_\_, 『현대디자인연구』, 서울: 미진사, 1986.
- \_\_\_\_\_, 『한국의 인더스트리얼디자인 30 年』, KSID ‘87~ ‘92, 디자인하우스, 1992.
- 최 범, 『한국 디자인의 문명과 야만』, 파주: 안그라픽스, 2016.
- 카시와기 히로시, 『20 세기의 디자인』, 강현주·최선녀 역. 서울: 조형교육, 1999.
- 허버트 리이드, 『디자인론』, 정시화 옮김, 서울: 미진사, 1979.
- 한국광고학회, 『한국의 광고』, 서울: 나남, 1996.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포장 10 年』, 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80.
- \_\_\_\_\_, 『한국디자인포장센터 20 年사』, 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9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60 년대 한국의 공업화와 경제구조』, 서울: 백산서당, 1999.
- 『하라 이순석作品集』,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동문회, 1993.
- 『한홍택作品集』, 한홍택 선생作品集 발간 추진 위원회, 1988.

## 도록

- 『제 1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 1966.  
『제 4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 1969.  
『제 5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 1970.  
『제 6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 1971.  
『제 7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 1972.  
『제 8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 1973.  
『제 10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 1975.  
『제 11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도록』, 1976.  
『제 12 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도록』, 1977.  
『제 13 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도록』, 1978.  
『제 14 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도록』, 1979.  
『제 15 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도록』, 1980.

## 학술논문

- 김민수, 「한국현대디자인과 추상성의 발현, 1930-60 년대」, 『造形 FORM』 Vol.1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1995, pp. 51-68.  
김철수, 「한국산업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 『조형논업』 Vol.3 No.1, 국민대학교, 1984, pp. 131-160.  
김종균, 「한국디자인공모전의 태동과 역할」, 『디자인학연구』 Vol.28 No.3, 한국디자인학회, 2015, pp. 203-217.  
박진근,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9 No.6, 한국경제연구원, 2009, pp. 1-501.  
박암중, 「한국 근현대디자인사의 전개와 정리: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을 중심으로」, 『조형아카이브』 Vol.2009 No.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2009, pp. 117-149.

- 오창섭, 「한국에서의 근대적 디자인 생산주체의 출현」, 『디자인학연구』 Vol.25 No.1, 한국디자인학회, 2012, pp. 57-68.
- 이소현, 「한국 현대공예의 전개와 전시의 역할 : 1950-60 년대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7, 한국기초조형학회, 2016, pp. 343-353.
- 최공호, 「官立工業傳習所 연구」, 『한국근대미술사학』 Vol.8,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0, pp. 153-188.
- \_\_\_\_\_, 「‘공예’ 용어의 근대적 개념 전개」, 『美術史學』 Vol.17 No.1,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3, pp. 133-158.
- 허보윤, 「‘미술로서의 디자인 : 이순석의 1946-1959 년 응용미술교육」, 『조형아카이브』 제 2 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2010, pp.137-188

## 학위논문

- 김다운, 「시대 변화에 따른 디자인 영역 변화에 대한 고찰: 디자인 대학 학과명 변화와 디자인 직업 분야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8.
- 김소정, 「문화상품 포장디자인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입상작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
- 김주연, 「기업박물관 전시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김혜원,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전람회에 나타난 섬유제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2
- 노유니아, 「근대 디자인 개념과 양식의 수용 : 동경미술학교 도안과 유학생 임숙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신유미, 「한·일 근대 공예도안 연구: 공예도안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안현정, 「일제강점기 시각매체와 조선미술전람회 연구 : 근대의 시각주체와 규율권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위동명, 「옵티컬 패턴(Optical Pattern)이 적용된 포스터디자인의 조형적 분석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2
- 윤지홍,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의 역사적 흐름에 관한 연구 : 제품 및 환경디자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2
- 윤진애,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2
- 이근근, 「한국현대목공예에 관한 연구 : 공모전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8.
- 이소경,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에 관한 연구 : 목공예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장보람, 「한국 산업디자인의 정체성 모색에 관한 미술사적 고찰 : 1930~1980 년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조승래,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의 연구: 환경디자인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2
- 최정원, 「냉전기 미국 디자인외교와 한국공예시범소」,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석사학위논문, 2015. 6.
- 최호량, 「1960-70 년대 한국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 전개 : 디자인 기관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석사학위논문, 2015. 6.
- 하용훈, 「한국 포장디자인정책과 그 방향에 관한 연구 : 1980 년대 이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8.
- 홍영미, 「우리나라 디자인에 있어서 모더니티에 관한 연구 : 1960~70 년대 디자인 운동 및 정책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신문기사

### 『경향신문』

- “현대 포니, 국제자동차 박람회 출품” , 『경향신문』 , 1974.11.01.
- “토리노 국제자동차 박람회에서 현대자동차주식회사가 출품한 포니와 TV 텔  
런트 양정화 양” , 『경향신문』 , 1974.12.11.
- “대학 준비할 단계” , 『경향신문』 , 1961.6.8.
- “부쩍줄어들 서울대 신입생” , 『경향신문』 , 1961.10.01.
- “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148>이순석(9), 첫회부터 호조 보인 상공미전” ,  
『경향신문』 , 1974.03.20.
- “국전에 디자인부를 산업미협건의” , 『경향신문』 , 1965.10.11.
- “최순우, 공예전통의 계승 : 숙대 생활미술전을 보고” , 『경향신문』 ,  
1955.12.17.
- “외국 것 본뜬 것” , 『경향신문』 , 1966.8.10.
- “상공미전에 일언한다” , 『경향신문』 , 1967. 08.26.
- “상공미전과 그 뒷이야기” , 『경향신문』 , 1968.07.27.
- “높아진 수출 창의력 · 재료 선택 수준향상 된 상공미전” , 『경향신문』 ,  
1971.06.07.
- “박대통령, 상공미전서 당부 ‘포장 개발 힘써 경쟁 승리를’ ” , 『경향신  
문』 , 1973.06.01.
- “한국의 산업미술운동” , 『경향신문』 , 1968.08.21.
- “신선한 조형” , 『경향신문』 , 1964.06.13.

### 『매일경제』

- “76 년엔 完全國産化(완전국산화) 自動車(자동차)공업육성계획 強力(강력)추  
진” , 『매일경제』 , 1973.10.10.
- “광고대행사 만보사 합동통신사에 흡수합병” , 『매일경제』 , 1975.01.07.
- “상공미술전 지상 전시” , 『매일경제』 , 1966.08.06.
- “상공미술전 대통령수상자 강찬균씨” , 『매일경제』 , 1966.08.03.
- “오토라이너 김길홍씨에 대통령상” , 『매일경제』 , 1967.09.01.

“3 회 이상 특선자로 상공미전작품 추천” , 『매일경제』 , 1968.07.10.  
 “상공미전 출품요망” , 『매일경제』 , 1969.05.10.  
 “인삼차포장 디자인 국회의장상 최아영양” , 『매일경제』 , 1969.06.28.  
 “제 5 회 상공미전 개막” , 『매일경제』 , 1970.06.01.  
 “상공미전 시상식” , 『매일경제』 , 1970.06.17.  
 “관람객 14 만명 상공미전에 인기” , 『매일경제』 , 1972.05.09.  
 “7 회 상공미술전 출품작중 34 개 우수품 실용화 추진” , 『매일경제』 ,  
 1972.5.30.  
 “제 8 회 상공미전 지상전” , 『매일경제』 , 1973.06.04.  
 “실용화작품 우선 선정 상공미전 심사기준 마련” , 『매일경제』 ,  
 1973.05.24.  
 “투명시계 상의회장상 정경원작” , 『매일경제』 , 1973.06.04.  
 “대통령상 가정용 패널히터디자인 연구” , 『매일경제』 , 1974.06.15.  
 “상공미전 지상 소개” , 『매일경제』 , 1975.06.05.  
 “출품작 실용화에 중점 상공미전 운용개선안마련” , 『매일경제』 ,  
 1976.07.16.  
 “12 회 산업디자인전 개막 2 백 32 종 9 백점 전시” , 『매일경제』 ,  
 1977.10.04.  
 “산업디자인전 대통령상 수출용 책상용구 세트” , 『매일경제』 ,  
 1978.05.30.  
 “총 317 점 입선 14 회 산업디자인전” , 『매일경제』 , 1979.06.08.  
 “산업디자인전 대통령상에 삼성전자” , 『매일경제』 , 1979.06.08.

『동아일보』

“응용미술 등용문 제 1 상공미전” , 『동아일보』 , 1966.08.04.  
 “대통령상에 -포장디자인 표준화- 제 10 회 상공미전 개막” , 『동아일보』 ,  
 1975.06.03.

## 잡지

- 『계간 디자인』, vol.1-3, 한국디자인센터, 1969.  
『디자인·포장』, vol.1-63,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0-1980.  
『월간 디자인』, 95년 8월호, 1995.  
왕미, 「디자인으로 21 세기에 승부를 건 금성사」, 『월간디자인』 151호,  
1991,1, pp.30~39.

## 웹사이트

- LG 전자 <https://www.lge.co.kr>  
김달진미술연구소 <http://www.daljin.com>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http://kde.kidp.or.kr>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문화재청 [www.cha.go.kr](http://www.cha.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kidp.or.kr/>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db <http://www.designdb.com/>  
한독의약박물관 <http://www.handokjeseokfoundation.org/>

## ABSTRACT

### A Study on the Korea Industrial Design Exhibitions in the 1960s and 1970s

Oh, Yeo-Jin

Department of Art Histo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Korea Industrial Design Exhibition which was held in 1966 under the government policy of 'Exporting Art' for export promotion serves as a kind of indicator that showshow industrial design of Korea was developed at that time.

This study identifies the phenomena that were formed around the Korea Industrial Design Exhibition from the 1960s to the 1970s and the achievements of the system in the process of settling down and consider the meaning and limitations.

In the 1960s and 1970s, the government focused on economic growth through export-led industrialization, which led to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design and the government's strong

push for design policies.

At this time, the Korea Industrial Design Exhibition was held to promote exports at the national level. The move means that industrial design, which is mass-produced by machines in Korea, has begun to form.

From the beginning of the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which was closely related to the Korea Industrial Design Exhibition, to the period of export-led policies pursued by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e reviewed the 1960s and 1970s.

The first (1966.8.3-8.22) to 15th (1980.5.19-6.7) w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to analyze the trends and course of the annual exhibition further.

The first period, from 1966 to 1970, examines the background and aspec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Industrial Design Exhibition System.

The second period, from 1971 to 1975, was transferred to the Korea Design Packaging Center, where a full-scale design promotion activity policy was implemented. We note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exhibition and the direction of the Center's policy.

The third period from 1976 to 1980, the concept of industrial design began to emerg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developing the Korea Industrial Design Exhibition system. So the quality of the award-winning works improved due to the enhanced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 exhibition, and we analyzed the growth and limitations of this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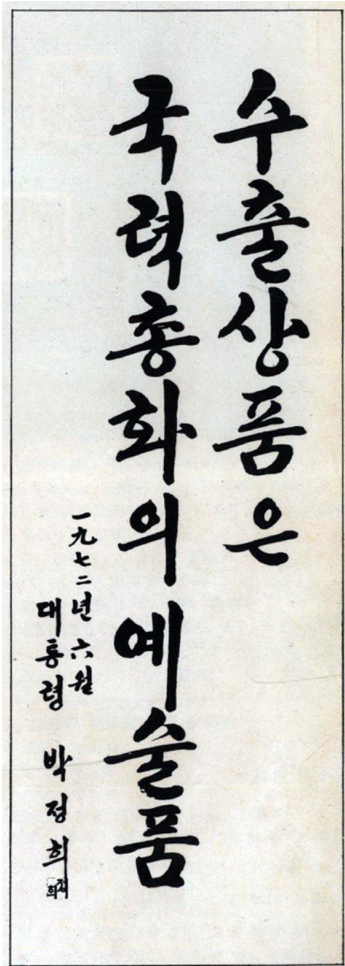
As a result, the Korea Industrial Design Exhibition was able to have a close and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exhibitor, the organizer, the responsible department, and the industry. Besides, the quality level was impro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regular system for fostering design to enhance quality and helped settle and grow the industrial design sector.

Also, active participation by industrial designers working in companies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exports and domestic consumption.

In the early days of the Korea Industrial Design Exhibition, it served as a gateway for new designers focusing on the students' classes. Later, the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 designers helped broaden the aesthetic and functional perspectives of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s export-led economic policies have led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design centered on packaging design. The Korea Industrial Design Exhibition served as a tool for nationalistic economic development for 'exporting art' resulting in unbalanced growth of designs that were stuck with the concept of industrial-centered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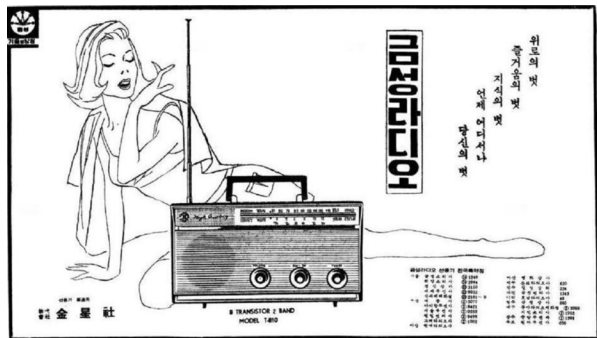
## 도판



도판1. 박정희 대통령의  
'미술수출' 휘호



도판2. 금성 'A-501', 1959.



도판3. 'A-501' 라디오 신문광고



도판4. 국내 최초 흑백 TV 'VD-191', 1966.



도판5. 제 55회 토리노 국제자동차박람회 (1974.10.30.개최)에 현대자동차 ‘포니’ 출품. 옆에는 TV텔런트 양정화.



도판6. 국내 최초의 고유 모델인 현대자동차 ‘포니’, 1974년 10월에 첫선. 1976년에 양산.



도판7. 만보사 신문 광고



도판8. 만보사 코카콜라 광고



도판9. 한독의약박물관 전경



도판10. 제1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포스터, 염인택, 1966.

序 文

우리나라는 지난 5년동안 第1次經濟開發 5年計劃을 基盤으로 增産·輸出·建設에 있어 飛躍的인 發展을 거듭하여 왔읍니다.

5~6年前만해도 고작 3千萬弗線이었던 輸出이 年平均 44%라는 急進的인 伸張으로 올해 目標 2億5千萬弗을 無難히 達成할수 있게 되었읍니다.

한편 最近의 産業生産指數는 202.1로 5年間에 꼭 두배로 늘어 났고 重要基幹産業의 刮目할만 한 發展은 生活必需品를 充足시켜주는 한편 크고 작은 工場들이 續々 竣工되므로써 國民經濟는 安定된 바탕위에서 꾸준한 成長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니다.

이러한 鼓舞的인 事實들은 急速한 輸出增大에 緣由하는것이 라고해도 過言이 아닌것이며 輸出의 伸張은 그동안 業界가 品質向上에 힘쓰고 새로운 디자인研究에 머리를 써왔기 때문인 것입니니다.

우리들은 오랜 念願인 經濟自立的 지름길이 輸出을 통한 國際收支逆調改善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러기때문에 当面한 商工施策의 重點을 “國際競爭力의 強化”에다 두고 있는 것입니니다. 이러한 時代的要求에 따라 政府는 올해에 第1回大韓民國商工美術展覽會를 開催하였던 것이며 그結果는 優秀한 디자인 創案氣風을 振作시켜 美術의 經濟開發에의 積極的인 參與를 圖謀하는데 이바지 할수 있었고 美術界와 産業界를 直結시켜 디자인改善을 促進시키는 契機를 마련하게된 것입니니다.

비록 늦은 感이 있습니다마는 뜻밖의 훌륭한 成果를 거둔 이번의 商工美術展을 바탕으로 하여 政府는 때마다 定期的으로 商工美術展을 열어 새롭고 優秀한 디자인開發에 壽興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本展覽會의 意義를 간직하기 위하여, 入選作品 235점에 대한 圖錄을 刊行하기로 한것입니니다.

本人은 앞으로 美術界나 産業界는 勿論 온 國民이 本圖錄을 많이 活用하여 우리나라 디자인改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多幸으로 생각하는바 입니니다.

1966年 10月 日

第 1 回 大韓民國 商工美術展覽會會長  
兼 商 工 部 長 官 朴 忠 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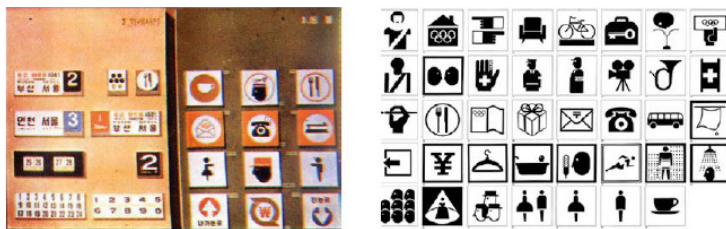


도판12. 1966년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가운데)

도판11. 제1회 대한민국상공미술 전람회도록 상공부장관의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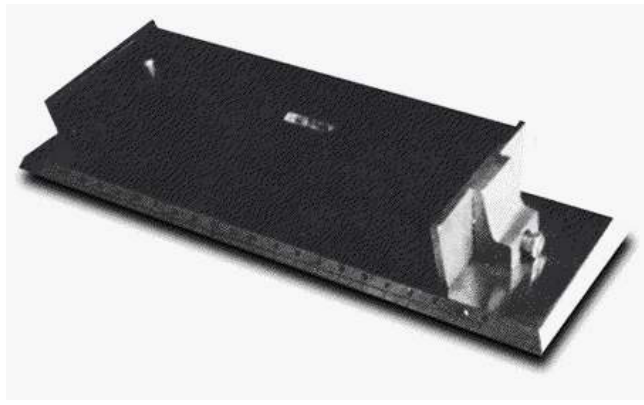
도판13. 강찬균, <서울역색채안내실시>, 1966, 제1회 대통령상.



도판14. 강찬균, 서울역색채안 내 실시와 일본올림픽촌 심볼 비교



도판15. “외국 것 본뜬 것”, 『경향신문』, 1966.08.10



도판16. 김길홍, 〈오토라이너〉, 1967, 제2회 대통령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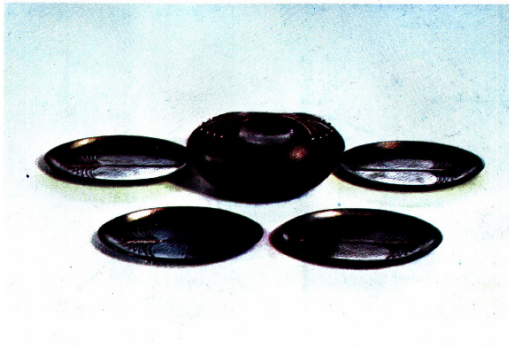
도판17. 권명광, 〈양송이 재배〉, 1968, 제3회 대통령상.



(왼쪽)  
도판18. 부수언,  
〈택시미터기 디자인〉,  
1969, 제4회 대통령상.



(오른쪽)  
도판19. 최아영,  
〈수출용 인삼차 포장디자인〉,  
1969, 제4회 국회 의장상.



도판20. 유리지, <캔디볼>, 1969, 제4회 국무총리상.



도판21. 이정숙, <수출용 한산모시 광고 및 포장>, 1969, 제4회 경제기획원장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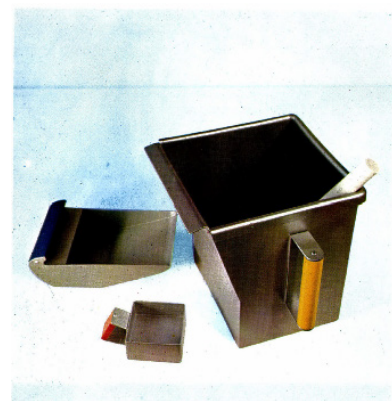
도판22. 이태영, <모직물 선전 포스터>, 1969, 제4회 상공부장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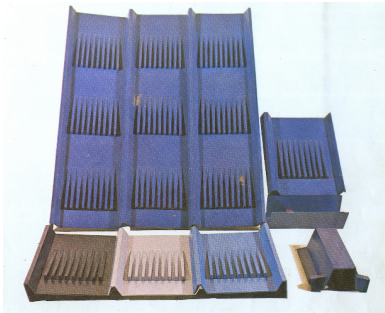
도판23. 최주경, <과기(한쌍)>, 1969, 제4회 상공부장관상.



도판24. 이능재, <완구>, 1969, 제4회 상공부장관상.



도판25. 김수철, <곡용 계량 용기>, 1969, 제4회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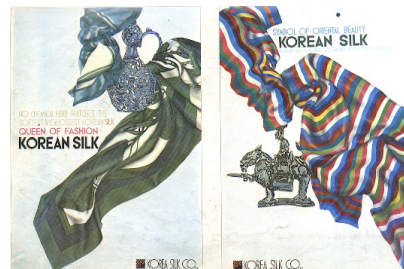
도판26. 김수철, <기와 디자인>, 1970, 제5회 대통령상.



도판27. 최아영, <홍삼 포장디자인>, 1970, 제5회 국회의장상.



도판28. 최회권, <식탁용기>, 1970, 제5회 국무총리상.



도판30. 권인수, <실크포스터>, 1970, 제5회 상공부장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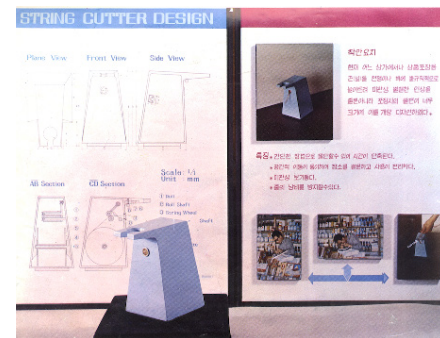
도판29. 홍종일, <한국냉동새우>, 1970, 제5회 경제기획원장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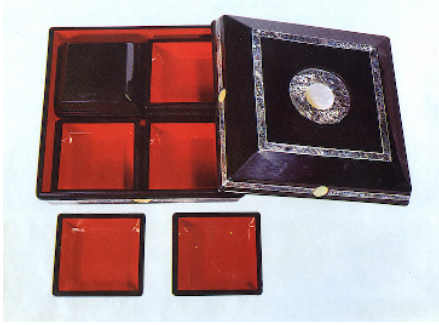
도판31. 이종희, <과반 (작품F)>, 1970, 제5회 상공부장관상.



도판29. 홍종일, <한국냉동새우>, 1970, 제5회 경제기획원장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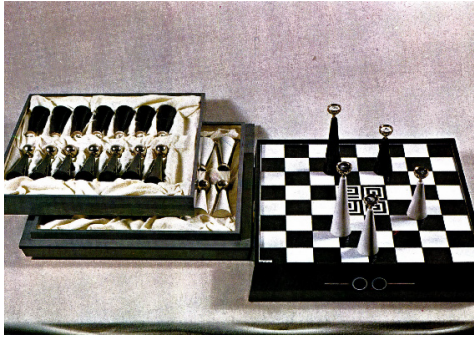
도판32. 이병구, <닐 진단기>, 1970, 제5회 상공부장관상.



도판33. 김규식, <과기 세트>, 1970, 제5회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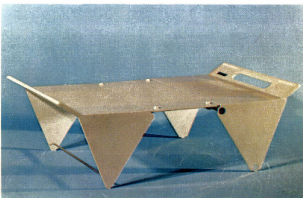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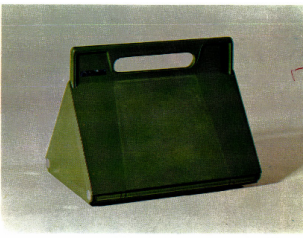
도판34. 신용태, <건전복 수출을 위한 재료별 포장 계획>, 1971, 제6회 대통령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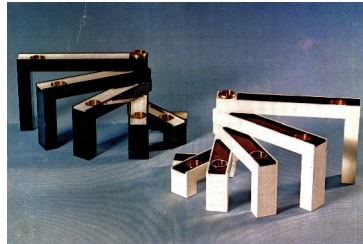
도판35. 박진홍, <서양 장기>, 1971, 제6회 국무총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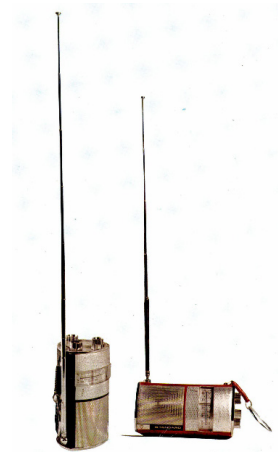
도판37. 안정인, <굴의 알루미늄 포장>, 1972, 제7회 국회의장상.



도판36. 이 건, <개폐식 간이식탁>, 1972, 제7회 대통령상.



도판38. 서갑주, <촛대>, 1972, 제7회 국무총리상.



도판39. 고을한, <휴대용 트랜지스터 라디오>, 1972, 제7회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이사장상.



도관40. 제8회 상공미전 및 한국포장대전 개장식의 테이프 커팅식을 하는 박정희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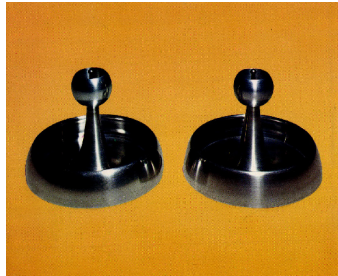
도관41. 제8회 상공미전을 참관하는 박정희 대통령



도관42. 박인숙, <장식을 겸한 병따개와 조미료통>, 1973, 제8회 대통령상.



도관43. 정경원, <투명시계>, 1973, 제8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도관44. 최선순, <촛대 겸 재떨이>, 1973, 제8회 상공부장관상.



도관45. 김순성, <전자제품 시리즈의 포장디자인 표준화 제안>, 1975, 제10회 대통령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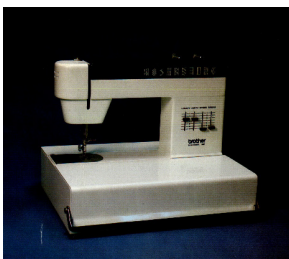
도관46. 홍성수, <전자시계 겸용 전자저울>, 1975, 제10회 국무총리상.



도관47. 홍성수, <스테레오 카세트 겸용 컴퓨터 캘린더>, 1976, 제11회 대통령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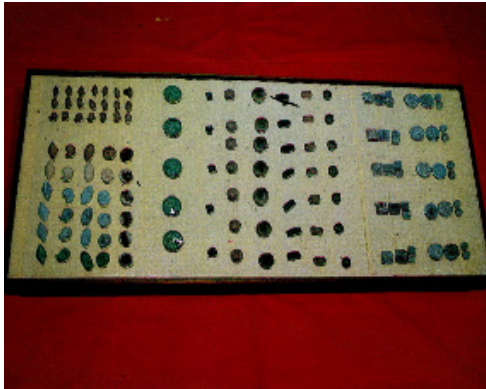
도관48. 조승래, <크리스탈 포장>, 1976, 제11회 국무총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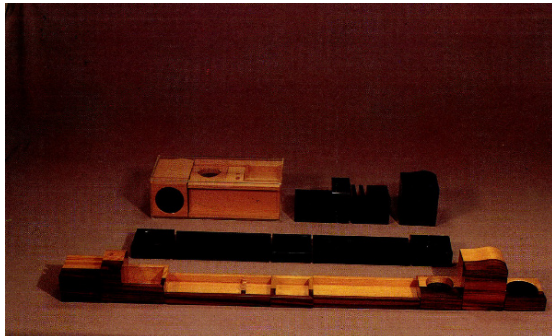
도관49. 민병혜, <포터블 전자 미싱>, 1977, 제12회 대통령상.

도관50. 이외주, <병따개 겸 벽장식>, 1977, 제12회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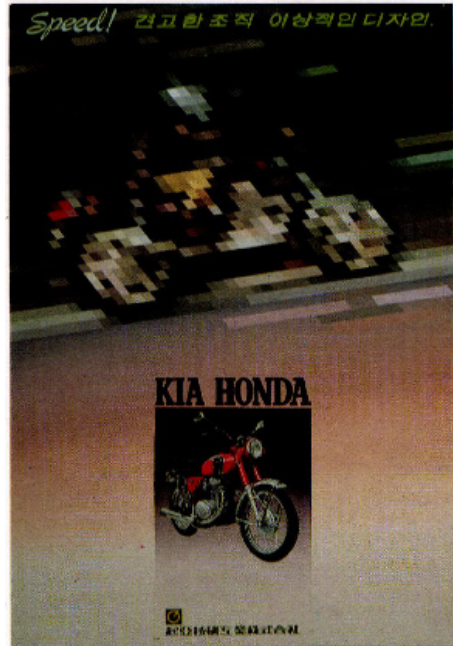
도판51. 홍경희, <병따개 겸 벽장식>, 1977, 제12회 한국무역협회회장상.



도판52. 박성우, <수출용 책상 용구 세트>, 1978, 제13회 대통령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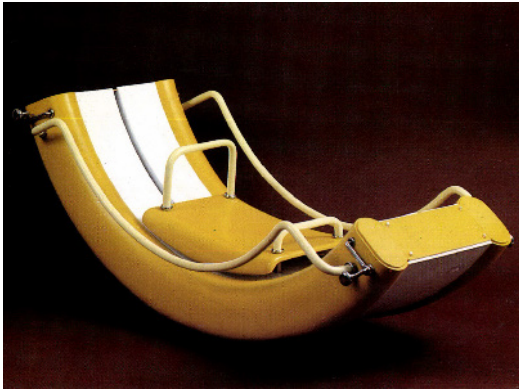
도판55. 임창영, <조명기구>, 1978, 제13회 상공부장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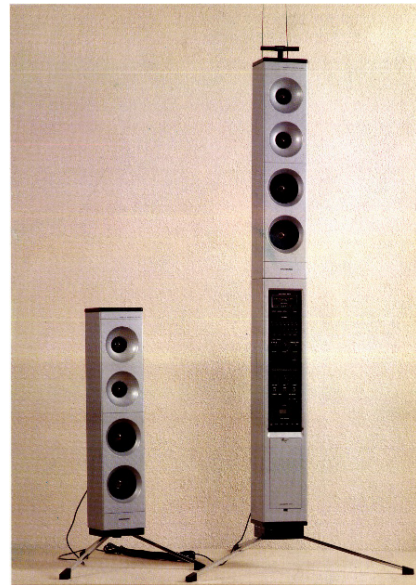
도판53. 장병석, <기아혼다포스터>, 1978, 제13회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이사장상.



도판54. 신용호, <관광 포스터>, 1978, 제13회 국무총리상.



도판57. 장병석, <실내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놀이 기구>, 1979, 제14회 상공부장관상.



도판56. 정국현, <확성 기기>, 1979, 제14회 대통령상.



도판58. 제15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홍보 아치



도판60. 조종현, <금사랑 포스터>, 1980, 제15회 국무총리상.



도판59. 이영재, <충전식 자동 살 분무기>, 1980, 제15회 대통령상.

## 부 록

### 정기간행물 『디자인·포장』 총 목차 (1970-1979)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기관지 『디자인·포장』은 수출과 관련된 디자인과 포장 분야의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이 『디자인·포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쉽게 열람해 볼 수 있도록 창간호에서 제 47 권까지의 총 목차를 부록으로 수록한다.

### Vol.1 No.1 통권 제 1 권 (1970 년 11 월 20 일 발행)

필 자	목 차
이낙선	권두언
정진화	창간사
	공업 포장의 새로운 경향
	상업 포장의 새로운 경향
심재원	물적 유통과 PD 코스트
김영호	청과물의 Pre-package
김교만	우리 나라 디자인 진흥책 에 대한 소고
유근준	한국의 문양① <대문의 특성과 종류>
이화수	한국의 공예② <역대 한국 공예 의장의 특색>
이원수	산업 디자인 강좌① 상표

### Vol.1 No.2 통권 제 2 권 (1971 년 2 월 20 일 발행)

필 자	목 차
이낙선(이사장)	서문
편집실	동경 국제 포장 Colloquium 발췌
(재)한국디자인 포장센터 전무이사 하진필	한국포장산업의 현재와 장래
유근준	한국의 문양② <기하문의 특성과 종류>
이화수	한국의 공예② <역대 한국 공예 의장의 특색>
상업디자인부	70 년도 센터 연구개발 사업 발췌
	71 년도 사업 계획

<편집실>	디자인 강좌① <디자인의 방법>
상업디자인실	용어해설
	외국의 디자인 관계지

**Vol.2 No.2 통권 제 3 권**  
**(1971 년 4 월 30 일 발행)**

필 자	목 차
이낙선	서문
편집실	디자인 포장 3호에 붙여
김영호	71 Korea Pack 을 마치 고서
편집실	71 Korea Pack 을 중심 으로 한 포장간담회
유근준	한국의 문양③ <당초문의 특성과 종류>
이화수	한국의 공예③ <역대 한국 의 공예의장의 특색>
편집실	상품포장과 구매심리
박준명	국내 포장재의 현황
박흥호	광고 이미지 폴리시
이효일	광고 Image Policy
권옥현	완구제품 디자인에 대한 소고
편집실	디자인 강좌② <디자인의 방법>
강상도	Asia 개발도상의 포장현황
상업디자인실	용어 해설③ <디자인 용어>
포장개발실	<포장 용어>
편집실	포장관련 업체 명단

**Vol.2 No.3 통권 제 4 권**  
**(1971 년 6 월 30 일 발행)**

필 자	목 차
김입삼	창립 1 주년을 경하 함
제 1 부 상업미술부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명구, 제 2 부 공예미술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백태원 제 3 부 공업미술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박대순	제 6 회 상공미술전람회 심사평
한홍택 이찬주 박두병 안광호	센터에의 제언
유근준	한국의 문양④
편집실	車新時代의 어드바이스 패키지에 있어서의 기능 과 형태 /p.27 상품 포장—그 색채와 소비자 심리 /31 여성의 색채심리와 구매 효과 /39 과자류 패키징 디스플레이 이화의 원칙 /45 새로운 시대의 식품 포장 /49
이화수	한국의 공예④
상업디자인실	디자인 강좌③ <디자인 의 방법>
	수상 2 題

	포장 설계 사례
강신영	부자재 국산화 촉진 방안을 위한 건의
김상도	해상 Container 의 전망
김영호	Cold Chain 과 포장
신언모	우리나라 화장품 디자인 에 관한 소고
상업디자인실 포장개실	용어 해설④ <디자인 용어>  <포장 용어>
김상순역	Daniel Schwartz 전형 적인 아메리칸
장대상역	유러스타 수상 작품  해외 포장  편집후기 /117

**Vol.2 No.4 통권 제 5 권**  
(1971년 8월 ?일 발행)

필 자	목 차
김병원	권두언
편집실	포장된 상품의 판매촉진책 을 어떻게 펴나가나
송흥섭	우유제품의 포장
강정준	청주업계의 디자인 포장의 제문제
	좌담회: 완구 수출진흥책 김영근, 유병일, 김석곤, 김흥기, 정동화, 한기성, 최승천, 배원택, 주홍길
이화수	한국의 공예⑤ <역대한 국의 공예의장의 특색>
한국디자인포장 센터 상업디자	한국 포장 디자인계의 활로 /42

인실장 김홍련	
이원수	지상 상품화 계획①
김영호	Hot Melt 접착제  은박지 생산메이커 롯데물 산을 찾아  이분과 1 시간
김영호	라벨의 미래
편집실	디자인 강좌④ <디자인의 제분야>  수상이제
이대성	한국전력(주) 용역
주홍길	디자이너 등록제도에 대한 소고
상업디자인 실 포장개발실	용어해설⑤ <디자인 용어>  <포장용어>
장대상역	해외포장
편집실	포장 관련업체 명단

**Vol.2 No.5 통권 제 6 권**  
(1971년 10·12 합병호)

필 자	목 차
이 활	권두언 : 디자인·포장의 연구개발의 길잡이
편집실	'71 한국포장대전 /18
이화수	한국의 공예⑥ <역대 한국의 공예의장의 특색>
하상국	우리나라 공예품 수출진 흥책에 관한 연구 /28
최영기	우리나라 공예 디자인 현황 /32
봉상균	시각 디자인과 인쇄미술의 레이아웃 제안

버트람 라 이벨	수출시장에서의 한국제조업자의 판매촉진을 위한 포장 및 생산품의 디자인
정시화	옛세이적 디자인 교육론 /48
편집실	광고 도안의 실제(1)
김홍련	한국 그래픽 디자인계의 현황 /61
편집실	71년도 센터 행사 일람표
유근준	한국의 문양⑤ <국화문의 특성과 종류>
하종옥	수상: 漢시 속의 풍경
최속희	디자인과 나
신언모	일본 디자인계의 활동상 /94
이윤수	일러스트레이션의 요건 및 발상과 효과
조영철	포장의 의의 /103
편집실	디자인 강좌⑤ <디자인의 諸分野>
이원수	지상상품계획②
주홍길역	처리성으로 본 포장재의 등급 평가법
편집실	용어해설⑥ <디자인 용어>
장대상역	해외 포장 디자인
편집실	포장산업관련업체 명단
	편집후기

**Vol.3 No.1 통권 제 7 권  
(1972년 2월 29일 발행)**

필자	목차
	1972년 APF 총회와 ASIA 포장대전을 돌아보고
	센터 72년도 연구개발 사업 계획
	포장정책론 (上)

	포장의 표준화
	마케팅 전략으로서의 물적유통 관리
	수출의류 상품 포장의 문제점
	수퍼마켓을 중심으로 한 포장과 진열
	벽지류 연구개발과 수출전망
	한국석공예품 수출전망
	<르포>한국완구 수출진흥회를 찾아서
	지상상품화계획③ 좋은 디자인이 제값을 받는다.
	<誌上세미나> 관광품 디자인 /59 선어포장 /63
	<수상> 디자인과 우리의 것 /70 봄에 만나자 /71 내일을 엮어 갈 사람들 /72 출근 길 /73
	색채노오트① <색채를 추구한 사람들>
	광고 도안의 실제 (2)
	한국의 문양⑥ <국화문의 특성과 종류>
	포스터를 중심으로 한 피터 막스論
	디자인 강좌⑥ <디자인의 諸分野>
	정밀공예의 발전과 디자인
	마케팅 및 광고의 기획·제작 신가격 기준표
	포장개발과 UNIDO의 역할
	용어해설⑦ <디자인 용어>
	색채 기호 조사 보고
	포장산업관련업체
	<안내> '72 한국포장대전 /160

	제 7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b>Vol.3 No.2 통권 제 8 권</b> <b>(1972 년 4 월 29 일 발행)</b>	
필 자	목 차
	인사의 말씀
	제 7 회 상공미전 심사평 /18
	72 년 한국포장대전 심사평
	한국적 Textile Design 의 필요성
노원희	기계시대의 디자인과 추가적인 미술
소진숙	이조시대 공예의 특징
	생활미술의 역사적 고찰과 현대생활 미술의 방향
양호일	한국적 Eroticism 의 시각적 표현 가능성(上)
	광고의 실제(3)
	지상 상품화 계획
	목각공예(上)
	색채학 노트② <미의 법칙은 영원하다>
	가격분석
	일러스트레이션
	수상 : 에티켓 오늘을 살며
	디자인의 제분야
	공예디자인 실무
	생산기업과 공예디자인(1)
	마케팅 및 광고의 기획·제작 신가격 기준표
	성하산업주식회사를 찾아서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물적유통관리
	물적유통 구조개선의 방향
	수출완구제품 디자인의 문제점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포장의 이미지 메이킹
	포장업무 소고
	패키징
	일본의 Display 업계의 근황
	코카콜라 포장
	디자인 용어
	돈 웰프리
	해외 디자이너 분석 : 도모코 미호 편
	해외 디자인 : 프랑스의 마야크
	해외포장 : 새포장 아이디어

<b>Vol.3 No.3 통권 제 9 권</b> <b>(1972 년 6 월 30 일 발행)</b>	
필 자	목 차
	권두언
대한무역 진흥공사 사장 안광호	센터에의 제언
	제 7 회 상공미전 대통령상 수상소감 /23
	제 7 회 상공미전 및 '72 포장대전 전시성과
	한국화폐도안의 변천과 분석
양호일	한국적 Eroticism 의 시각적 표현 가능성(下)
	Package design 의 Checklist
	유제품의 상품화계획
	목각공예(下)
	마케팅 및 광고의 기획제작 신가격 기준표

	생산기업과 공예디자인(2)
	광고의 실제(4)
	지속성과 적시성의 세일즈프로모션
	골판지 기업경영을 위한 계수관리
	프로덕트 디자인
	디자인의 제분야(5)
	디자인 용어
	색채학 노트③ <배색은 미를 조성한다.>
	포장정책
	수상 : 새마을 운동과 1985 년 예술공과란?
	우리나라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MANDOM Packaging 이 의미하 는 것
	패키징
	중량물포장
	굴포장
	플라스틱 포장재

**Vol.3 No.4 통권 제 10 권  
(1972 년 8 · 10 합병호)**

필 자	목 차
	권두언 : 총력수출을 위하여
하진필	제 2 차 세계포장회의 및 세계포장 진, 세계포장 Contest 참가보고
김 아	제 5 차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 제 마케팅 대회 참관기
임영주	우리나라 문양① <한국 전통문양 자료의 연구>
조병수	우리나라 주화도안의 변천과 분석
강병환	우리나라 우편도안의 변천과 분석

박상우	현대 커피 컵 디자인의 변천 과정
이규용	광고시평 : 매체와 스폰서의 논리 적 책임
정재규	환경디자인과 비주얼 디자인
이원수	Package Design 의 Checklist(II)
함성실	Visualization 과 삼포준작
	해외 디자이너소개② ALAN ALDRIDGE
유운진	공산디자인실무② 경영과 공예 디자인
	용어해설⑩ 디자인 용어
	스위스의 민중예술 /98
이화수	색채학 노트④ <색채는 감정을 보유한다.>
E.B. 캔델	보호포장에 방점을 두어야 할 한국기업
	수상 : 포장은 사치인가.
	일본디자인 · 포장 유관기관 실태 조사 보고
황선민	마케팅 전략② <통조림 제품의 상품화 계획>
	자료<애드센터방식④> 마케팅 및 광고의 기획 · 제작 신가격 기 준표
	공산화 촉진과 포장진흥 /151
	아시아 시장의 수출상품 수용자세
	특강 : 골판지 기업경영을 위한 계수관리(2)
	르뽀 : 한국의류수출조합을 찾아서
	르뽀 : 테이프 생산의 거봉 대일 화학(주)
	PR 지의 사명과 디자인포장
	디자이너 등록자 명단②

**Vol.3 No.5 통권 제 11 권**  
**(1972 년 12 월 31 일 발행)**

필 자	목 차
	권두언 : 모든 산업, 모든 상품의 수출화
임영주	우리나라의 문양② <한국전통문양 재료연구>
조병수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썰 도안의 변천과 분석
양규희	우리나라 담배값도안의 변천과 분석
	좌담 : 우리나라 수출상품 디자인과 포장은 어디까지 왔나.
오광수	정보화시대의 디자인
양호일	상업디자인 교육의 제문제점
	해외디자인 2 제
	해외디자인 소개③ Robert P.Gersin
정재규	목공예의 재료와 기법
주홍길	건전한 디자이너 단체의 성장을 염원한다
이규용	광고시평 : 어휘개념의 퇴화
	유통혁신③ <육류(우육, 돈육) 유통>
이화수	색채학 노트⑤ <색채는 판매를 촉진한다>
	수상: 디자인과 사진가육성 동양의 붓
정시화	포장디자인의 시각화
도근준	포장디자인의 심리
황선인	마케팅 전략③ <맥주제품의 상품화 계획>
이찬주	플라스틱 포장재료
강상도	1990년대 세계각국의 경영성장

	전망
이원수	Package Design 의 Checklist(III)
김영만	'73년을 향한 부츠하이라이트
조두환	특강 : 골판지 기업경영을 위한 계수 관리(3)
	용어해설⑩ 디자인 용어

**Vol.4 No.1 통권 제 12 권**  
**(1973 년 3 월 15 일 발행)**

필 자	목 차
	권두언 : 서 (인사에 대하여)
정시화	디자인+포장 FORUM: Mach Band 현상과 그 외
김삼대자	전통미의 계승(1): 「등」
신영훈	한국의 고문양 : 창살무늬
	세계 각국 디자인센터 순례 : 노르웨이 디자인 센터
	해외디자이너 소개④ <Ronald Emmering>
이경성	시각공예① <간판>
오광수	광고디자인과 현대미술
	실내디자인 개설
	인삼제품의 포장관리
	포토엠펬시 : 인삼
	Package Design : 패키지 디자인의 제작
	포장소고 : 판촉을 중심으로 본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
박래경	Design & Package 칼럼 : 디자인과 포장
	포장에 있어서의 고풍택 코팅
	우리나라 성냥갑 변천과 도안

	의 분석
	광고시평 : 신년광고의 주변
	일러스트레이터 서울·스타인버 그의 세계
	화가와 타피스리 : 보젠스키의 경우
	현대기업에 있어서의 디자인 관리
	현대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해외시장개발전략 : 괴물 일본 종합상사의 기능
문일영	수수께끼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
	탐방 : 청송공예사의 수출목각품 —목각인 심주섭씨를 찾아—
	한국농가공산품개발본부 발족
	1972년도 당센터 진흥·연구사업 실적보고

**Vol.4 No.2 통권 제 13 권  
(1973년 6월 30일 발행)**

필자	목차
	권두언 : 디자인 포장의 연구개발
	디자인+포장 FORUM: Product Design 의 Form
	한국의 고문양② <떡살무늬>
	전통미의 계승② <흙연구>
	세계각국디자인센터순례 : 덴 마마크 디자인센터
오광수	Bauhaus 에서 현대까지①
이세웅	외국의 헛손(배선)경향과 우리 나라의 디자인 문제
	아프리카인의 디자인
김세중	미술과 산업

	포토엣세이 : 나무
이화수	Package Design② : 패키지 디자인의 제작
	Design & Package 칼럼 : 디자인포장 2題
	경합시대의 포장디자인
	Palletizing 화물의 Shrink Film 포장
	포장규격화 작업의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패키지
박래경	시각공예② <인쇄물과 포장>
편집실	쇄신조성의 현대 패키징
	통조림 공관(公館)의 발달과정
	광고시평⑤ <문제제기, 그리 고 선언>
정재규	금속공예
김성환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로트렉 과 그 일화
	농산품 유통현황과 합리적 방안
	영업과 공업소유권
	서예

**Vol.4 No.3 통권 제 14 권  
(1973년 9월 30일 발행)**

필자	목차
	권두언 : 보다 새로운 디자인 포장개발
	한국의 고문양③ <능화판>
	전통미의 계승③ <신(화혜)>
	세계각국디자인센터순례 : 핀 랜드 디자인센터
	Visual Design : 한국 버스의 색채 문제와 그 방안

박래경	상공미전에의 제언
오광수	Bauhaus 에서 현대까지②
	아프리카 디자인② <표주박의 형태와 장식적 표현>
	요판조각과 인쇄
	대중속의 디자인
	디자인과 사진
	포토에세이(3) <한국의 담>
이화수	Package Design③ : 패키지 디자인의 제작
	포장소고(2)
	파렛트화(Palletization) 계획
	청과물의 골판지 포장
	식품포장재의 최근동향과 선택
	포장개선을 위한 핫멜트 응용도진단
	백화점의 마케팅 관리와 합리화 방안
	도자기의 종류와 제조
정재규	공예의 재료와 기법
	Marketing 과 Package 의 연관성
	광고시평⑥ <外樣對 내실의 현철한 소구방향>
	Design & Package 칼럼 : 그림과 디자인
	장래의 랭과(冷菓)패키지와 디자인

**Vol.4 No.4 통권 제 15 권  
(1973 년 12 월 25 일 발행)**

필자	목차
	특집 : 디자인포장 진흥사업의

	당면과제
	상업디자인 부문 - 학계에서 본 견해
	상업디자인부문 - 산업계에서 본 견해
	공예디자인부문 - 학계에서 본 견해
	공예디자인부문 - 산업계에서 본 견해
	공업디자인부문 - 학계에서 본 견해
	공업디자인부문 - 산업계에서 본 견해
	상품포장부문 - 학계에서 본 견해
	상품포장부문 - 산업계에서 본 견해
	포장기계부문
	포장자재부문
	포장과 공해대책
	AN PACK '73 포장대전 수상작 디자인의 모티브
	제 8 차 ICSID 총회 참가보고
	패키지 디자인의 조건
	한글레터링 · 타이포그래피
월레스 길레스피	Korean Opportunities in Food Packaging Systems
	세계각국 디자인센터 순례 : 스웨덴 디자인센터
오광수	Bauhaus 에서 현대까지
	아프리카 디자인
	해외 혁제품 디자인의 특색
	우리나라 상품의 디자인포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해외 포장인쇄의 현황과 전망
	위조, 변조 화폐도안의 분석
	물류의 관리기능과 합리화 방안
이규용	광고시평⑦ <나를 사주세요와 나를 사랑해 주세요>

**Vol.5 No.1 통권 제 16 권**  
**(1974년 3월 30일 발행)**

필자	목차
장성환	권두언
	특집 · 한국전통미 패턴의 활용과 개발
	완구 디자인
	도자 제품
	직물 디자인
양호일	한국의 Symbol 고찰
	이조 별전의 문양
문태선	Graphic Design 에 있어서 Op Art 의 영향
	경쟁의 무기 - 인터스트리얼 디자인
오광수	Bauhaus 에서 현대까지
	Renaissance 회화에서 보이는 인체의 표현성
	도불조경과 간판디자인의 문제
이경성	디자인 시평 : 1973년도 하반기의 한국디자인전
이화수	Package Design⑤ : 광고와 패키지 디자인
	정과물의 포장조건
	적정포장추진 방향에 대한 소고
	적정포장과 효율적인 골판지 상자의 설계

	대량유통체제에 부응하는 포장기술
	새로운 시대의 패키징 디자인의 방향
	마케팅 일환으로서의 패키징 문제
	구매동기와 소비자 행동 분석
	전통(일본광고 Agency) 소개 기업과 소비자를 잇는 Communicator
	광고효과와 판매촉진
이규용	광고시평⑧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광고>

**Vol.5 No.2 통권 제 17 권**  
**(1974년 6월 30일 발행)**

필자	목차
장성환	권두언
	■특집 I · 제 9 회 상공미전
조영제	상공미전과 디자인 교육계 / 13
김종대	상공미전과 수출산업에의 기여도
로이 V.월슨	외국 디자인 전문가가 본 대한민국 상공미전
권순형	제 9 회 상공미전 심사평
편집실	제 9 회 상공미전 행사현황
	이조의 목칠공예
	칠보문양의 특성과 종류
	의상디자인의 실제와 한국적 이미지 개발
	현대조각에서 추상조각에 이르기까지
양호일	장식 포스터의 본지 소찰
	독일 「BRAUN」사의 Design Policy
	아시아 포장연맹 회의에 다녀와서

이화수	Package Design⑥ : 생산과 패키지 디자인
박래경	디자인 · 포장 칼럼 기능과 목적에 맞는 논리적 사고
	■특집Ⅱ · 적정포장
	적정포장 추진위 구성 및 기준 설정
	과잉포장의 본질과 그 실태
	적정포장의 안전과 소비자 의식
	적정포장과 소비자 보호
	캐니더의 회수용 병의 현황
	상품포장의 개선을 위한 제언
	식품포장용 플라스틱 용기의 진공성형
	완충포장의 새로운 경향
	방수 방습포장 기법
	수출 양송이 통조림 상자 Pallet 적재모형
	판촉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 연구
	축산물의 물적유통관리
	광고시평⑨ Media Survey 에 의한 광고 조망

**Vol.5 No.3 통권 제 18 권**  
**(1974년 9월 30일 발행)**

필자	목차
장성환	권두언 ■특집Ⅰ · 국제화 시대 대처하는 디자인의 개선점과 수출전망
오범식	해외시장에서의 우리 상품 제값받기 위한 디자인 개선점 /9
김종대	수출증대를 위한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과 그 진흥방안 /12

	도자기 제품
	전자 제품
	잡화 제품
	완구 제품
	섬유 제품
	디자인 · 포장 칼럼 디자인 센터의 기능
	한국도예의 가치와 그 개발
	고궁 환경장치물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 가구장식의 기법
	한국전통문양의 연구 연화문의 종류와 그 비교
	매듭과 끈목(매집과 다회)
	디자인 효과의 측정
	경영전략과 Design Policy
	패키지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
이화수	Package Design⑦ : 판매와 패키지 디자인
	■특집Ⅱ · 판촉을 위한 상품포장과 그 문제점
	상품포장의 색채와 소비자심리
	의약품 포장
	제과류 포장
	화장품 포장
	판촉을 위한 포장정책
	포장의 기능과 형태
	적정포장 추진의 현황과 그 방향
	식품포장재의 구비조건
	액체물의 충전 · 포장 및 용기의 문제점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와 포장의 기계화
	대형상품으로 변모되는 소비성향
진흥 2과	넥타이 쇼 개최안내

Vol.5 No.4 통권 제 19 권  
(1974년 12월 30일 발행)

필자	목차
	■특집 I · 공업디자인
	공업디자인 연구개발의 요건
	공업디자인 교육의 제문제
	공업디자인 상의 인간공학
	수출증대를 위한 공업 디자인의 역할
	우리 나라의 토산품 디자인 개발과 수출전망
	건축작품의 디자인 평가에 있어서의 관심분포
	'74 디자인 시평 : 디자인에 있어서의 질의 문제
	제 6 차 ICOGRADA 총회 참가보고
	우리 나라의 의장제도
이화수	Package Design® : 수출과 패키지 디자인
	플라스틱 제품의 식품포장과 위생
	플라스틱 포장재의 국산화
	■특집 II · 자원절약시대에 대처하는 포장
	자원절약시대의 포장정책
	故紙脫墨에 의한 신문용지 생산의 실례(實例)와 포장자재의 재활용
	골판지 C 골의 경제성
	식품포장의 재료와 용기
	냉동식품의 포장
	금속관의 제조와 재료
	방수 방창(防鏽)포장
	화장품 패키지의 설명문 시비

Vol.6 No.1 통권 제 20 권  
(1975년 3월 30일 발행)

필자	목차
장성환	권두언
	■특집 I · 불황극복을 위한 디자인 개발의 제문제
	불황타개와 수출증대를 위한 디자인 개발의 과제
	전자제품 디자인의 제문제
	완구제품 디자인의 제문제
	한국 전통공예의 어제와 오늘
	Interior Design 의 어제와 오늘
	Visual Design 의 어제와 오늘
	공업디자인의 원리와 인문공학
	Corporate Image 의 사적고찰
	Systematic Furniture Design 의 지향점
	도로 표지의 레터링
	고밀도 사회에서의 디자인
	한국의 건축문양 · 창호문양
	이조 별전의 조형미
	피복디자인의 변천과 복장의 연구
	Textile Design 의 Pattern 과 그 개발
	교육적 측면에서 본 조형의 표현
	원시의 기하학적 문양
	I.D.와 예술
	그래픽 디자이너가 본 일본의 오늘과 내일
	디자인 · 포장 칼럼
	소비는 미덕이냐 악덕이냐
	■특집 II · 원가절감을 위한

	포장의 개선점
	원가절감을 위한 포장정책
	가공식품의 적정포장과 포장재의 선택
	포장기계화에 의한 물류원가절감
	패키지의 표현전략
	포장식품과 살균장치
	광고시평
	제 10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개최공고

**Vol.6 No.2 통권 제 21 권**  
**(1975년 6월 30일 발행)**

필자	목 차
	권두언
	●센터에의 제언 -창립 5주년에 붙여-
	해외 소비자의 요구 충족을
	산학협동의 교량역할을
	능동적이고 선교적인 기능을
	훌륭한 조연자가 되기를
	거시안적 계획으로
	■특집 I · 제 10 회 상공미전
	상공미전 10년 · 어제와 오늘
	상공미전의 산학계 기여도와 그 개선방안
	디자인계에서 본 상공미전과 그 개선책
	제 10 회 상공미전 심사평
	공업디자인 위의 심리적 작업능력
	경쟁의 무기-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오늘의 공업디자인 원리와 그 적용 방법

	신라(羅)금공예의 공정적 구명
	손공예의 제작방법과 그 재료
	기업을 살리는 채색 전략
	기업경영과 디자인의 역할
	Corporate Image 란 무엇인가
	한국의 건축문양 · 와당무늬
	산업도자기제품의 종류와 디자인 개선점
	우리나라 가구의 사회적 배경과 미의 본질
	원시의 기하학적 문양
	페르샤 용단문양과 그 분류
	Bauhaus 의 디자인 교육
	디자인 교육의 본질과 그 전개
	구미 수출공예단지의 「수출산업의 탑」 디자인을 마치고
	디자인 · 포장칼럼
	포장은 상품의 옷이다
	■특집 II · 포장비 절감을 위한 개선책
	의약품 포장
	화장품 포장
	제과류 포장
	자원절약화로 본 포장형태의 대비
	금속공관의 각종형태
	플라스틱 포장재의 유해론
	근대포장의 요건과 그 기법
	상표디자인의 국제적 동향
	식품 패키지와 소비자
	當舖터 연구개발사업의 주요실적

**Vol.6 No.3 통권 제 22 권**  
(1975년 9월 30일 발행)

필자	목차
	권두언
	■특집 I · 환경디자인
	미래건축을 위한 현대건축 디자인의 특질
	현대사회와 공간설계의 방향
	자연환경과 조경디자인
	기업을 살리는 색채전략
	Corporate Image 란 무엇인가③
주홍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역할
	기업과 ID
	한국전통문양 · 공예
	공예재료의 연구①
	세계 기념화 디자인
	디자인 · 포장칼럼 텔레비전 CM 전략
	■특집 II · 식품포장
	적정포장 추진운동 해외동향
	우리나라 수출상품포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ol.6 No.4 통권 제 23 권**  
(1975년 12월 30일 발행)

필자	목차
장성환	권두언
	■특집 I · 광복 30년 · 디자인 어디까지 왔나
	상업디자인의 현황과 문제점
	공업디자인의 현황과 문제점
	공예디자인의 현황과 문제점
	환경디자인의 현황과 문제점 /26
	기업을 살리는 색채전략③

	Corporate Image 란 무엇인가④
	기업과 ID②
	한국전통문양 · 공예②
	공예재료의 연구②
	현대생활과 전통산업 진흥시책
	고유 전통미 도입에 관한 고찰
	디자인 · 포장칼럼
	새로운 소비군상 여성과 광고심리
	■특집 II · 국제포장 세미나
	국제포장 세미나 개최 동기와 목표
	외국의 포장산업 현황
	이란
	인도네시아
	멕시코
	홍콩
	국제포장 세미나에서 채택된 결론 및 결의사항
	제 4 차 세계포장회의 참가보고
	과자포장의 실제
	공관(空罐)의 권체(卷締)용어
	수출포장의 설계요소와 기법

**Vol.7 No.1 통권 제 24 권**  
(1976년 2월 25일 발행)

필자	목차
장성환	권두언
	■특집 I · 상공디자인
	상업디자인의 발전과정과 방향
	상업디자인의 연구개발과 진흥
	패키지 디자인의 색채심리와 구매효과
	디자인 칼럼

	환경디자인과 도블의 미
이경성	한국디자인의 좌표①
	기업을 살리는 색채전략④
	Corporate Image 란 무엇인가⑤
	기업과 ID③
	한국전통문양·공예③
	공예재료의 연구③
	한국현대공예의 형태와 기능
	완초(莞草)제품 디자인
	근대한국 자수디자인의 변천과 특성
	이조 십장생문양의 사회성과 조형성 분석
	-디자인 수상(隨想) - /92 작가와 평론가 현대생활과 디자인 수상
	디자인 화제(話題)와 소식
	■특집 II · 기업체에 있어서의 디자인 활동
	태평양화학공업(주)의 경우
	(주)유한양행의 경우
	대한전선(주)의 경우
	우리나라 산업디자이너의 실태분석

**Vol.7 No.2 통권 제 25 권  
(1976년 4월 25일 발행)**

필자	목차
장성환	권두언
	■특집 I · 공업디자인
	공업디자인의 발전과정과 그 방향
	수출증대를 위한 공업디자인의 역할 과 질적 문제
	공업디자인 교육의 실제와 효율화 방안

	일본 공업디자인의 발전과 그 배경
	디자인 칼럼 Design, Design, Design
이경성	한국디자인의 좌표② /34
	Corporate Image⑥
	Label Identity
	DECOMAS①
	DECOMAS 사례 - 조영제 디자인전
	한국전통문양·공예④
	공예재료의 연구④
	한국현대공예의 형태와 기능
	완초(莞草)제품 디자인
	근대 한국 자수디자인의 변천과 특성
	이조십장생문양의 사회성과 조형성 분석
	우수제품디자인 소개
	디자인 화제와 소식
	- 디자인 수상(隨想) - /144 멋쟁이를 위한 디자인 막 너머의 기대 디자이너 친구 A. B. C. 면목(眠目)과 자문
	제 11 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개최공고

**Vol.7 No.3 통권 제 26 권  
(1976년 6월 25일 발행)**

필자	목차
하진필	권두언
	■특집 I · 공예디자인
	공예디자인의 개발과 진흥방안
	한국공예의 특질

	공예디자인 교육의 실제와 효율화 방안
	디자인 컬럼 /23 공예미학
	한국디자인의 좌표③
	Corporate Image⑦ Package Identity
	DECOMAS②
	한국전통문양 공예⑤
	공예재료의 연구⑤
	- 디자인 수상(隨想) - /70 전통과 디자인 공예교육을 통해 본 문제성 디자이너의 평 /74 디자이너와 디자인 /76
양호일	포스터 디자인론
	죽세공예의 기술개발과 디자인 개성방안
	디자인 강좌① 디자인의 과제와 조형훈련
	디자인 심리학
	상품이름과 광고문안
	우수제품 디자인 소개
	디자인 화제와 소식
	우리나라 디자인 교육기관의 실태 분석

**Vol.7 No.4 통권 제 27 권**  
**(1976년 8월 25일 발행)**

필자	목차
김희덕	권두언
	■특집·제 11 회 상공미전

	상공미전과 디자인발전 /13
	상공미전과 디자인교육
	상공미전과 수출산업
	제 11 회 상공미전 심사평
	제 11 회 상공미전 수상자 소감
	디자인 컬럼 - 텐 페르마넨트
	한국디자인의 좌표④
	DECOMAS③
	한국전통문양 - 연판문의 특성과 종류
	공예재료의 연구⑥
	- 디자인 수상(隨想) - /65 문제의식 복고취미 고전적 악세사리
양호일	포스터 디자인론
	디자인 심리학
	디자인 강좌② 창안에서 구현으로
	기업과 디자인
	공업디자인의 채색계획
	우수제품 디자인 소개
	디자인 화제와 소식
	Creativity '76 Design Show
	■화보 제 11 회 상공미전 수상작품 시상전

**Vol.7 No.5 통권 제 28 권**  
**(1976년 10월 25일 발행)**

필자	목차
김희덕	권두언
	■특집·패키지 디자인 제작의 실제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
	제과류 패키지 디자인(해태제과의 경우)

	제과류 패키지 디자인(롯데제과의 경우)
	의약품 패키지 디자인
	한국디자인의 좌표⑤ (금속디자인)
	DECOMAS④
	산업디자인의 기능과 역할
	산업디자인에 있어서의 인문공학
	한국전통문양
	도자문양
	공예재료의 연구⑦
	- 디자인 수상(隨想) - /78 알쏭달쏭한 관계
	제화디자인과 그 특성
양호일	포스터 디자인론③
	디자인 강좌③ 디자인과 의장의 실상
	공업디자인의 색채계획
	디자인과 미술의 함수
	우수제품 디자인 소개
	디자인 화제와 소식
	광고시평 이달의 문제작 광고
편집실	상공미전,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전람회」로 개칭

**Vol.7 No.6 통권 제 29 권**  
**(1976 년 12 월 25 일 발행)**

필 자	목 차
김희덕	권두언
최대석	산업디자인에 있어서의 인문공학②
김지철	산업디자인의 기능과 역할②
신상재	산업디자인의 전개와 단계적 발상
이화수	디자인 강좌④ 산업디자인의 세계

이경성	한국디자인의 좌표⑥
김덕겸	DECOMAS⑤
차임선	동양디자이너의 창작경험
이윤수	디자인의 체크 포인트와 프로세스
임영주	한국전통문양 - 도자문양
창윤우	공예재료의 연구⑧
하태문	디자인 화제와 소식 및 우수작품 디자인 소개
임영조	76 년도 그래픽 디자인전과 수작광고

**Vol.8 No.1 통권 제 30 권**  
**(1977 년 2 월 25 일 발행)**

필 자	목 차
	산업디자인에 있어서의 인문공학③
	닛산 자동차의 디자인 활동
	산업디자인의 기능과 역할③
	디자인 강좌⑤ <산업디자인의 변화>
	한국디자인의 좌표⑦
	DECOMAS⑥
	한국전통문양 / 옛 등기
	디자인의 조건과 굿 디자인
	디자인 관리·연구·가치공학
	디자인 논리
	우리나라 캘린더 디자인의 현황과 방향
	우수제품 디자인 소개 및 디자인 정보
	작품과 이변
임영조	76 년도 그래픽 디자인전과 수작광고

**Vol.8 No.2 통권 제 31 권**  
**(1977 년 4 월 25 일 발행)**

필 자	목 차
	디자인 강좌⑥ <산업디자인의 개발>

	산업디자인의 기능과 역할④
	한국디자인의 좌표
	DECOMAS⑦
	한국전통문양 / 이조의 민화
	GOOD DESIGN⑦
	디자인 개발의 FORM 및 전개방법
	미국 패키지 디자인의 현황
	'76 홍콩 워크샵 참가 리포트
	광고의 정보화
	한국 현대공예의 발전과 대학공예교육
	공예 디자인의 이론적 한계와 그 정의
	우수제품 디자인 소개 및 디자인 정보

**Vol.8 No.3 통권 제 32 권**  
**(1977년 6월 25일 발행)**

필자	목차
	과학성화(盛華)시대의 건강관리
	디자인 강좌⑦ <산업디자인의 생활화>
	산업디자인의 기능과 역할⑤
	그래픽 디자인과 상공사진
	산업과 미술, 산업과 광고
	한국전통문양 / 고전벽화
	이태리 산업 디자인전 유혹
	'77년의 Sales Promotion
	인쇄 디자인
	디자인 정보 및 수상제품 디자인 소개

**Vol.8 No.4 통권 제 33 권**  
**(1977년 9월 20일 발행)**

필자	목차
	집중기획 <한국의 디자인 포장산업>

	한국의 디자인 등록제도
	한국의 산업 디자인 기구와 현황
	디자인 강좌⑧ <산업디자인과 인문공학>
	해외조류 - 포장 디자인의 4가지 기능
	자원절약을 위한 포장대책
	한국전통문양 / 괴수문, 괴조문
	디자인 개발과 공예소유권
양호일	포스터의 역사④ 일본 포스터 역사
	조사보고기 / 중동지역 수출상품포장 현지조사
H.C. 테르나	디자인 개발의 방향
	수출포장과 포장의 표준화
김두영	가전제품 디자인 연구
	인쇄 디자인 考 / 활자

**Vol.8 No.5 통권 제 34 권**  
**(1977년 11월 28일 발행)**

필자	목차
	■집중기획 I · <제 12 회 산업디자인 전람회>
	산업 디자인전의 의의
	산업 디자인의 개발과 수출입국의 의지
	종합심사평
	산업디자인 개발과 디자인 교육의 제문제
	제품개발과 법적 보장
	산업 디자인의 표시 - 반론
	외국의 전시활동과 실태
	산업 디자인전을 마치고

	■집중기획II·제4차 아세아 포장대회
	기업의 포장 시스템 정립
	제품개발과 디자인
	캐나다 소지역사회 디자인 계획
	한국전통문양 / 원시공예
	디자인 개발과 정보
	제품 디자인과 환경
	디자인 강좌(끝)
	한글 문자 디자인의 고찰
	공예연구 <기능시대의 공예>
	77년도 문제작 광고 (신문 광고 중심)

**Vol.8 No.6 통권 제 35 권**  
**(1977년 12월 30일 발행)**

필자	목차
	일본 산업 디자인의 어제와 오늘
	풍부한 디자인 재료 아쉬워
	우리 것에 관심을 갖자
	특집좌담 <일본 디자인계를 돌아보고>
	■집중기획 <'78년에 바란다>
	한국 수출상품의 국제수준
	한국 수출상품의 디자인 문제
	신제품 개발에 총력 쏟아
	금년도의 패키지 디자인과 개발방향
	화장품 포장 디자인의 중요성
	공예공모전 계획 (한국 공예가회)
	'78년에 바란다 / 포장의 기계화
	환경 디자인의 개발에 힘쓰자
	연구사업과 진흥홍보 업무를 강화할 때
	실력있는 디자이너가 되자
	골판지 포장산업을 육성할 때

	디자이너의 자질 향상을 기할 때
	신인들에 기대 걸어 (대한산업협회)
	소비자포장의 기능과 포장방법
	수출포장의 문제점과 대책
	기능시대의 공예(下)
	온타리오 소도시 디자인 계획②
	시각 디자인 원리로서의 통일성과 균형 ①

**Vol.9 No.1 통권 제 36 권**  
**(1978년 3월 10일 발행)**

필자	목차
이은규	중화학 공업 육성과 수출 산업화
	■집중기획 <한국의 도자 산업과 요업 공예>
	우리 나라 도예의 본질과 역사
	도자기 유약과 그 원료
	점토제 관광 토산품의 개발 및 육성 방안
	우리 나라의 요업 실태와 개발 전망
	해외에서 빛본 한국 도예 문화의 근원
	포장 재료의 개발과 포장 정책
	미국 하이그레이드 사의 포장 디자인
	조일 산업의 패키지 CI <통조림과넥 타류의 패키지 디자인 프로우필>
	설악산 표지판의 시각 디자인 연구
	인쇄 디자인④ <타이포그래피컬 디자 인과 일러스트레이션>
	한국의 전통 문양 <삼국 시대의 금속 공예②>

**Vol.9 No.2 통권 제 37 권**

**(1978년 4월 30일 발행)**

필자	목차
	■집중기획 I <환경 디자인과 미래 설계>
	우리 나라 환경디자인의 문제점 및 그 대책
	밝은 생활 공간 창조를 위한 환경 디자인의 제문제
	환경 디자인과 미래 도시 설계
	고속 도로의 환경 설계와 조경 사업
	생활 환경 개선과 농촌 새마을 운동
	병·의원의 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 외 디자인
	Action office 연구 자료(1) < Action office 의 대두>
	호텔 내부의 공간디자인과 그 실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가구 디자인
	관광 산업 개발을 위한 환경 디자인의 제문제
	디자인 칼럼 <한국의 현대 디자인 교육>
	전시 과학① <디스플레이 계획>
	기획 시리즈(1) <신제품 개발 계획>
	일본 산업 디자인의 개발과 사조의 흐름①
	한국의 전통 문양 / 한국의 공예 미술 <삼국 시대의 금속 공예③>
	인쇄 디자인⑤ <동凸판(1)>
	■집중기획II <우리 나라 포장 산업의 실태 분석 및 그 방향>

	우리 나라 포장 산업의 현주소
	골판지의 강도 분석 및 그 문제점
	포장 개선을 위한 주요 제품별 포장 실태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출 포장 실태와 진로

**Vol.9 No.3 통권 제 38 권**

**(1978년 7월 1일 발행)**

필자	목차
	디자인 개선을 위한 전문기업 육성을
	포장 산업 진흥 활약에 기대
	■집중기획 I <제 13 회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
백철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의 어제와 오늘
장윤우	산업 디자인전의 의미과 공과
강선동	산업 디자인전의 출품 및 전시 현황
박대순	심사 총평 - 산업계의 참여 두드러져
이인상	재야 디자이너의 변 순수한 창작의 대작 아쉬워
	전시 과학② <디스플레이 계획>
	온타리오 소도시 디자인 계획③
	일본 산업 디자인 개발과 사조의 흐름 ②
	신제품 개발 계획②
	마케팅 전략과 물류 관리
	한국의 전통 문양 <한국의 금속 공예>
	인쇄 디자인⑤ <동凸판(2)>
	Action office 연구 자료(2) < Action office 의 대두>
	색채로 팔리는 패키지①
	포장 기술 연구 자료② 골판지의 강도

	분석 및 그 문제점>
	광고 시평 시리즈① <카아피를 중심으로 본 문제작>

**Vol.9 No.4 통권 제 39 권**  
**(1978 년 9 월 30 일 발행)**

필 자	목 차
김희덕	권두언 수출용 포장재의 적기 공급 논란에 대한 우리의 견해
강선동	권두 논문: 디자인의 변혁과 진흥 방향
박대순	특별 기고: '산업디자인전 출품작의 실용화' 이렇게 본다-
정시화	제언 - 이 시대 디자이너가 할 일 ■집중기획 <'78 상반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별 연구 사례>
권옥현	자동 화재 속보기 디자인
문수근	경주 조선 호텔 CIP 연구
강필구	강원도 특산품 포장 디자인
김장호	제 24 회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 CIP 계획
최정봉	관광 토산품 디자인
전시과	78 하반기 세계 주요 국가별 전시 계획
진흥과	유럽의 일류 브랜드① <유명 상품 디자인 시리즈>
홍보과	뽀뽀렌즈 코스타리카의 도자기 공업
	연구 논문 -
성동욱	합판재 가구를 중심으로 본 현대 가구
오영숙	주거의 식생활 공간 디자인 관(罐) 대체 포장재 개발
	전시 과학③ <디스플레이 계획>
	한국의 전통 문양 <신라종과 고려종>

	인쇄 디자인⑦ <부식뾰판>
	Action office 연구 자료(3) < Action office 의 대두>
	연구 논문② <색채로 팔리는 패키지>
	포장 기술 연구 자료③ 골판지의 강도 분석 및 그 문제점
	디자인 · 포장 수상
김영호	포장 산책
강석관	선의 단상
문 철	타다노리 요코의 글을 읽고
	해외 정보
홍보과	KDPC
홍보과	편집 후기

**Vol.9 No.5 통권 제 40-41 권**  
**(1978 년 12 월 30 일 발행)**

필 자	목 차
김희덕	권두언 ■집중기획 <한국의 자동차 공업 디자인>
모성기	자동차 디자인 변천사① 디자인 경쟁에 들어선 한국 자동차 공업
김근배	자동차 디자인과 인간 공학
윤준모	우리 나라 자동차 생산 및 수급 현황
이병학	자동차 디자인의 허와 실
유홍중	수출 전략 산업으로서의 자동차 공업
한도룡	전통과 스타일 중심으로 발전하는 차
박교신	자동차 디자인의 이론과 실제① 화 보 - 한국 자동차 제조 3 사의 1978 년 도 자동차 모델
	한국의 전통 문양 <보상화문>

정대유	도시 공간의 가로 장치와 산업 디자인의 역할①
이화수	현지 르뽐 <오늘의 일본 산업 디자인>
진흥과	유럽의 일류 브랜드② <유명 상품 디자인 시리즈>
장숙영	연구 논문 - 한국 관광 호텔 CIP
김종오	연구 논문③ <색채로 팔리는 패키지> 국립 공원 집단 시설 지구 그룹 배치 방안
장윤우	디자인 · 포장 수상
신재성	시와 미술 인터팩트 참관기
명태현	전시 과학④ <디스플레이 계획>
노병식	인쇄 디자인⑧ <망철판과 오우버 프린팅>
홍보과	KDPC 안테나
홍보과	편집 후기

Vol.10 No.1 통권 제 42 권  
(1979 년 2 월 발행)

Vol.10 No.2 통권 제 43 권  
(1979 년 3 월 발행)

Vol.10 No.3 통권 제 44 권  
(1979 년 6 월 발행)  
(미열람)

Vol.10 No.4 통권 제 45 권  
(1979 년 10 월 15 발행)

필자	목차
	왜 산업디자이너는 제네럴리스트가 아니면 안 되는가? /2

거트루드 K. 페러	우수 산업 디자인과 포장의 현황
	영국 산업 디자인전
	Color Pictorial - British Industrial Design Exhibition
조스 만서	영국의 산업 디자인 단체
	근대 디자인 개척자들의 생애와 작품③
	심볼 마크 개정 및 사색 제정
	디자인 교육의 문제점 /22
	기업 시리즈③
	디자이너, 디자인 교육, 디자인 정책①
	컴퓨터를 이용한 산업 디자인
	한국의 전통문양⑧
	텍스타일 프린트 백과②
	디자인 경영 사례②
	세계의 산업 디자인사③ <신(神)의 영광과 미의 향수>
	포장사양서(仕樣書)는 어떻게 작성되어야 할 것인가?
	농산물 포장개선 연구
기아 산업기획 관리실 모성기	자동차 디자인의 변천사②
	출판 디자인
	디자인 뉴스
	NEO PRODUCTS

Vol.10 No.5 통권 제 46 권  
(1979 년 12 월 20 발행)

필자	목차
	산업 디자이너 양성 위한 지원 절실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이사장 김희덕	IDSА '79 년도 총회와 ICSID XI차 대회에 참가하다
	원색화보 : 이태리 산업 디자인전
	단순·명쾌한 디자인의 실용품
	콤포소 도로 이탈리아 디자인상 수상작품
	산업디자인은 20 세기의 예술인가?
	1970 년대의 한국광고
	한글 디스플레이 타이프 개발 방향 ①
	디자인은 인문생활을 고양하는 것 이러야 한다
	포장방법의 개선과 보관수명의 연장
	디자이너, 디자인 교육, 디자인 정책②
	제 8 회 전국 대학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품
	세계의 산업 디자인사④ <인문과 미의 조화>
	기업 시리즈④ <포장개선과 판매 전략>
	텍스타일 프린트 백과③
	한국의 전통문양②⑨
	근대 디자인 개척자들의 생애와 작품④ <한국 산업 디자인의 전위 펜타그램>
	출판 디자인
	자력금전출납기 디자인
	세계의 테이블웨어 디자인
	NEO PRODUCTS
	부록 : 디자인·포장 용어해설⑤

**Vol.10 No.6 통권 제 47 권**  
**(1979 년 12 월 31 발행)**

필 자	목 차
	[산업디자인전]을 중심으로 본 70 년대 의 디자인 제품부문: 제품디자인 정착의 기틀 마련 시각부문: 그래픽디자인의 성장기 이룩 공예부문: 일품공예 벗어난 생활용구화 바람직
	원색화보 : 산업디자인전, 대통령상 수상 작품 한국시각디자인협회, 전시 작품
	미학의 논리
	한국의 전통문양⑩
	디자이너, 디자인 교육, 디자인 정책③
	한글 디스플레이 타이프 개발 방향②
	사고방지를 위한 시스템 어프로치
	79 프린트 팩 참관 및 동남아 산업디 자인계를 돌아보고
	70 년대의 우리나라 포장산업
	세계의 산업 디자인사⑤ <위대와 허구 의 미학>
	고객의 편의를 위한 은행장치 디자인 출판 디자인
	텍스타일 프린트 백과④
	근대디자인 개척자들의 생애와 작품⑤ <아비타레 프레스토의 전개>
	기업 시리즈⑤ <포장개선과 판매 전략> 기업은 소비자의 변화되는 가치관을 만족시키는 디자인을 이용해야 한다
	올리베티 미국 대학 순회전시회
	NEO PRODUCTS
	부록 : 디자인·포장 용어해설⑤